

제1편

인하공과대학의 설립과 시련

제1장 설립과 발전(1954.4~1960.3)

- 제1절 설립과정과 이념
- 제2절 인하공대의 발전과 학제개편 문제
- 제3절 교무·학사행정
- 제4절 학생활동

제2장 격동기의 인하공과대학(1960.4~1968.8)

- 제1절 4·19혁명과 학내 위기
- 제2절 5·16 군사쿠데타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
- 제3절 학내 안정과 새 재단 영입

제1장. 설립과 발전 1954. 4~1960. 3

제1절. 설립과정과 이념

1. 설립배경

(1) 설립의 개요

인하대학교는 1954년 4월 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시작된 뒤 1972년 3월 1일 종합대학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의 명칭은 줄곧 인하학원이지만, 처음에는 정부관계인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였다가, 1968년 9월 5일 한진상사가 재단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인하대학교', '인하대학', '인하대'로 표현하겠지만, 초창기의 경우에는 '인하공과대학', '인하공대' 등의 표현을 혼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립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두기로 한다.

인하대학의 설립은 한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1952년 12월 중순경,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법린 문교부장관에게 인천에 공과대학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시를 받은 문교부는 1953년 2월 8일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 발기회를 개최하고, 3월 5일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을 고문으로 하고, 위

원으로는 위원장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각부 차관, 외서관리청장, 인천시장, 하와이교포 대표, UNKRA(유엔한국부흥위원단) 대표, UNCAC(유엔민사처) 대표, 교육계인사, 정부산하기관 및 공사·회사의 책임자 등 47명으로 구성되었다. 4월 3일에는 정부에서 학교설립자금으로 100만불을 부담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6월 4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여, 학교설립 자금으로 총 515만불이 들어가는 데 하와이 교포의 15만불과 정부의 100만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모든 남녀 동포가 적은 액수라도 원조하여 보충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설립기성위원회는 인천시장이 할애한 사유지 125,173평을 확보하여 교사와 부속공장을 건축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여, 1954년 2월 5일 인하공과대학을 운영할 주체로서 재단법인 인하학원을 설립, 인가를 받고, 동시에 인하공과대학의 설립 개교도 인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광산공학과, 전기공학과, 조선공학과, 화학공학과 의 6개 학과에 각각 30명씩 180명을 모집하여, 1954년 4월 24일 입학식을 거행하고 인하공과대학을 출범시켰다.



하와이 한인학원 교장시기의 이승만

(2) 하와이 이민과 이승만의 민족운동

인천(仁川)과 하와이(荷哇伊)의 첫 자를 따서 '인하(仁荷)대학'의 교명을 짓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학교를 설립한 데서 나타나듯이, 인하대학의 설립배경으로 먼저 거론할 것은 하와이 이민 및 그들의 민족운동과 인하대학 설립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이승만의 역할이다.

하와이는 사탕수수 재배를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19세기 중엽 이래로 처음에는 중국인, 다음에는 일본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 필리핀인 등으로 교체 투입하여 왔다. 그 이유는 단일민족의 노동자의 수가 많아져 반란이나 파업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한국인 노동자는 20세기초 그 수효가

크게 증가한 일본인 노동자를 일부 대체하기 위하여 건너가게 되었다.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의 한국인 노동자 도입 요청을 받은 주한 미국공사 알렌(H.N. Allen)이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을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하고, 이에 정부에서 이민업무를 담당할 수민원을 설치하면서 최초의 합법적 해외이민이 시작되었다. 사탕수수농장주협회의 간부 비숍(E.F. Bishop)과 알렌이 소개한 데셀러(D.W. Deshler)가 이민사업을 추진하였다. 데셀러는 인천에 동서개발회사를 설립하고 각 항구에 지사를 두어 하와이 이민을 모집하였다.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 첫 이민단 121명이 겐카이마루(玄海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일본의 고베(神戸)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중 102명이 증기선 갤릭(Gaelic)호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이후 1905년 4월말까지 65척의 이민선으로 한국인 7,843명이 하와이로 건너갔다. 남자 6,701명, 여자 677명, 미성년자 465명이었다. 남녀의 비율에서 보더라도 하와이 이민은 노동이민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1905년 소위 을사보호조약 이후 미주(美洲) 한국인의 민족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1909년 2월 1일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를 지부로 거느린 국민회의 창립으로 이어지고, 1912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회 중앙총회가 결성됨으로써 조직이 완성되었다.

하와이에서는 박용만(朴容萬)과 이승만(李承萬)이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박용만은 1912년 12월 하와이로 건너가 하와이 국민회 기관지의 주필로 활동하면서, 1914년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하고 200명의 군관생도를 모집, 사관학교를 개교하는 등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1913년 2월 이승만이 하와이로 진출하여 교육, 종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상호 경쟁, 견제, 대립하게 된다. 그들은 국민회의 주도권 싸움, 국민회의 재정권 문제, 항일운동 방략의 차이 등을 매개로 하여 1915년, 1918년 두 차례의 분쟁을 겪으면서 분열되었다. 박용만은 국민회의 재정을 군사분야에 지출하기를 원하였고, 이승만은 교육분야에 지출하기를 원하였다. 분쟁의 결과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세력이 하와이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교육, 종교, 외교적

인 차원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한인 기독교원, 한인기독교회, 대한인교민단·대한인동지회는 바로 그 기반이 된 조직들이다. 여기서 이승만의 교육활동의 결정이며 인하대학 설립의 밑거름이 된 한인기독교원을 소개한다.

하와이 이민자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1906년 9월 한인기독교회를 설립하였는데, 그것은 하와이 감리교회의 산하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감리교단의 미국인 간부들이 친일적인 발언을 하거나 일본 영사관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등으로 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1913년 9월 한인기독교회의 교장을 맡게 된다. 이승만은 학교 이름을 한인중앙학원으로 고치고 사업의 확장을 꾀하는 등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14년 6월 감리교단의 미국인 간부가 재정출납을 통제하고 학교운영에 간섭하자, 이승만은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 자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포들의 후원을 얻어 별도로 1914년 7월 한인여자학원을 설립하고, 1918년 9월에는 미국 감리교에서 분리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남녀공학의 한인기독교원(Korean Christian Institute)을 설립하게 된다. 미국사람들이 하와이 미국사회에의 동화를 교육방침으로 삼은 데 반하여 이승만은 민족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입장이었다. 이후 이승만은 한인기독교원의 부지를 마련하고 기숙사와 교사를 지어 교육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방 후,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자신이 전



한인기독교원 사진

개한 교육사업과 민족운동을 기념할 뜻을 지니고 있었다. 한인기독교원은 1947년 이미 해체하였고 새로운 사업을 확정짓지 못한 채 학원부지를 매각한 대금 15만불을 가지고 있었다. 한인기독교원의 「하와이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축사」에 보면, “하와이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본 학원이 1947년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됨에 따라 갈리하이 계곡에 있는 학원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인하공과대학 설립에 기본금으로 회사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와이에서는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도 준비중에 있었다. 그것이 조국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승만은 1954년 10월에 있었던 인하대학 개교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래서 이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는 것을 그 동안에 돈이 15만 달러라 그 가난한 농장에서 번 돈 어떤 때에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서 돈푼 모은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해서 학교를 했다가 거기서 된 돈이 이만치 되어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하와이 기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이 학교의 이름을 인천과 하와이의 연락을 만드는 기념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대학을 인하라고 했오.

이 대목에서 인하대학의 설립구상이 이승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인기독교원의 매각 자금과 하와이 이민 50주년 기념, 이 양자가 결합되어 새로운 교육기관인 인하대학 설립으로 표출된 것이다.

하와이 이민과 민족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기념한다는 것은 이승만 개인에

게 있어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독립협회운동으로 투옥되어 있을 때 기독교로 개종한 뒤 선교사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 민족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1904년 11월, 인천에서 몰래 이민배를 잡아타고 하와이로 가서 민족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에게 있어서 이민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승만 자신이 스스로를,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로 이민하여 온갖 생활상의 고통 속에서도 민족운동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헌신한 애국동포, 애국지사의 대표요, 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자신의 하와이에서의 교육운동, 민족운동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며, 그 결실이 곧 인하대학이었다.

이처럼 인하대학 설립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하와이 교포의 지원과 한국 국민의 성원이 응축되어 있었다. 하와이 이민과 민족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승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을 후원할 뿐 아니라 나아가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하와이 교포들을 기리는 일이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한국에 돌아와 “처음 먼저 생각한 것이 하와이 한인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개교기념식전에서 이대통령 각하의 치사」). 그래서 하와이 동지들이 애쓴 것을 대학교를 세워 영원히 이어가도록 기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하와이 이

민 50주년 기념사」에서 “이 기독교에 노력한 사람들의 명단과 연조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 인하대학의 영구한 기록이 되어 오십년전 하와이로 간 노동자의 애국 애족 사람들의 성심으로 된 것을 영구 표시”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의 공로’는 곧 ‘기독교에 노력한 사람들의 명단과 연조(捐助)한 기록’으로, 그리고 ‘인하대학의 영구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승만은 교육사업을 위하여 한인들로부터 연조를 받는 방법을 즐겨 활용하였다. 한인여자학원을 운영할 때에도 기숙사 부지와 건축비, 운영비 등을 하와이 교포들로부터 모금하여 마련하였다. 모금에 참여한 교포들을 찬성원(贊成員)으로 하고, 그들이 투표하여 재산을 소유 관리할 탁사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국민회의 재정을 교육사업에 지원할 것을 원하여 한인 여자학원 교실 건축에도 보조를 받았고, 한인기독교학원의 부지를 마련할 때에도 국민회 소유의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사용하였다. 이승만이 국민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교육사업에 재정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국민회의 재정도 모두 교포들의 기부금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

한인기독교학원의 설립과 교사 및 기숙사 건축, 그리고 경상비의 운영 등도 주로 하와이 교포들의 재정적 후원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심지어 식민지가 된 조국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인기독교학원에서는 새



하와이교포기념 체육관·하와이로부터의 성금을 기초로 건축되었다.

교사를 건축하기 위한 예산 84,815불을 미국인에게서 5만불, 하와이 교포로부터 3만 5천불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지만, 기부금 수입이 충분치 못하여 3만달라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학생고국방문단을 조직하여 국내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논란과 비난을 겪으면서도 강행하여, 1923년 5월 30일 민찬호, 김영우, 그리고 후에 인하공대의 이사가 된 김노되(손노되)의 인솔하에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으로 고국방문단을 조직하여, 7월 2일 국내에 도착한 뒤 9월 7일 돌아가기까지 경성 YMCA와 함께 각지를 순회하면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각지에서 열렬한 환

영을 받았고, 야구시합, 연극, 음악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모금운동의 결과 경비를 제외하고, 많지 않은 3,600불의 자금을 모았다.

당시 한인기독교학원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1923년 9월부터 1924년 8월까지 1년간 수입총액은 26,408원 42전이였다(「호향한인기독교학원 재정공고서」 제11호). 그 가운데 찬성금 1,702원 65전, 특연금(特捐金) 950원 75전, 건축연(建築捐) 9,896원 47전, 기부금 209원 등 모금에 의한 것이 12,758원 87전으로 재정 수입의 48.3%에 달하였다. 대부분 하와이 각 지방의 한인 교포 수천명이 1원, 2원씩 모은 것이었다. 다만 건축연 9,896원 47전은 하와이 각지에서 기부

받은 것이 2,306원 25전, 외국인이 기부한 것이 800원, 동창회석에서 수합한 것이 100원 10전이고, 하와이 모국방문단이 국내에서 모금한 것이 6,680원 22전이였다. 이승만이 교육사업을 주도하고 모금에도 앞장섰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와이 교포 수천명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민중들이었다.

이승만 자신도 하와이 농민들, 하와이의 남녀 노동자로부터 각출하여 교육기관 운영비와 민족운동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난한 농장에서 번 돈 어떤 때에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서 돈푼 모은” 것이라고도 하였다. 하와이에서의 모금에는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들, 도시로 나와 상업·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감리교의 재단 등에서 참여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이와 같이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의 운영은 이승만의 주도성과 함께, 동시에 국내외 동포들의 기부금을 기초로 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인기독교학원을 매각한 기금에는 하와이 민중의 민족의식이 스며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승만은 한인기독교학원에 중시한 사람들과 하와이 교포들의 후원을 인하대학의 영구한 기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하와이 농민·노동자들의 민족의식이 인하대학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내면적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3) 해방 후 경제상황과 교육정책의 성격

한국전쟁은 남한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였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인프라나 경인공단 등의 공업시설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경제재건을 위하여서는 대외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휴전에 반대하는 한국측을 설득하면서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1952년 5월 ‘한미간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 협정)’이 체결되고, 1953년 12월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백·우드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의하여 합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미국의 원조업무를 통제 감독하도록 되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원조업무를 통제와 감독을 행하고 그것은 나아가 한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다.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는 한국전쟁중에는 유엔의 이름 하에 구호사업에 집중되었다. 구호사업은 질병과 기아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의료·식량지원이 중심이었다. 전쟁 이후에는 전재복구(戰災復舊)에 집중되었는데, 전재복구를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당장의 인플레이 수습이나 재정적자의 보전 등 경제안정화에 두어졌다. 그래서 원조물자는 소비재 및 원자재의 도입을 주로 하였다. 미국의 원조물자는 시설재는 30%에 못 미치고 원자재가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원조의 기본 성격은 구호적인 것이었다. 경제부흥을 위한 기반조성

보다는 시급한 안정과 수습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원조의 방침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비판적이었다. 원조자금을 한국정부가 요청한 비료공장, 시멘트 공장, 발전소 등 경제토대의 구축에 쓰지 않고, 관리비, 인건비, 여비로 탕진하고, 한국난민의 임시 구급물자의 수입에 소모된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특히 미국과 UN의 원조자금이 대부분 구호를 위한 소비재에 투자되면서도 그것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데 대하여 가장 크게 반발하였다. 원조자금이 한국의 생산시설을 가동하도록 한국을 돕는 대신에 대부분의 원조자금이 한국국민의 구호용으로 반입되던 일본제 소비물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할 생산시설들이, 한국의 원조자금으로, 일본경제의 이익을 위해 일본에서 재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친일적인 미국관리들이 한국경제의 부흥보다는 미국의 세계 및 아시아 전략에 입각하여 일본의 경제부흥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는 원조는 할 수 있는대로 일본인에게 주기를 노력해온 까달그로 미국인들이 원조재정을 자기들끼리 자유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비료, 시멘트, 석탄 등의 생산과 전기발전시설 그리고 어업발전과 가뜰 사업은 하나도 착수하지 안코 또 착수도 못하게 하였으며 오직 미국인들이 외국산 물건을 사다가 우리들이 입고 쓰는 물건을 일

본물건화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이승만의 1954년 9월 20일 담화 「자발적 결심과 노력으로 파괴된 조국을 재건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장 생존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참고 극복하면서 기계생산을 통하여 생산의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제의 기본방향을 자립자족 경제의 수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생산기반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원조자금은 소비물자의 수입에 쓰지 말고, 일본의 낡은 기계가 아닌 미국의 신식 기계를 사들여 레이온, 비료, 시멘트, 제지 등의 공업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승만 대통령의 1951년 9월 18일 담화 「원조자금을 기계구입에 쓰자」, 1952년 11월 1일 담화 「외국물자는 쓰지 말고 자급자족하도록 경제가들이 협력하여 생산에 노력하자」, 1953년 9월 3일 담화 「2억불 원조에 대하여」).

이 대통령은 자급자족의 경제부흥을 도모하고, 생산기반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조자금을 당장의 생존을 위한 소비물자의 수입보다는 기계류의 수입을 통한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생산설비를 운용할 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당시 전시 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승만은 분개하였고, 한국인 기술자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1주일 이내에 기술자의 신고를 촉구하기도 하였던 것

은(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10월 27일 담화 「기술자는 1주일 내에 보고하라」)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미 1951년 6월부터 문교부에서는 중학교 이상 학교에 1인 1기(一人一技) 교육을 강력히 추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국 국가경제의 발전방향을 과학기술의 개발에 의거한 공업화에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생산기술의 발전을 위한 자본재의 투자와 과학기술자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각종 기술학교와 공과대학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

과학기술교육을 발전시켜 국가재건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건국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안호상(1948.8 - 1950.5) 문교부장관은 과학발전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백낙준(1950.5 - 1952.10) 장관은 1인 1기 교육을 추진하여 전란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김범린(1952.10 - 1954.2) 장관은 생산교육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하였고, 이선근(1954.4 - 1956.6) 장관도 과학기술을 진흥하여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최규남(1956.6 - 1957.2) 장관도 생산교육을 충실히하여 자주적 경제능력을 가지게하고자 하였다. 전란으로 파괴된 국민경제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장려한 것이 생산교육이었다. 과학기술교육의 실천이 생산교육이었다. 최재유(1957.2 - 1960.4) 장관도 과학기술교육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렇게 보면 해방후 문교부에서는

과학기술교육, 생산교육을 일관되게 적극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국가가 대학설립의 재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 사재를 털어 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고 한국전쟁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학설립은 지속되었다. 특기할 것은 1952-53년 지방국공립대학이 1도에 1교씩 대거 설립되어 지방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과 개편도 지속되어 바야흐로 대학설립의 봄이 조성되었다.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인하공과대학과 한국의국어대학의 설립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를 원하였는데, 당시 대학설립을 준비중이던 한국육영회에 정부의 보조금을 주어 한국의국어대학을 설립토록 하였고, 인하공과대학은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의 설립이 구상되던 중, 하와이 교포의 이민 50주년 기념사업과 결합함으로써 설립되게 된 것이다. 한국의국어대학은 1954년 4월 20일 개교하였고, 인하공과대학은 4월 24일 개교하였다. 두 대학은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과 연결되고 국고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설립배경을 지니고 있다. 인하공대의 설립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계의 재건 가운데서 인하공과대학의 출현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국가 장래를 위한 대계의 하나로서 미리부터 힘써 계획해오던 공과대

학의 신설 및 증설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하와이 교포들의 절대한 원조로서 설립을 보게 되었다는 것... 무릇 조국부흥의 기반은 공업기술 재건에 있나니 이 방면에 가장 뛰어나진 우리나라 현실로는 공과대학의 증설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업기술자의 양성은 민족의 지상명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공보처장 갈홍기의 「창간에 출혈」 『인하』 창간호).

공과대학의 증설을 통하여 새로운 공업기술자의 양성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등장해 있던 차에 하와이 교포의 원조를 계기로 인하공과대학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 발기회에 서도 공과계 학과의 정원이 적어, “공과계 대학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다. 더욱이 생산이 결핍된 한국에서는 생산을 병행하는 교육 즉 생산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본 대학은 이러한 목적에 중점을 두어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생산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과대학의 필요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인하공대가 설립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학을 만들 적에는 여기서 무슨 문학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것 다 집어 내버리고 기계 공장배우는 학교를 만들자는 계획을 작성”한 것이라고 한 주장(「개교기념식전에서 이대통령 각하의 처사」) 가운데 과학기술, 공업기술, 생산기술이 절실한 당시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4) 인하공대가 인천에 설립된 이유

인하대학을 인천에 두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승만을 비롯한 하와이 동포의 민족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와이로 최초의 이민선이 출발한 인천항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전후 복구와 공업입국을 위하여 공과대학을 설립함에 있어서 최대의 공업단지인 경인공업단지가 인천의 배후지로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이민선 출발지로서의 인천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인하대학은 인천과 하와이 사이에 한국이민선이 처음으로 인천에서 하와이에 간 50년 기념을 목적하고 대학을 인천항구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이나, 인하학원 설립 취지서에 보이는 “그 옛날 최후의 발사대를 남긴 인천에 공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는 “50년 전에 애국지사들이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떠났던 인천”이라는 표현에서, 인천이 지니는 의미가 드러난다.

인천의 의미에 대하여는 인하대학 개교식장에서 이선근 문교부장관이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그 상징성을 해설한 것이 가장 근사하다.

말로만 듣고 동경하던 2세 동포들이 그리운 조국 땅 특히 선인들이 마지막 뜻을 올리던 제물포 언덕 위에 영구한 기념비를 세워 놓으려는 생각은 실로 귀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보다도 먼저 허무러진 성전을 수축하던 것이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 거친 파도를 건너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순례자들이 그곳을 모국에서 최후의 기항지의 이름을 따부치고 다시 그곳에 미주 최고의 하버드 대학을 건설했던 것이니 그 정신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교도 순례자들이 고향의 지명 플리머스를 신대륙의 새로운 정착지의 지명으로 사용하였다고 이선근 장관이 지적하듯이, 미국 이민자들은 자기 고향의 지명을 도시와 거리 이름으로 즐겨 붙이고 있는데, 미국의 하와이에서 활동한 이승만과 교포들도 그런 관행을 적용하여 인하대학을 작명하고 인천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항을 통해서 하와이로 이민갔다고 하여 그 기념물을 인천에 남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민선이 최후로 떠난 고국의 땅이 인천항구이기 때문에 인천에 기념물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이러한 상징적, 기념적 이유 외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인천에 인하공대를 설립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인천이 수도권권의 항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이외에 이곳이 경인공단이 설치된 남한 제일의 공업지대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하공대에서 배출될 인재들이 이들 공단을 지도해나갈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직업보도학교, 중앙종합직업학교를 부설하여 공단지역에 배치할 단기 기술자를 양성하게 되기도 한 것이다.

경인공업단지는 일제시기인 1934년 조

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의 창설 확장과 병행하여 경성과 인천의 중간지역에 광대한 면적의 공업용지가 조성되면서 남한 내의 대표적 공업단지가 되었다. 공업용지로서 998.4만평이 마련되었는데 1940년 현재 구로지구 173.6만평, 시흥지구 19만평, 소사지구 94.7만평, 부평지구 272.2만평, 서곶지구 239.2만평, 계양지구 94.1만평, 양천지구 105.6만평이었다. 한국전쟁으로 경인공업단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공업단지로서의 기본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 지역을 복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하공대는 이를 배후지로 삼아 설립된 것이다.

2. 설립과정

(1) 설립의 결의

인하대학의 설립은 1952년 12월 중순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법린 문교부장관에게 가칭 인하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하와이 이민과 독립운동 50주년을 기념하고, 해방 후의 경제정책 및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공과대학의 설립으로 귀결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953년 2월 8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 무위원과 각계대표가 참가하여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 발기회가 결성되었다. 발기취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 발기취지서〉



1903년의 인천항

회고컨대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과정의 제1단계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축수는 중일전쟁을 거쳐서 더욱 악랄화, 노골화하였다. 그 결과는 불가피적으로 제정 러시아의 축수와 충돌을 재래(齎來)하게 되었다. 조국의 운명을 근심하는 지사들은 조국의 자주를 전취(戰取)할 근거지를 구하고자 국외에 망명하였고 로일의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는 소시민, 농민들은 자활의 길을 구하고자 국외에 이산되었다. 로일전쟁 발발 1년 전인 서기 1903년 1월 3일에 하와이를 향하여 정든 고토를 뒤에 두고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인천항을 떠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미국의 모 개발회사의 초빙에 의하여 원대한 희망을 댄뱃 품고 용약 이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 뒤를 이어서 뜻있는 동포들이 하와이를 찾아가기가 많았다. 월조(越鳥)가 남쪽 가지에 집짓고 호조(胡鳥)가 북풍에 울음우는 회향(懷鄉)의 정을 이기지 못하면서 오직 한가지 염원인 조국광복을 위

하여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공헌한 바 실로 컸던 것이다.

어느덧 춘풍추우(春風秋雨) 50년을 겪어왔다. 하와이 동포들은 고국을 떠났던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그 옛날 최후의 발자취를 남긴 인천에 공과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조국광복을 위하여 사력을 다한 하와이 동포들이 이제는 국내의 공업교육진흥에까지 이바지하겠다는 그 성스러운 결의에 대하여 우리 3천만 민족은 감격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이 공과대학에는 위선(爲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광산공학과로써 구성되게 되었다. 금후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긴요한 학과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대학은 국립이나 공립보다도 하와이 동포와 국내 동포의 합작으로 성립된 재단으로써 설립하는 것이 더 의의 깊은 바가 있는 것이다.

이 대학은 그 이름도 기념적인 인하공과대학이라



경인공단의 모습

하대학 설립의 배경, 기계공학과·조선공학과·광산공과대학의 설립이 일찍이 구상되어진 것, 국립이나 공립보다는 하와이 동포와 국내 동포의 합작을 명분으로 한 사립으로 하는 것, 학교 이름을 인천과 하와이의 첫음을 따서 '인하'로 짓는다는 것, 민족의 정신적 통일의 계기가 되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국가적 대의로까지 그 의의가 진전되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발기 초창기에 인하공과대학의 밑그림이 거의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기회의 활동은 1953년 3월 5일 인하공과대학설립기성위원회의 발족으로 진전되었다. 그 규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 규약〉

제1조 본회는 인하공과대학 설립취지에 의거하여 그 설립을 성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의 사업을 행한다.

1. 학교경영재단의 조성
2. 학교지지의 선정
3. 학교시설 설비의 계획 및 실시와 이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본회는 인하공과대학설립기성위원회라 칭한다.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문교부 내에 둔다.

제5조 본회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이를 조직한다.

문교부장관, 정부 각부 차관 및 각 처장, 외자 구매처장, 외자관리청장, 관재청장, 전매청장, 서울대학교총장, 연희대학교총장, 국회문교분과위원회위원장, 중앙교육위원회의장,

해사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하와이교포대표, 인천출신 국회의원, 한국은행 총재, 대한금융조합연합회회장, 대한기술총협회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대한무역협회회장, 방직협회이사장, 대한해운공사사장, 대한석탄공사총재, 대한조선공사사장, 대한중석회사이사장, 대한광업회사이사장,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이사장, 조선문수주식회사이사장, 언커크대표, 운크라대표, 문교부장관의 직에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그 차관의 직에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본회의 고문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국무원 각 처장을 이에 추대한다.

제7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가하여 본회 업무수행에 협조한다.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 위원중 약간명을 상무위원으로 한다. 상무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으로 상무를 분담한다.

제9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단 본 규약을 변경할 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의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결산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무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위촉으로 서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위원과 간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13조 본회의 경비는 특기자의 회사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써 충당한다.

부칙

제14조 본회는 학교경영재단법인 및 학교설립인가가 완료되었을 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써 그 재산과 사무를 인계하고 해산한다.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는 고문에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과 국무원의 처장 4인을 추대하고, 위원장에 문교부장관, 부위원장에 문교부차관, 그리고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하공과대학이 국가적 정책의 배려 하에 설립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정부 각 부처의 대표, 교육관련 위원, 인천관련 위원, 하와이 대표, 직능단체 대표, 특히 설립기금을 조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부부처 대표 및 유엔원조기구 대표, 정부산하 경제기관 대표, 공과계통 대표 등이 망라되어 있다. 간사에는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기술교육국장, 대학교육과장, 실업교육과장, 기술교육과장 및 경리과장 등이 선임되었고, 전임간사 박홍근(초대 부학장)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기관 설립의 허가기관인 문교부가 직접 설립에 나선 것이다.

설립기성위원회의 주임무는 대학을 경영할 재단의 설립, 학교부지의 선정과 학교시설의 구비에 있었다.

(2) 학교설립 기본금 15만불

인하대학의 설립은 처음에는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한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명분을 끌어다 붙인 측면이 강하다. 그 내막을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이승만이 경영했던 하와이의 한인기독교학원은 이미 1947년 해체하여 그 매각대금 15만불을 가지고 있었다. 하와이에서는 이를 50주년 기념사업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겪은 뒤 공과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분과 공과대학의 필요성이라는 실재를 결합하여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15만불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용이 길지만 참고를 위하여 전문을 소개해둔다.

〈하와이이민 50주년 기념사(1953년 11월 15일)〉
5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이저 버리고 울며 방황할 적에 하와이에서 한인 이민의 길이 열려서 인천항구에서 처음으로 한인의 이민배가 떠나 호노룰루 항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중에 로동생활로 간 사람도 만히 잇섯지만 나라를 이러바린 분통을 가지고 미국 자유지에 가서 광복운동을 추진식히고 심흔 정치사상을 가지고 간분들도 만히 끼어드러 갔던 것이다.

그 이후로 팔천여명 이민들이 하와이 군도에 흐터져서 농사를 잘한 사람도 잇고 잘못된 사람도 잇섯지만 농장주들의 후이와 각 거류민들의 동정과 애호로 힘을 드러 버리 먹어 가면서 애국정신을 잇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주의를 계속 발전 식히기 위해

서 정치사회와 종교단체와 교육사업에 무진히 노력해서 어떤 동포 남려는 버러먹고 남은 것은 다 제공하야 근 3,40년간 해의 한인들이 독립운동으로 단결하야 계속 진행한 것은 해의 모든 우리 한인 거류지방에 비해서 제일 유공한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중에 우리가 제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온 것은 대부분이 근로생활한 남녀 동포들의 힘으로 되여온 것임을 우리는 글로나 말로나 기회 잇는대로 표명해 나온 것이며 내가 1913년에 본국에서 간신히 빠져 나와서 여러 가지 경륜을 해왔으나 다른 사업에 착수하고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길이 업는고로 마음의 고통을 바드면서 한탄하고 잇을 때 하와이 동포들이 나를 청해서 우리 남녀 농민들을 의탁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잇는 것은 다 정치상 외교상 교육상으로 계속하여 나갈 적에 재정 원조는 보통 가난한 농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몇가지 실패한 것도 잇으나 또 몇가지 성취한 것도 업지 안엇으므로 우리가 자유의 등불을 꺼트리지 안코 또 발서 세상 떠나서 볼 수 업는 사람도 여럿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바든 은공은 이출수가 업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에 세계 형편에 달려서 각국인들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독립운동은 몽상적 언론으로 인정하며 우리를 배일하는 사람으로만 인정하야 왔섯으나 그중에도 하와이의 모든 지도자들 되는 미국친구들은 우리를 보호 후대해 주어서 내가 잇지 아니하는 조흔 친구들이 여럿 잇섯는데 혹은 별세하고 혹은 생존한 이도 여럿이다. 이분들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 업든 사람으로 후한 대우를 바더 온 것을 곱히 감사하는 바이다. 금년이 발서 50주년이 되여 하와이 동포들이 오십주년 기념으로 크게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로는 친히 참석해서 죽기 전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져 하나 형편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두어줄 글로 나의 감사과 감회를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의 경영하

는 바를 간단히 설명코져 하나니 이는 인하대학을 세우서 오십년 기념에 영구한 기념물을 맨들려고 하는데 인천과 하와이 새에 미국과 연락하는 우의 상통의 길을 만들기 위하야 이름을 인하라고 하고 인천시장의 주선으로 인천항구에 조흔 대학기지를 내노코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위선 정부에서 백만불을 먼저 지불했고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만 몇푼식이라도 제공하기로 하고 건물을 위선 한두개 착수하기로 준비가 되였는데 이 학교는 미국의 MIT와 갖지 공업대학을 만들어 우리나라 공업과 기술 방면이 여기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나 성심으로 도와서 우리나라 제일가는 유력한 대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기본금은 하와이서 나오기로 작정이니 그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와이 거류동포들이 사십년간 노력해서 번 돈을 푼푼이 주어 모아서 기독교교를 세워 한인교육에 힘쓰던 그 노력으로 토지와 건물을 작만했던 것을 팔아서 모인 돈이 십오만불인데 적은 액수나마 이것으로 기본삼아서 이것이 대학경영의 시작으로 된 것이요 또 년래로 이 기독교교에 노력한 사람들의 명단과 연조한 기록이 만히 잇는 것으로 이 인하대학의 영구한 기록이 되여 오십년전 하와이로 간 로동자의 애국애족 사람들의 성심으로 된 것을 영구 표시하기로 된 것이니 이만한 성적을 이룬 것은 하와이 동포 뿐만 아니라 국내 동포가 다 축하하는 바이다.

단기 4286년 11월 15일 대통령 리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먼저 하와이 동포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신을 지지해준 동지들에 대한 감상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부지를 선정하고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건물을 착공하게 되어 우수한 공업대학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학설립의 기본금



김법린 문교부장관

이 하와이 동포들의 피땀이 모인 한인기독교학원의 매각대금 15만불이라는 점, 그래서 특별히 기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하와이 동포의 애국애족의 성심을 영구히 기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와이 교포들도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에 화답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와이의 한인기독교학원이 발표한 「하와이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축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축사 - 1903년 최초의 한국인 이민에 대하여〉

한인기독교학원은 한국인 이민 50주년 기념식전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본 학원은 한인여자성경학원을 계승하여 이승만 박사가 설립한 것으로 하와이 한인의 생업과 교육 그리고 시민 활동에 있어 중요한 활동을 하여온 기독교지도자를 육성하여 왔다.

본 학원의 졸업생과 재학생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학원의 졸

업생 중에는 조국에 가서 민주독립국가의 건설에 적극 참여한 사람도 많이 있다. 또한 하와이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본 학원이 1947년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됨에 따라 갈리하이 계곡에 있는 학원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인하공과대학 설립에 기본금으로 회사하게 되었다.

우리 한인기독학원은 종래 본 학원에 대해 정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인과 동포들의 고마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 이민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사회가 더욱 단결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다.

끝으로 요즘을 교포사회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여러 해 동안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교포들과 자녀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등 기타 여러 기구를 조직하여 중요한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여야 하겠다.

한인기독학원이 1947년 발전적으로 해체한 뒤 학원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인하공과대학 설립의 기본금으로 회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5만불이 인하공과대학의 기본금으로 활용되게 된 과정을 오중정 하와이 전 영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 총장님, 정 동창회장님, 또 조 한진그룹 부회장님, 우리 인하대학 하와이 탐방오신 교원 또는 생도 대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인하대학이 시작할 때 조금이나마 이승만 박사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오늘에 이렇게 자라나는 인하대학의 여러분들을 뵙고 여기 단상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이 인하대학 모체가 된

기독학원의 설립에,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90 노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Sarome Han, 이 양반은 기독학원의 생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학원이 매각된 금액이 그때 15만불, 제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이승만 박사의 지시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Seed Money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사의 지시로 오백만불이 모여져 인하대학이 시작되었고, 그때 그 양반의 말씀이 MIT of Korea, 그게 인하대학을 설립하는 그 분의 뜻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그 양반이 자신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관계의 서신도 받았고, 그 양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조양호 이사장께서도 많이 도와시고, 그래서 인하대학이 앞으로 MIT of Korea로 지금 진전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 이번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특히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인하대학 50주년 기념일 날이던지 기타 일에 우리 하와이와 인하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갖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인하대학교 뿌리찾기활동의 일환으로 1997년 7월 26일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에서 있었던 교민초청리셉션에서 행한 오중정 전 영사의 인사말이다. 이승만이 설립 운영하던 한인기독학원의 매각대금 15만불을 가지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통하여 한국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15만불의 자금이 인하대학의 기본금으로 결정된 것은 거의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었고, 인하대학의 설립도 마찬가지였다.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선언대회(2002. 9. 26)

(3) 기금모금과 예산계획

15만불은 공과대학을 설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또 그것이 현금으로 수중에 쥐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설립취지에 있어서나 설립자금의 측면에 있어서 모두 명분이었다.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 발기취지서에서 보듯이 “하와이 동포와 국내 동포의 합작으로 성립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명분에 하와이 교포 15만불이 있었다.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광범한 설립자금의 모집이 필요하였다. 국가적, 민족적 설립취지를 반영하듯이 1953년 4월 3일에는 정부에서 학교설립자금으로 100만불을 부담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였다. 먼저 정부에서 출연금을 내놓고 국내외에서 기금을 모집하려는 의도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4일 “인하대학의 설립에 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는 인하대학의 설립 및 자금모집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인하대학은 인천과 ‘하와이’ 사이에 한국이민선이 처음으로 인천에서 ‘하와이’에 간 50년 기념을 목적으로 대학을 인천항구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되어서 이 대학계획이 시작된 것은 50년 전에 한국 이민이 인천에서 ‘하와이’에 들어가서 미국대륙으로 연락되어 한국독립운동을 계속 진행하여 온 것을 기념하며 따라서 그 이민들의 자녀들이 ‘하와이’와 대륙 각처에 경제와 사회 다방면으로 유력

한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을 기념하며 이 앞으로 한국과 '하와이' 사이에 연결과 우의를 돈독히하여 그리로 달하여 미주까지 연결하는 '진검다리'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인천 '하와이'의 물질과 성심을 합하여 인하대학을 만들고 대학의 주제는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마치 미국의 MIT와 같은 미국에 제일유명한 공과대학을 의미한 것이니 우리사람들이 자래(自來)로 문과나 철학 등으로 숭고(崇高)하든 의도를 많이 변동해서 이 물질시대에 기계학과 공업발전의 물질세력을 다른 나라와 경쟁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이니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원을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자급자족할 것을 만들 것이며 여유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신식으로 제조한 모든 이용구성(利用構成)에 재산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자는 장래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우리사람들이 고유한 발명적 기능을 크게 발전시켜서 남의 사람이 내는 것은 우리가 다 낼 수 있으며 남에 없는 것은 우리가 발명하여 내서 세계의 공동공리(共同共利)로 진전해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모든 기술학과 기계학에 주의하는 청년들은 이 대학설치에 크게 환영할 것이요 이런 방면을 주의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이 방면으로 주의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이 정신과 이 목적을 발전해야만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소비할 물질은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니 이것을 각오하지 못하고 완고수고(頑固守古)하든 습관으로 우리 조상 때에 지내든 그것이 다 풍족하니깐 구습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이것은 다 버리고 진흥집에 풀로 이어달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다 없애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은 20세기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남의 화려한 것을 보면 그대로 할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내버려야 되겠고 가옥건물도 기술가들이 모범적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적당한 집

을 만들 것인데 아무리 어렵고 급할지라도 얇은 널 판지에 못을 주어서 성냥갑같이 짓는 집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되며 아직까지 경험한 것으로는 진흥으로 불력을 단단히 만들어서 그 위에 벽돌을 세우고 벽의 안밖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무진장하게 나는 회를 발라서 덮어 놓으면 이것은 해외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있으며 신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가옥생활에 편의하도록 할 것이니 이것도 다 그 공업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개량진전할 것이지만 이 대학교를 세우는데 대하여서는 목전에 급하기도 하고 장원(長遠)한 계획에도 제일 긴요함으로 내년 4월 이내에 개학할 계획으로 시작하는데 인천시장이 협의하여 상당한 기지를 내놓았으며 인천시에서 표석(標石)을 박어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위선 백만불을 예산에서 지번하였는데 제일근본으로 토대삼는 것은 '하와이'에서 15만불을 모아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시작할 것인데 이 돈은 '하와이' 농민들이 한인청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서 지낸지 30년가량 된 것인데 우리 청년들은 상당한 미국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 기지를 팔아서 거기서 난 재정이 이것으로 시작을 마련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 장차 외국인구들도 도울 생각들이 있는 것을 아는 터인바 우리가 잘한 연후에 외국원조를 받을 수도 있겠으니 금액 15만불은 정하여 놓고 시작할 것인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연조(捐助)가 310만 1,400환이 되었으며 특별히 교육가들의 자원으로 위원회를 정하여 공포선전하여 동포들이 각각 자원으로 상당한 연조를 모아서 한모통이를 돕고자 하는 것임에 누구나 남의 권면에 끌리거나 정부세력 관계로 하는 것은 없게 하고 민중이 다 이 의도를 찬성하는 마음으로 얼마큼 기부하여 우리의 성심을 표할 것인데 적은 액이라도 많은 사람이 연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 위원들이 따로 공포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자초경영(自初經營)하야 국

무회의 결의와 인천시장의 찬성으로 이와 같이 공포하니 모든 유의(有意)한 동포들은 여기에 성심을 기우려서 힘에 적당한대로 다소 연조하여 속히 성공케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런 큰 사업을 충분히 성공하려면 우리는 지금 전쟁의 환경에 있으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원만한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친구의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힘을 다 하여 성의를 다 하는 것이 친구의 도움을 얻게 되는 원칙임으로 우리가 오늘 어려운 생각만을 하느니보다 앞에 진전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일임으로 인하대학의 대성공을 위하여 우리 모든 남녀 동포가 정성을 기우리기 바란다.

이 담화에는 인하대학이 하와이 이민과 민족운동을 기념한다는 것, 미국 MIT와 같은 우수한 공과대학을 지향한다는 것, 1954년 4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것, 인천시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 정부에서 100만불을 원조한다는 것, 제일 근본으로 토대를 삼는 것은 하와이에서 청년들을 교육하던 한인기독교학원의 매각대금 15만불이라는 것, 외국에서도 원조를 받을 계획이라는 것 등이 소개되어 있고, 담화의 핵심은 외국원조를 받기 전에 모든 남녀 동포가 소액이라도 원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여 연조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하와이에서 한인기독교학원을 운영할 때 수많은 교포들이 연조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 연조한 하와이 교포들의 명단과 기록을 계승하는 한편 국내의 민중들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공무원

들로부터도 조직적으로 각출하였기 때문에 하와이에서의 자발적이고 민족운동적인 상황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인하대학 운영을 위해 설립할 재단법인 인하학원의 재원은 총 515만 500불(3억 903만원)로 계획되었다.

하와이교포 기부금 : 900만원(15만불)
국내민간 기부금 : 6,000만원(100만불)
정부보조금 : 6,000만원(100만불)
UNKRA · UNCAC · 한미협회 등의 원조금 : 18,000만원(300만불)
기타 잡수입 : 3만원(500불)
합계 : 30,903만원(515만500불)

대학설립을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교사건축비 : 4,200만원(70만불)
도서구입비 : 1,800만원(30만불)
실험실습시설비 : 4,500만원(75만불)
일반비품구입비 : 2,400만원(40만불)
조선창건조비 : 5,400만원(90만불)
재단수익재산조성금 : 6,000만원(100만불)
도서관건축비 : 1,500만원(25만불)
기성회사무비 : 168만원(2만8천불)
대강당건축비 : 1,500만원(25만불)
학교운영비 : 600만원(10만불)
학생관건축비 : 300만원(5만불)
교수양성비 : 72만원(1만2천불)
부공장건축비 : 1,800만원(30만불)
예비비 : 63만원(10만5천불)
사택 기타 건축비 : 600만원(10만불)
합계 : 309,030,000환(515만5천불)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에서 기금 모금과 건축추진, 대학설립을 위하여 세운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953년〉
- 6월 3일 : 규약, 예산서, 기금조성분담표, 계획일정표 등이 위원회에서 통과됨
- 7월 : 건축청부계약, 기지·시설계획개요의 결정
- 6월-8월 : 기금조성촉진기간
- 8월 1일 : 본관 및 종합교실 기공식
- 9월 : 중앙교육위원회에 대학설립 제의
- 9월 : 기금채납상황 중간보고
- 11월 : 건축상황 중간보고
- 12월 : 본관 및 종합교실 상량식
- 12월 : 재단법인 설립허가, 학교설립 인가 신청
- 〈1954년〉
- 3월 1일 : 본관 준공식
- 3월 31일 : 기부금채납완료
- 4월 30일 : 건축, 재정 사무 인계, 해산

이승만 대통령이 자발적인 기금조성을 촉구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기금조성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설립기성위원회에서는 설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위원들을 중심으로 6개반을 편성하여 역할분담을 하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별	반원	기금조성대상	배당액
국내	제1반	내무부차관, 문교부차관(학계대표, 서울대총장, 연세대총장, 중앙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문교분과위원장), 국방부차관, 법무부차관, 사회부차관, 보건부차관, 체신부차관, 총무처차관, 법제처차관	민간, 지방, 사회단체, 교육기관, 문화단체(경기도, 인천시 제외), 각 소속 관공서 봉급 5%(군경 제외, 총무처는 대통령직속기관, 문교분과위원회는 국회, 법무부는 법원포함하여 담당)	1,200만원 (2/10)
	제2반	재무부차관(한국은행총재, 대한금련이사장), 기획처차장, 전매청장, 관재청장	금융계, 전매업자, 양조계(인천시 제외), 각 소속 관공서 봉급 5%	900만원 (1.5/10)
	제3반	상공부차관(상공회의소회장, 무역협회회장, 석탄공사총재, 대한중석광업회사이사장, 광업진흥주식회사이사장, 대한기술총협회이사장, 대한광업회사이사장, 방직협회이사장, 외자구매처장, 외자관리청장	商·工·水産·鑛·電·貿易業界(인천시 제외), 각 소속 관공서 봉급 5%	2,400만원 (4/10)
	제4반	농림부차관, 교통부차관(해운공사사장, 조선공사사장, 해사위원회위원장, 조선운수주식회사이사장), 공보처차장	農·林·畜·蠶·水利業界, 陸·水·海運界, 출판·인쇄업계(인천시 제외), 각 소속 관공서 봉급 5%	600만원 (1/10)
	제5반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인천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및 인천시 관민, 업계, 단체	900만원 (1.5/100)
계				6,000만원
국외	제6반	외무부차관, 문교부차관, 재무부차관	UNCAC, UNKPA, 한미협회, 외국기관, 외국인, 하와이교포(15만불)	315만불

국내에서는 차관급으로 5개반을 편성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실업계 민간단체로부터 6천만환을 모금하고, 해외에서는 하와이 교포의 15만불을 포함하여 315만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봉급에서 5%씩 각출하는 등 모금활동의 강제성도 없지 않았다.

이미 개교한 뒤인 1954년 6월 20일 현재 기금수납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와이 교포 성금	9,000,000환
정부보조금	60,000,000환
민간기부금	27,743,240환
합계	96,743,240환

그런데 하와이 교포 성금 15만불은 설립 당시 계속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여 회계상으로는 확정채권으로 잡혀 있었을 뿐 실제로 수령된 것은 아니었다. 설립당시의 확인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와이 교포 각출금 적립확인증〉
하와이 교포들이 인하공과대학 설립기본금으로

대한중석광업공사	20,000,000환	朴興植	2,000,000환
대한금융단	2,000,000환	대한수리조합연합회	720,000환
金成坤	600,000환	李漢垣·金龍成	500,000환
대한항공	400,000환	동양방직회사	200,000환
대한중앙양곡시장회사	140,000환	대한광업진흥회사	100,000환
安孔淑眞 여사	18,000환	주영사 부인 외 2명	15,400환
俞鎭榮	10,000환	내무부 소관	272,207환
교통부 소관	213,178환	국방부 소관	157,422환
문교부 소관	119,180환	상공부 소관	100,542환
재무부 소관	86,695환	법무부 소관	42,009환
체신부 소관	30,081환	농림부 소관	11,368환
공보처 소관	6,068환	외무부 소관	1,090환
합계	27,743,249환		

미화 15만불을 각출적립하고 있음으로 차를 확인 후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개시하였기 자이 확인함
단기 4287년 2월 3일
인하공과대학설립기성위원회 위원장 김법린

인하대는 하와이 교포의 15만불을 기본금으로 하여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이 기본금은 이후 학교측과 이사회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계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하였다. 그 돈은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의 이사회로부터 하와이 오중정 영사에게 인계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주영한에게 인계된 뒤 오랫동안 본교로 인계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뒤, 그의 지시로 주영한으로부터 이승만 후원단체인 하와이 동지회 인사인 최백렬에게 넘겨졌다가, 1962년 11월 17일 이자까지 합하여 179,353불이 인하대측에 인계되었다.

민간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교시 교내 주변의전경

정부출연 공사, 연합회, 민간기업, 박홍식, 김성곤 등 개인 그리고 정부부서의 공무원이 망라되어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다.

외국원조기관으로부터의 원조금은 거의 부진하였고, 국내 민간기부금도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여 재단설립 당시의 자산 총액은 2억 5천만환에 그쳤다. 국내 민간 기부금은 기업체, 정부산하 경제단체, 독지가 등이 2,734만여 환을 냈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봉급에서 5%씩 각출한 것이 103만여 환이었다.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것은 대단히 큰 성과였다. 1954년 2월 8일 문교부의 답화 「인하공과대학 설립절차를 마치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동안 본 대학의 재단 확립을 위하여서는 하와이 동포들의 눈물겨운 기부금 15만불과 정부보조금 100만불 및 인천시 기증 교지(校地) 12만여 평을 필두로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무원의 각출금, 대한중석주식회사·화신산업주식회사·대한금융단 등 각 기관,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의 기부금 등

총액 2,700만환이 넘는 거액이 단시일내에 수집되어 이제 2억 5천만환의 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을 우리 교육사 상에 일즉이 그 유례를 볼 수 없는盛事(盛事)로서 우리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치하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4·19혁명 이후 동창회에서는 “인하공과대학은 전국 재야 유지의 기부금과 전국 봉급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국민학교 아동들의 성금으로서 창립 발족하였음은 만천하가 공지(公知)의 사실”이라고 하여, 전국민이 성금을 모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하대학의 설립은 하와이 교포의 성금, 국민의 성금, 산업체와 정부산하기관의 기부금, 그리고 정부와 인천시의 출연에 의하여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문교부의 표현처럼 ‘거족적’이라고 할만한 의의를 지닌다.

(4) 부지확보과정과 건축

인하대학의 부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하에 인천시 용현동과 학익동에 마련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표양문 인천시장 등을 대동하고 학교 부지에 있는 산 위에 올라 학교부지의 윤곽을 넓게 지시하여 멀리 학익동 형무소 부근까지 이르렀지만, 실제로는 125,173평에 그쳤다. 180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신설 공과대학으로서는 그렇게 넓은 학교부지가 필요없었을 것이다. 인천시 소유였던 이 땅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



초기 공사공사 광경

쳐 1954년 2월 1일 인천시로부터 기증을 받았다.

1954년 2월 1일 인천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인하대학 부지를 설립기성위원회에 기부하였다. 그런데 인천시는 기부의 조건으로 4개 조항의 단서를 달았다.

- 첫째, 그 토지는 어디까지나 학교부지로 사용할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로 사용치 않을 시는 즉시 반환할 것 (인천시 의회 의결조건)
- 둘째, 본 지구 내의 농민에 대하여는 학교부지로 사용시까지지는 현 경작자에 무상으로 경작토록 할 것 (인천시 요망사항)
- 셋째, 25,236평 이외의 작물보상금 및 건물보상금은 귀 위원회에서 지변할 것 (인천시 요망사항)
- 넷째, 4,582평의 작물보상금은 즉시 지변할 것 (인천시 의회 의결조건)

기부재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평수	125,173평 248필 17,128,550환
•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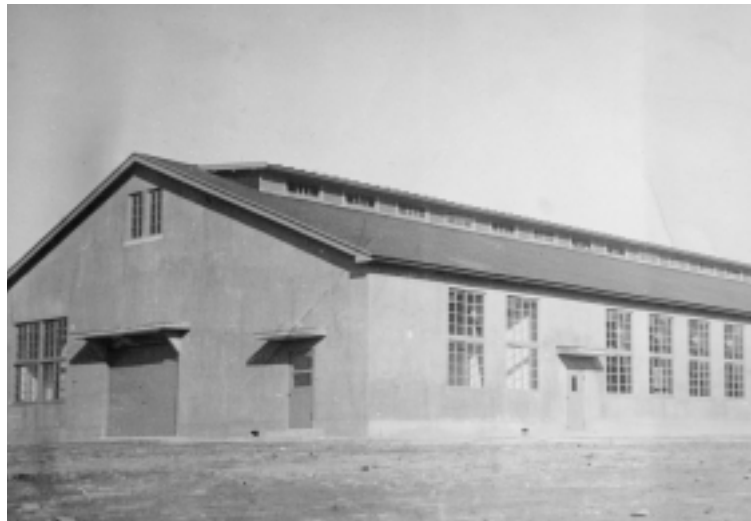
대	6,180평	28필	1,236,000환(평당 200 환)
임야	24,455평	21필	1,711,850환(평당 70환)
전	68,441평	151필	10,266,150환(평당 150환)
답	26,097평	48필	3,914,550환(평당 150 환)

땅의 위치는 용현동(龍峴洞)과 학익동(鶴翼洞)에 걸쳐 있었다. 용현동은 일제시기에는 ‘일지출정(日之出町)’이라 하여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부지는 1954년 2월 1일 기증되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부지가 확정되어 건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사유지이지만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아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주, 농업경영에 활용되던 논밭의 정리 등이 이루어졌다. 부지의 정지공사는 육군공병대가 담당하였다.

설립기성위원회에서는 본관 및 종합교사(3층, 1,600평), 기계공학관(2층, 500평) 및 부속공장(1층, 450평), 조선공학관(2층, 500평) 및 부속공장(1층, 450평), 광산공학관(2층, 500평) 및 부속공장(1층, 400평), 대강당(2층, 450평), 도서관(2층, 700평), 학생회관(2층, 130평), 학장사택(2층, 30평) 및 교수사택(319평)의 건축공사 계획을 세워 놓았다. 기공일은 1953년 8월 1일, 준공일은 1954년 10월 30일로 잡았다. 본관과 종합교사를 개교 전에 건축하고, 기계공학관, 조선공학관, 광산공학관 및 이들 부속공장은 교육을 위하여 최대한 앞당겨 개교 직후에는 완공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기본시설인 대강당, 도서관, 학생회관, 사택 등은 모두 1954년 10월말에는 완공되어 학교의 기본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설립



인하공과대학 기공식(1953. 8. 28)



초기교사A동

기성위원회 발기취지서에도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광산공학과가 가장 절실하다고 보고 이들 학과를 설치하려 하였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게 배

치되었다. 개교에 이르러서는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가 추가되었다.

설립기성위원회에서는 설계, 배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하공과대학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에는 김법린 문교부장관, 부위원장에는 허중수 문교부차관, 위원으로는 김윤기(건축학회회장), 이균상(서울대공대 건축과과장), 최경렬(대한기술연맹 부이사장), 이천승(국회건축전문위원), 박철재(문교부 기술교육국장), 그리고 간사에 박홍근이었다.

임시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1953년 8월 28일 착공한 기계공학관 및 부속공장, A동(煉瓦造 단층 100평) 및 B동(木造 단층 200평)은 11월 28일 완공하였다. 여기에는 교

실 6개, 교수실, 학장실, 부학장실, 교학처, 사무국, 창고 50평, 변소 12평, 수위실 5.25평이 배치되었다. 이 건물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인사 및 유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5) 재단법인 인하학원과 인하공과대학의 설립

인하공과대학 설립기성위원회는 인하공과대학 설립을 주도하고 인하공과대학을 운영할 재단으로서 인하학원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설립기성위원회 위원장 김법린 문교부장관이 재단법인 인하학원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김 위원장은 법인 설립자 10인을 지명하였다. 그리고 1954년 2월 3일 법인설립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인하공과대학 설립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문교부장관실에서 열린 법인설립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김법린(인하공과대학설립기성회위원장), 이기봉, 김유택(동위원회위원), 안동혁(동위원회 고문), 윤성순(고문), 최규남(고문), 손노덕(고문), 표양문(고문), 박만서였다. 여기에서 설립경과가 보고되고, 1954년 2월 1일 개최된 설립기성위원회에서 선정한 임원으로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전원 이의없이 결정되었다. 이사 9명은 이기봉, 김법린, 안동혁, 김유택, 윤성순, 최규남, 손노덕, 표양문, 인하공과대학장이고, 감사 2명은 박만서, 안봉익이었다. 그리고 이사장은 설립기성위원회 위원장이

자 법인설립회의의 의장인 김법린 문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이기봉씨가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이기봉의 명의로 신청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리고 인하학원기부행위(정관)의 심의, 임원임기의 결정, 재단법인의 자산 결정, 수지개산서(收支概算書) 심의 결정, 인하공과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 결정, 대학의 학칙 심의 결정, 학생모집요령 및 6개학과 180명 모집 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인하공과대학 학장후보자 선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하학원 및 인하공과대학 설립의 주요사항은 이 회의에서 모두 결정되었다.

법인설립회의의 결과에 따라 인하학원 설립자 대표 이기봉은 2월 3일 문교부에 재단법인 인하학원 및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것은 2월 5일자로 허가되었다. 허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高 제326호

재단법인 인하학원설립자 대표 이기봉

단기 4287년 2월 3일자로 신청한 재단법인 인하학원 설립의 건 허가함

단기 4287년 2월 5일 문교부장관 김법린

설립기성위원회 위원장 김법린 문교부장관은 2월 9일 재단법인 인하학원 이사장이 이기봉에게 재산 일체를 인계 인수함으로써 해산을 고하였다. 인하학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인하학원기부행위(정관)를 채택하고, 2월 27일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은 이 대통령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녔고, 문교부가 앞장서서 설립하였다. 1954년 2월 5일 인하대학의 설립이 인가되자 문교부에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국민에게 알리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하공과대학 설립절차를 마치고〉

본관은 작년 5월 이래 이 대통령 각하의 특별하신 분부와 거족적인 노력에 의하여 하와이 동포민족 운동 50주년기념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인하공과대학이 금월 5일자로 그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인하학원과 아울러 정식설립절차를 필하였음을 만천하 동포에게 공표할 수 있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고컨대 멀리 수륙만리(水陸萬里)를 격(隔)한 하와이 거주 동포들과 본국내 각계각층 인사들의 정성을 규합하여 이루어진 이 대학은 우리 교육사상(教育史上)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 동안 본 대학의 재단 확립을 위하여서는 하와이 동포들의 눈물겨운 기부금 15만불과 정부보조금 100만불 및 인천시 기증 교지 12만여 평을 필두로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무원의 각출금, 대한중석주식회사, 화신산업주식회사, 대한금융단 등 각 기관,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의 기부금 등 총액 2,700만환이 넘는 거액이 단시일내에 수집되어 이제 2억5천만환의 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을 우리 교육사상에 일족이 그 유례를 볼 수 없는盛事(盛事)로서 우리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치하여야 하지 않는 바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재단이사장 이기봉씨 이하 9인의 고명하신 임원들과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교수진으로써 본 대학에서는 단기 4287년 4월 1일을 기하여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광산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6학과에 180명의

신입생을 마치고 인천시 용현동 본 교사에서 기념적인 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300명의 부속공장이 낙성을 보았으며 해빙을 기하여 웅대한 본관 건물이 기공될 것이므로 교사 시설에 있어서도 염려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 대학설립에 제하여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 및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국내 각 언론기관 및 해내의 동포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본 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87년 2월 8일 문교부장관 김법린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와 거족적인 노력, 하와이 동포의 민족운동 50주년 기념, 2억 5천만환의 재단 구성, 1954년 4월 1일 개교 예정,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광산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6개 학과 180명 선발, 인천시 용현동 교사 신축 등의 사실을 들어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이 교육사상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는 의의를 선포하였다.

인하학원의 이사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 李起鵬(임기 4년)

이사 : 金法麟(4년), 安東赫(4년), 金裕澤(4년), 尹城淳(2년), 崔奎南(2년), 孫노되(2년), 表良文(2년)

감사 : 朴萬西(2년), 安鳳益(1년)

이승만 대통령이 인하학원 및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에 대한 구상, 그리고 지시와 추진을 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김법린 문교부장관이 설립기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립의 사무를 관장하였고, 그리

고 여기서 선임된 이기봉이 법인설립자 대표였다. 이기봉은 1896년 태어나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뒤 1923년 미국 아이오와주 네이버대학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1934년 귀국하였다. 해방 이후 이승만 박사의 보좌관, 민주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서울특별시장(1949년), 국방부 장관(1951년)을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그만큼 인하대학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말해 준다.

최초의 인하학원기부행위(仁荷學園寄附行爲 卽 定款)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목적 및 사업

제1조 본 법인은 대한(大韓)교육의 근본이념에 기(基)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하공과대학을 유지 경영함.

제2장 명칭 및 사무소

제3조 본 법인은 재단법인 인하학원이라 칭함.
제4조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인천시 용현동 253번지에 치(置)함.

제3장 자산 및 경리

제5조 본 법인의 자산은 차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2종으로 분(分)함.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에 편입할 재산으로 함.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함.
제6조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경(經)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수(受)하지 아니하면 매, 기부, 양도 또는 담보 등을 할 수 없음.
제7조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써 차에 충당함.

제8조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 분 이외는 차를 기본재산에 편입함.

제9조 수지에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경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수하여야 함. 단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기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써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치 아니함.

제10조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함.

제4장 임원

제11조 본 법인에 좌의 임원을 둬.
이사 9명
감사 2명

제12조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학장은 재임중 이사로 함.

제13조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

제14조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기 사업을 통리함.

제15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함.

제16조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를 감사함.

제17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제1차 이사 반수의 임기는 2년, 감사 반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함. 단 보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는 매년 1회 차를 개최하고 필요있

을 시에는 수시 차를 개최함. 이사회는 이사장이 차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 이사회는 현원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함.

제19조 이사장은 이사 3명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 명시하여 이사회에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차를 소집함.

제20조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특히 규정됨이 있는 것을 제한 이외는 좌와 여(如)함.

1. 예산, 결산 및 재산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장 및 교수의 진퇴에 관한 사항.
3.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법인에 관한 중요 사항. 학장인 이사는 전항 제2호의 그 자신에 관한 결의에 참석할 수 있음.

제21조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함. 가부 동수인 시(時)는 의장이 차를 결정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제22조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回議)로써 이사회 의 의결에 대(代)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3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시는 이사 전원의 의결로써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수함을 요함.

제24조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시의 잔여재산은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법인과 동일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함.

제7장 부칙

제25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 3분지 2이상의 동의로써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쫓지 않았으면 변경할 수 없음.

제26조 본 기부행위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차를 정함.

제27조 본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좌와 여함.

- 이사장 이기봉(임기 4년)
- 이사 김법린(임기 4년) 안동혁(임기 4년)
- 김유택(임기 4년) 윤성순(임기 2년)
- 최규남(임기 2년) 손노티(임기 2년)
- 표양문(임기 2년) 이원철(임기 2년)
- 감사 박만서(임기 2년) 안봉익(임기 1년)

인하학원 설립 당시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총액 250,000,000환
2. 기본재산 80,344,490환
 - (1) 정부보조 100만불 중의 30만불(한국은행 예치) 환산액 54,000,000환
 - (2) 인천시 기증토지 125,173평(교지) 평가액 17,128,550환
 - (3) 신축건물 2동 300평(부속공장용) 평가액 9,215,940환
3. 보통재산 169,655,510환
 - (1) 정부보조 100만불 중의 70만불(한국은행 예치)본관신축용)
 - (2) 확정채권 4,200만원(대한중석 기부 중 미납금과 하와이 교포적립금 미착분)
 - (3) 특별당좌예금, 비품 등

인하학원의 사무소는 1954년 2월 25일 임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 장안빌딩 315호에 두었다. 3월 15일 첫 이사회를 열어 초대 학장에 이원철(李源喆) 박사, 부학장에 설립기성위원회 간사일을 보았던 박홍근(朴弘根)을 선출하였다. 이원철 박사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외에 저명한 과학자로서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 줄곧 중앙관상대 대장직을 맡았고, '원철 스타' 를 발견하기도 하여 학계에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과학자였다.

3월 17일 제2차 이사회에서는 신입생의 모집과 입학금 정수에 관한 안건을 결정하였고, 3월 31일 제3차 이사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4월 8일의 제4차 이사회에서는 인하공과대학의 직제 및 급여규정과 교직원의 인사발령 등을 의결하였고, 개학 준비에 관한 안건과 교수사택의 건립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이사회 사무소를 인천의 본교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개교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4월 24일 제1회 인하공과대학 입학식이 거행 됨으로써 인하공과대학은 개교하였다.

3. 설립이념

(1) 설립의의와 정신

1954년 2월 3일 문교부에 제출된 인하공과대학 설립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서기 1903년 초에 조국의 운명을 근심하던 애국심에 불타는 지식들은 조국의 자주를 전취코저 정든 고토를 뒤에 두고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당시의 제물포인 인천항을 떠나 원대한 희망을 담백 품고 용약 하와이를 향하였던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뜻있는 동포들이 하와이를 찾아간 이가 많았다. 그들은 회향의 정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오직 한가지 염원인 조국광복을 위하여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공헌한 바 실로 컸던 것이다.

춘풍추우 50년을 지난 오늘 하와이 동포들은 고국을 떠났던 50주년기념사업으로써 미화 15만불을 기금으로 하여 그 옛날 최후의 발자취를 남긴 인천에 공과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사력을 다한 그들이 이제는 국내의 공업교육 진흥에까지 이바지 하겠다는 성스러운 결의를 한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한국제일의 공업지대로 발전되는 인천시에서는 시소유지 13만여 평을 학교 기지로 제공하고 정부보조금 미화 100만불, 국내 특지기부금 6천만원을 우선 제공하기로 되어 이제 공과대학의 창설의 거보를 내딛게 것이다. 즉 이 대학은 국립이나 공립보다도 하와이 동포의 국내 동포와의 합작으로 성립된 재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단법인인 그 이름을 인하학원이라 하였고 대학 이름을 인하공과대학이라고 한 것은 기념적으로 50년 전에 애국지사들이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떠났던 인천과 그 목적이었던 하와이의 첫음을 따서 지은 것이다.

서상(敍上)과 여(如)히 본 재단은 인천에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하고 유지경영함으로써 조국대함에 공헌하려 하는 바이다.

설립취지서는 설립기성위원회 발기취지서의 취지와도 유사하다. 설립취지서에서는 설립기성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설립을 위한 준비, 즉 하와이 동포의 15만불의 기본금, 인천시 소유지 13만평의 부지, 정부의 지원과 국내의 기부금 확보로 인하여 재단과 대학의 설립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인하대학의 역사적 의의도 잘 표현하고 있다.

인하대학의 설립은 단지 한 대학의 역사

가 시작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 설립취지서의 내용과 이제까지 설명한 설립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인하대학 설립의 의의는 해외이민 및 민족운동의 계승이라는 측면, 1950년대 당면한 국가재건의 과제를 앞에 놓고 추진한 공업교육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 그리고 인천지역과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하대학 설립의 의의를 해외이민 및 민족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하대학은 하와이 교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던 한인기독교학원을 매각한 대금 15만불을 기금으로 하여 하와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인기독교학원의 설립·운영이나 인하대학의 설립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와이 교포의 성금과 1950년대 국민의 성금이 결합되어 있다. 하와이 민족운동의 정신과 국내외 동포의 성금이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인하대학 설립은 거족적, 민족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해방 후의 경제·교육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와이 이민과 민족운동을 기념하는 측면 이외에 인하대학의 설립은 1950년대 경제 및 교육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1950년대 한국의 경제정책, 미국의 원조체제 하에서 자립경제를 구축하여야 할 경제건설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를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공과대학으로서 인하대학의 설립이 가능하였다. 말하자면 인

하공과대학의 설립은 한국의 국가 경제정책, 교육정책 속에서 가능하였던 것이다.

셋째 인천지역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하공대가 인천에 세워진 것은 하와이 이민선이 최후로 떠난 최후의 고국의 땅이 인천항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기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인천이 수도권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경인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하공대에서 배출될 인재들이 이들 공단을 지도해나갈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인하공대에서 단기 기술자의 양성이나 재교육을 추진한 것은 경인공업단지가 배후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며, 인하공대 설립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립의 역사적 의의를 배경으로 하여 인하대학은 공과대학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은 과학 기술분야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된 것이다.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혀 널리 국민에게 보급하는 한편 학리를 더욱 철저히 연구하여 창의로서 국민의 후생을 도모하고, 근면과 자립정신을 함양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인류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만인이 참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리와 정의의 사명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의거하여 인하공과대학의 창학정신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었다.

첫째 창의(創意) - 후생(厚生) : 과학창달(科學暢達)
- 국리민복(國利民福)

둘째 근면(勤勉) - 자립(自立) : 인격도야(人格陶冶)
- 자력갱생(自力更生)
셋째 봉사(奉仕) - 공영(共榮) : 멸사성인(滅私成仁)
- 협동번영(協同繁榮)

학칙에 보면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공학에 관하여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위(有爲)한 동량(棟樑)의 재(材)를 양성하므로써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도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의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다. 1957년 4월 1일의 개정 학칙에는 “본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는 동시에 공학에 심오한 이론과 그 실제적 적용방법을 교도 연마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인하공대의 설립은 과학의 발달과 공업기술의 연마를 통하여 낙후된 한국의 공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자립과 번영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 기술분야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교복과 학교 상징의 제정

해방 후에는 일제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대학에서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뱃지를 달았다. 인하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복을 제정하였다. 심청색(深靑色)의

양엽(兩葉) 신사복을 정복으로 정하고 공과대학의 실습을 위하여 작업복을 지정하였다. 이 작업복은 학도호국단의 군사훈련복도 겸할 수 있게 제작하였고 이를 평상복으로 착용토록 하였다.

교모는 심청색의 서부풍 중절모로 제작하여 근면과 의욕의 기풍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개교에 임하여 학교당국은 인하대학을 상징할 수 있는 교표(뱃지)의 제정을 위하여 수차 논의하였으나 결정을 못하다가, 4월 17일 학부장회의에서 그 도안을 학생들에게 공모하여 선정한 다음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미장(美匠)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과의 현상공모에 많은 학생들이 응모하였고, 그 중 기계공학부 양정길군의 도안이 당선되었다. 치륜(齒輪) 바탕에 Inha Institute of Technology의 머릿글자인 'I.I.T'와 대학을 뜻하는 '大'자를 조화롭게 배치한 것이다. 심청색의 바탕은 이지와 의지를 표현하며 치륜은 모든 기계의 원동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후 18년간 인하공과대학의 상징이 되었으며, 1972년 종합화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하였다.

5월 4일의 학부장회의에서는 교장(校章)과 교기의 제정을 논의하고 시안을 마련하였다. 6월 22일의 학부장회의에서 교장은 인하공과대학의 머리글자인 '仁'자를 변형한 문양을 채택하였고, 교기는 감색 바탕에 금색의 교장을 중앙에 그려 놓고, 하단에 교명 '仁荷工科大學'을 명시한 다음 사변에 테를 두르고 황금술을 단 장방형의 것으로 제정하였다. 감색은 깊고 넓은 인하의 기

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후 이 감색은 인하의 교색(校色)이 되었다. 이 교기는 1954년 10월 5일 개교기념식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원철 초대학장에게 수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이후 18년간 인하공과대학의 교기로 사용되다가 1972년 인하대학교로 종합화됨에 따라 하단의 교명만을 '仁荷大學校'로 고쳐서 다시 제정하였다.

교가는 1954년 5월 18일 처음 제정되었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9월 28일 다시 개정되었다. 5월 4일 학부장회의에서 교가의 제정을 결의하여 그 작사를 최남선, 김광섭에게 위촉하여, 5월 11일의 학부장회의에서 최남선 작사를 채택한 다음, 현재명에게 작곡을 위촉한 뒤 5월 18일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이 교가는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재명에게 다시 작사와 작곡을 위촉하여 9월 28일 완성, 10월 5일의 개교기념식장에서 불리지게 되었다.

인하공과대학 교가는 다음과 같다.

제1절

월미 팔미 섬을 감돌아 오대양이 통한 곳
빛날세라 우리 학원은 인하대학
조국의 건설을 맡은 우리 팔에는
끓는 피와 창조력 용솟음친다.

제2절

진보 발달 고동소리는 새 문명을 이루고
높은 이상 굳은 신념은 우리의 자랑
겨레의 영광과 나라 부강 이루고
새 세계를 이끌자 인하대학

이 교가의 가사는 1982년 1학기까지 사

용되었는데, 1972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음에도 '인하대학교'로 되어 있지 못한 점, 제1절 2행의 '빛날세라'의 '세라'에 두려움과 의구심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가사를 수정하게 되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논의와, 동창회, 학생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1982년 6월 교무회의에서 교가의 개정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빛날세라'는 '빛나라'로 고치고 '인하대학'은 '인하대학교'로 고쳤다.

제2절. 인하공대의 발전과 학제개편 문제

1. 신입생의 선발과 개교

(1) 신입생의 선발과 개학

인하공과대학 6개 공학부 신입생 180명에 대한 선발시험은 1954년 3월 15일 서울시 돈암동의 경동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1954년 2월 3일 인가신청을 할 당시 각 학부 120명씩 720명을 선발하고자 하여 학칙에 명시하였다. 그것은 4개 학년 전체의 정원이었으므로 첫 신입생은 각 학부 30명씩 180명을 뽑았다. 인하공과대학의 학사를 주관하던 서울 연락사무소의 업무편의상 입학지원사무를 경동고등학교에서 처리하였다. 지원자의 수가 미지수였기 때문에 경동고등학교의 교사를 빌려서 선발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총 응시자 367명 가운데 180명을 합격자로 선발하여 3월 27일 합격자 발표를 하였다. 금속공학부, 기계공학부, 광산공학부, 전기공학부, 조선공학부, 화학공학부 각 30명씩 모두 180명이었다.

1954년 4월 24일 토요일 역사적인 제1회 인하공과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4월 24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하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이다. 4월 24일 오전 11시 박홍근 부학장의 설립경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 이원철 학장의 훈화와 인천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 교수진과 행정보직자에 대한 인사소개에 이어, 대한민국만세

와 인하공과대학만세의 삼창으로 입학식을 마쳤다. 입학식을 마친 학생들은 교실에서 각 학부별로 학부장의 설립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강에 앞선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4월 26일 개강하고, 4월 28일 첫 수업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하여 인하공과대학생들은 낙후된 한국의 공업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 개교기념식

거국적인 준비와 지원에 의하여 설립된 인하대학은 입학식 당시에는 시설이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개교기념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6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연기한 뒤, 10월 5일 거행하게 되었다.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태영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 이기붕 이사장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들, 인천시내 유지와 학부형, 하와이 교민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개교기념식을 알리는 경축문에는 좌우에 '대한민국만세(大韓民國萬歲)'와 '이대통령각하만세(李大統領閣下萬歲)'가 쓰여 있었다. 학생들이 도열한 가운데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원철 학장에게 교기가 수여되었다. 이 대통령의 치사를 비롯하여 이원철 학장의



인하공과대학 개교기념식 (1954. 10. 5)

기념식사, 이기봉 이사장의 축사, 미국 대리대사와 이선근 문교부장관의 축사가 있었다. 교가를 합창한 뒤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변영태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기념식을 마쳤다. 인하대학의 개교기념식은 개교한지 6개월 뒤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이 모두 참석한 국가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4년 10월 7일 높은 이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라 - 인하공대 개교식에서 치사(『대통령 이승만박사담화집』 제2집, 공보처, 1956, 247-248쪽)
50년 전인 1903년에 서울 감옥에서 6년을 지내고 그때 인천의 찌버 히버 존스 목사, 윤병구씨 그밖에 다른 애국지사들과 협의하여 하와이에 한인

이민시키기 시작하여 살길을 차져서 약 8천명이 적수공권으로 건너가 농사도 모르는 동포들이 가서 고생이 막심하고 가당한 일이 많았다. 그것도 일인관계로 1904년에는 이민의 길이 막혔다. 한인은 냉정한 태도를 받았으며 그러는 중에 애국지사들이 회를 하고 교회를 짓고 하여 차차 자리가 잡혔다. 1904년에 내가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건너가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운동비의 대부분이 하와이의 남녀 노동자로부터 거출되었고 일부는 미국에 건너간 한인들이 남는 것을 바쳐서 4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작년이 고국을 떠난 50년 기념으로써 부통령이 대표로 예식에 참석하였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걱정은 공산당보다 더 음험한 것이 일본의 야심이다. 그러므로 일인을 걱정하여야 하며 일인이 선전술이 있어서 미국인이 그것을 드러주고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타국을 거기다 따러가게 하지는 것이 동양의 문제다. 그러므로 어려운 것이고 또 한인 중에도 친일하는 자가 있어 일본에

의리하는 생각을 가진 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자를 잘 분간하여야 한다.
하와이의 한인들이 고국을 떠나 50년된 기념사업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여 학교를 고국에 만들고 저 기독교 기지를 판돈 15만불을 기금으로 하여 시계와 또 금번의 300불 등등을 거출하여 기계학을 배우는 인하공과대학을 그들이 최후로 떠난 땅인 인천에 세웠으니 우리들은 쉬지 말고 압박의 40년을 도로 차져 뒤떠러진 것을 회복하고 버려 먹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높은 이상을 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각오하여야 한다. 원하는 것은 미국의 MIT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 발명가가 되어 매일 경쟁하고 전진하여야 한다. 일본사람에게 배운 것만이 제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잘못이니 이러한 그릇된 것을 타파하고 학생들은 이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배우고 발명하고 일용사물을 기계로 하도록 발전시켜 더욱더욱 전진하며 한인이 칭찬받도록 되어 나가기를 축복하는 바이다.

이것은 공보처에서 배포한 요약문이고, 원문은 『인하』 창간호에 있다. 이 대통령은 하와이 이민과 민족운동을 배경으로 한 인하공과대의 설립과정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일본을 경계하면서 일본을 이기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매진할 것을 요구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원철 학장의 개교식사(開校式辭)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인하대학 개교식을 맞이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외 귀빈과 학부형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다수 내림하셔서 영광스러운 이 개교식전을 빛나게 해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인하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면,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대한 말에 동양풍운이 협약해서 아라사(俄羅斯)와 일본과의 두 세력 사이에서 우리의 국토가 지극히 난국에 처하였을 때 뜻있는 지사들이 우리 국가의 운명을 우려하면서 고국산천을 등지고 마지막 땅인 인천 제물포를 떠나서 하와이에 도착하여 그 후부터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 조국광복을 위해서 이 대통령 영도 하에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특별하신 분부로 이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와이에 정착한지 10여 년 후인 1916년경에 하와이 교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이 대통령 영도 하에 K.C.I. 대한기독교학원을 설립하였다 합니다. 그 학원이 오늘에 남긴 기본자산을 교포들이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 땅에 보내와서 그 재단을 기본삼고 정부의 보조와 국민 전체의 성의로 오늘 여기에 인하공과대학이 창설되어서 이 개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 실로 의의 깊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 있어서는 전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얻었고 또 설립기금의 일부분으로 국민 전체의 자발적으로 헌금하기를 호소한 바 있었는데 각 기관 각계 각층에서 의외에도 광범한 반향이 있어서 본 대학의 창립정신을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국민 거개가 본 대학의 창설자와 다름없다는 확고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가장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학은 원래 인격의 도야와 학술의 연구를 담당한 기관입니다. 선열의 이와 같은 거룩한 뜻을 이어 받은 우리 대학은 숭고한 민족정신을 체득하고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이해하는 인간을 만드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을 스스로 믿는 바입니다. 아무리 학문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 정신이 박약하다고 하면 그 학문이나 기술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그 가치를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에 대처해서 사리를 판단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지침이 되며 힘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이 봉사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대학의 정신교육의 중요한 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세계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과학과 기술은 그칠 줄 모르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전력을 기울여 그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터입니다. 특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과학전(科學戰)의 양상은 실로 심각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열국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고 창의와 열성으로서 일층의 발달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과학을 통한 국가방위력의 강화에 이바지하고 확고한 공업력을 건설하여 국내의 자급자족은 물론 열국과의 경제전(經濟戰)에 대결하여 이겨 나가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원대한 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깊은 뜻과 해내해외(海內海外)의 거족적인 성의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곧 이 인하대학이니만치 이 정신은 온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바이며, 따라서 본 대학에 부하된 사명은 더욱더욱 무겁고 큰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또 선각자의 성스러운 뜻과 하와이 교포의 초지를 관찰하고 그 결실케 하여 처음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는 명실상부한 대학을 건설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또한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하니 학생제군은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여 올바르게 총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장래는 제군의 쌍견(雙肩)에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파괴된 국토를 재건함도 제군이요 남북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풍부한 자원개발공업의 재건도 제군의 일이라는 결의를 가지고 가일층 분발해서 촌가(寸暇)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 여러분은 최신의 학리와 기술을 도입하여 소확하고 우리나라 특유한 환경과 재질을 살려서 조

속히 두뇌진의 구성과 배양에 힘써야 하고 전일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참신한 교수법을 채택하여 유위(有爲)한 후진양성에 전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부형 여러분께서는 본 대학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시종어일한 후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대학의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따라 본 대학의 설립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바이니 장래에 있어서도 중전과 다름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1954년 10월 5일 인하공과대학 학장 이원철

인하공대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승고한 민족정신을 체득하고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이 해하는 인간'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2. 대학운영체제와 교육시설

(1) 대학운영기구

초창기 대학운영기구는 이사회, 학장, 부학장의 지휘체계 아래 학사행정을 담당할 교학처를 두고 그 아래에 교무과와 학생과를 나누어 학사를 분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그 아래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어 대학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또한 도서관도 배치되었다. 그리고 별도로 교수회와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체제였다.

초창기의 행정조직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장	李源喆	부학장	朴弘根
교학처장	李 樑	사무국장	禹相玄
교무과장	盧台俊	총무과장	尹同燮
학생과장	李正根	경리과장	張奭煥
기계공학부장	李 樑	조선공학부장	李 樑
금속공학부장	朴東吉	광산공학부장	朴東吉
화학공학부장	趙廣河	전기공학부장	李宗日

초창기의 대학행정은 학부장회의(학장, 부학장, 6개 공학부장)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을 교학처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체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주요 학사와 교무행정은 점차 전체 교수회에서 논의 결정하였고, 특별한 사항은 교수회에서 학부장회의로 이송하여 결정 시행하도록 하였다. 학부장회의는 후의 교무위원회 및 과주임회의를 겸하는 성격을 지녔고, 교수회와의 가능한게는 분명치 않았다.

1955년 5월 3일의 교수회에서는 대학발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교수 전원과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매월 첫째 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후 모든 학사는 이 교직원회에서 논의 결정되었고, 긴급한 사항은 학부장회의에서 결정 시행한 후 교직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교수와 직원이 모두 학사행정을 놓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구였다.

이원철 초대학장은 대학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고심 전력하였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하공대 설립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사용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중앙관상대 대장직을 겸임

함으로써 과도한 직무부담을 지고 있었고, 독단적인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학내에 불의를 일으켰다. 1956년 11월초 박홍근 부학장을 해임한 것을 계기로 전교생이 이원철 학장 불신임의 동맹휴학을 단행하는 사태를 빚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이사회는 12월 14일자로 이원철 학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제2대 학장으로 최승만(崔承萬)을 선임하였다.

최승만 2대 학장은 1957년 1월 21일 학장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부임하였다. 최승만 학장은 1897년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 보성중학교, 일본동경 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2·8선언, YMCA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하여 스프링필드 대학을 졸업한 뒤 동아일보, 경성방직에 근무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청 문교부 교학국장, 연희대학교 교수, 제주도 지사, 제주대 학장, 이화여대 교수 및 부총장을 역임한 뒤 이때에 인하공과대학장에 임명되었다. 이기봉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에 임명되었다.

최승만 학장은 부임 직후 학내의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력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행정기구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학내사태의 원인이 된 부학장제를 폐지하고 이사회와 학장의 지휘체계 아래 교학처, 사무국, 부속기관을 두었다. 교학처는 교무과와 학생과, 사무국은 총무과, 경리과, 용도과, 건설과,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과 기숙사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학장의 보좌기구로서 교내에 교수회와 교무위원회, 교외에 인하후원회와 시설확충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사무국에 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건설과와 용도과를 신설한 것, 교수회 외에 교무위원회를 두어 교수회와의 책임한계를 구분한 것, 인하후원회 외에 시설확충기성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교무행정의 원활을 꾀하는 한편 건설사업의 촉진과 확충을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의 행정보직자는 다음과 같다.

학장	崔承萬		
교학처장	李 樑	사무국장	金奭榮
교무과장	李時奎	총무과장	柳濟崙
학생과장	丁榮植	경리과장	朴仁永
기숙사사감	辛永默	건설과장	金輔鉉
도서실장	金尹錫	용도과장	韓熙文

(2) 후원회

인하공과대학 후원기구는 설립과정에서부터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외의 동포들이 합심하여 기금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인하대학은 후원조직에 의하여 세워진 셈이었던 것이다.

1953년 6월 4일 문교부의 대학후원회설치운영요령에 의하여 인하대학에서도 인하공과대학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13일 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의 학부모 7명, 지방의 학부모 2명, 보류 2명 등 11명으로 발기인회를 구성하였다. 발기인회에서는 후원회규약안을 마련하고 후원회 예산안을 확정하여 다음 후원회 창립총회를 개교기념식 이전에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7월 16일 드디어 인하공과

대학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후원회 규약을 통과시키고 회장단 및 이사진을 선출하였다.

후원회의 회장은 김정렬 인천시장이 맡았고 부회장에 김연우(송도고등학교장), 이중설(인천시 의원, 의사), 이사에 윤중섭(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도복(조흥은행 검사역), 문정주(인천시출장소장), 박재훈(인천공업고등학교장), 고병령(의사), 정원섭(서울지방법원 판사), 박주운(서울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신용식(인천축산원에조합장) 등 8명, 감사에 김황진(청주검찰청 차장검사), 김동진(피복도매상) 등 2명으로 구성되었다. 후원회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방침에 의하여 인하공과대학의 유지 경영을 후원할 목적으로 그 제반시설과 직원의 후생 기타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지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학교와 가정과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회원은 재학생의 보증인 및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함으로써 학부형과 인천지역의 유지가 주대상이 되었다.

후원회는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각종 운동기구를 학교에 제공하는 한편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차년도(1954.7~1955.6) 총예산액은 3,057,296환인데 그 중 2,576,951환을 후생비로 지출하였다. 2차년도에는 학생들의 보건을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를 배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7년 4월 15일 후원회 3차 총회가 열려 임원을 개선하고 인하공과대학의 시설확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1957년 3월 7일 문교부에서 대학설치기준령에 미흡한 대학에 대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시설확충기성회를 조직하여 후원회비 이외에 별도로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인하대학에서도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인하공과대학시설확충기성회를 구성하였다.

인하공과대학시설확충기성회는 “인하공과대학시설확충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조달하여 이를 학교당국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하공과대학 후원회원, 교우회원, 인하학원 이사 및 감사, 교직원을 회원으로 조직하였다. 기성회는 시설확충을 추진할 목적으로 1957년 6월 18일 문교부에 설치인가를 신청하여 21일 승인을 받고 초대회장에 후원회장인 김정렬을 추대하여 겸직하도록 하였다. 기성회는 시설확충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도서관의 증액에 힘을 써 도서관의 장서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인하대학의 설립의 계기가 된 하와이에서도 일찍이 인하후원회가 조직되었다. 1953년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한 함태영 부통령이 70세 이상의 동포를 초청한 만찬에서 인하대학의 설립의 뜻을 밝히자, 이에 호응하여 1954년 봄 인하후원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0월의 개교기념식에서 장학금 300달러를 전달하여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3명에게 100달러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장학금을 받은 기계공학부 권진호의 하와이 인하후원회에 대한 감사장은 다음과 같다.

멀리 고국땅을 떠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워오신 여러 애국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얽힌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은 전쟁의 암흑에서 무너진 강토를 더듬던 이 겨레 앞에 빛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자유는 얻어졌습니다.

이제 이 겨레가 잘 살기 위하여는 공업의 발달을 시급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귀중한 시기에 이 나라의 삶을 이끌어 나갈 기술자를 길러내는 인하공과대학의 문을 들어선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따뜻한 국가의 보호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약속해주는 귀 후원회의 끊임없는 도움으로서 우리들은 이 나라의 어느 대학의 학생들보다 많이 배웠고 또 공부하여 왔습니다.

이번 뜻밖에도 학장 선생님께서 주시는 귀 후원회에서 보내신 장학금 300불 중 100불을 받을 때 감격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실력입니다. 저희들의 본분은 공부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킬 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음에도 장학금을 주시는 인하후원회의 은혜에 보답하는 오직 하나의 길인 공부에 더 힘을 쓸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헤아립니다.

감사한 마음 참을 수 없어 서투른 글이나마 감사장을 올리오니 저의 뜻을 이해하시와 저만이 아니라 전학생들의 앞날을 위하여 비전의 후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보내신 것도 아닌 피어린 금액은 한국 재건에 기둥이 될 기술자의 앞날을 돕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내일의 인하를 위하여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며 튼튼한 몸을 기르고 있습니다.

내일의 한국공업은 인하의 일꾼들의 것입니다.

오직 감사의 한 뜻으로 감사장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빌며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힘을 쓸 것을 맹세합니다.

단기 4288년 4월 1일
기계공학부 제2학년 권진호

하와이 교포들은 모국을 방문할 때마다 인하공과대학을 방문하고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었다. 1955년 4월 10일에는 하와이교포모국방문단에서 800달러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하와이 인하후원회로부터 1,125달러의 장학금이 도달하였다. 10월 25일에는 하와이교포원로단 45명이 인하대학을 방문하여 900달러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3) 재정운영

정부에서는 인하공대의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

였다. 한국은행 총재를 재정담당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은행융자와 시멘트 총판매권을 활용하여 학교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특혜를 주기도 하였다.

1957년 2월 9일 인하학원은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융자를 문교부에 요청하고 문교부에서는 재무부에 특별 추천하여 융자를 성사시켰다. 즉 대한양회에 3억원을 대부하고 그 제품 생산량에 대하여 한 부대에 80전의 비례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여, 1957년 12월부터 1960년 11월까지 3년간의 기한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시행되었다.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 9억7천5백만환 가운데 시설비에 556,779,618환(화공관, 전



1954년 도입된 DC3형 항공기: 국적기로 최초의 태평양 횡단을 하여 하와이교포를 귀국시켰다.

공과, 도서관, 사무국, 강당, 공관, 사택 등의 신축 및 기타 10여 학과의 계속공사와 정지 및 구내 주택 철거, 구축물의 운영, 도시실 장서 구비 등), 운영비에 423,720,382환을 충당하였다.

인하학원은 학교운영비, 건축비를 조달하고자 기본재산 가운데 미화로 예치되어 있는 부분을 설립초기부터 활용하였다. 1958년 4월 현재 민간기업에 대여한 것이 611,312불이었고, 539,911불의 미화를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교부에서는 대여금을 빨리 회수하도록 촉구하고, 처분금은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권고하였다. 대여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1954년 8월 18일 주식회사 개풍상사에 15만불, 1955년 3월 30일 범한무역주식회사에 20만불, 1956년 4월 20일 범한무역주식회사에 10만불, 1956년 12월 15일 국생산업주식회사에 161,312불을 대여하고, 그 대신 일정액의 찬조금(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하여, 이를 학교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보유하던 미화는 범한무역주식회사에 매도하여 학교시설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 동안 재단법인 인하학원의 수지개산서(收支概算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

과목		1954년도	1955년도	1956년도	1957년도	비고
관(款)	항(項)					
기본재산수입	이득금	10,800,000	10,800,000	10,800,000	10,800,000	30만불에 대한 2할 수입
	수업료	2,244,000	4,488,000	6,733,000	8,976,000	1인당년 10,200환. 1년도 220명, 2년도 440명, 3년도 660명, 4년도 880명
사용료 및 수수료	입학금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인당 1,500환 220명분
	수험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인당 300환 500명분
	계	2,724,000	4,968,000	7,212,000	9,456,000	
잡수입	잡입	10,000	10,000	10,000	10,000	
합계		13,534,000	15,778,000	18,022,000	20,266,000	

이 통계는 개산서(概算書)이고, 설립과정에서 제시된 수지계획일 뿐이어서 집행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수입은 이득금, 입학금, 수험료의 고정 수입 외에 학생수가 변동되는데 따른 수업료의 증가로 계획되었다. 지출은 크게 재단의 사무비와

대학의 경비로 구분되는데, 재단의 사무비는 4년 동안 변동이 없이 예정하였고, 대학의 경비는 초창기에는 비품, 도서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후에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예비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지출>

과 목		1954년도	1955년도	1956년도	1957년도	비 고
관(款)	항(項)					
회의비	회의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연 2회, 1회당 50,000환
	봉급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인, 1인당 월 10,000환
	잡급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용인급료, 당숙직료
	여비	60,000	60,000	60,000	60,000	월 5,000환
사무비	비품비	200,000	200,000	150,000	150,000	
	수용비	300,000	300,000	350,000	350,000	인쇄료, 소모품비
	잡비	80,000	80,000	80,000	80,000	
	계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봉급	3,540,000	6,840,000	9,540,000	12,240,000	
	잡급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용인급, 당숙직료
	여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월 4회, 1회당 5,000환
	비품비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인하공과	소모품비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대학비	통신운반비	300,000	300,000	400,000	500,000	
	도서인쇄비	1,200,000	1,000,000	600,000	600,000	
	수선비	400,000	400,000	500,000	500,000	
	잡비	500,000	500,000	400,000	400,000	
	예비비	1,654,000	998,000	842,000	286,000	
	계	12,334,000	14,576,000	16,822,000	19,066,000	
합 계		13,534,000	15,778,000	18,022,000	20,266,000	

서, 경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맞춘 것이다.

봉급계산은 학장 월 20,000환, 교수 월 15,000환, 서기 월 10,000환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954년에는 학장 외에 교수 15인, 서기 5인, 1955년에는 교수 30인, 서기 10인, 1956년에는 교수 45인, 서기 10인, 1957년에는 교수 60인, 서기 10인으로 예정하고 있다.

(4) 교육시설의 확충

인천시로부터 기증받은 125,173평의 황량한 들만에 개교를 위하여 1953년 8월 28일 임시교사로 사용할 A동 100평, B동 200평의 건축에 착공하여 11월 30일 준공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빈약한 시설이었다. 그래서 개교기념식을 치른 직후인 1954년

10월 27일 560평의 기계공학관, 200평의 화학공학관 실습공장 건축에 착공하였으며, 화학공학부 실습공장은 1955년 3월 19일에 준공되어 임시로 도서실과 일부 교실로 사용하였다. 13개의 교실로 구성된 기계공학관은 1955년 11월 22일 준공되었다. 이로써 시급한 교실난은 일단 해소되었다.

최승만 2대 학장의 재임기간 중에는 교사와 공장, 도서관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1957년 5월 25일 착공하여 3개월만에 준공된 연와조 2층 243평의 실습공장은 임시사무실, 회의실, 교수실, 임시강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8월 10일 착공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지하 1층 688평의 화학공학관은 총공사비 1억 5천여 만환을 들여 11개월만에 준공하고, 거기에 대소강의실 9개(148

평), 일반실험실 11개(205평), 교수실험실 9개(84평), 지하 압실(82평)을 두고, 1층에는 천칭실(天秤室)을 두었다. 1959년 5월 30일 준공된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3층 921평의 전기공학관은 1억 6천 9백만환을 들여 지은 현대식 건물로, 1층에 강의실 8개, 교수실, 사무실, 실험실, 변전실, 배전시험실 등을 배치하고, 2층에 강의실 9개, 교수실, 실험실 및 준비실을 배치하고, 3층에는 건물유지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였다.

공과대학에 필수적인 실험실의 설비도 점차 개선되어 각 학부별로 실험실이 완비되어 갔다. 1958년에는 범한무역주식회사를 통하여 물리화학 실험기구를 도입하였다. 기계과 실험기구는 71,667불, 광산과는 36,704불, 금속과는 41,427불, 전기과는



1958년경의인하공과대학 : 우측이 기계공학관 신축교사

47,534볼, 화공과는 21,035볼, 총액 218,370볼에 달하였다.

교실에서의 강의와 실습만으로 대학의 학문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 도서관의 개설은 대학의 사명인 학문연구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1954년 개교 초기에 도서관 설립 계획을 세웠지만 시설미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 교사의 일부를 빌려 도서실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료의 입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도서관이 개설의 시급하였다. 교수와 학생들은 도서관의 개설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래서 1955년 6월 화학공학부 부속건물이 완성될 때 남측 교실 일부에 85석의 열람실(25평), 도서 600여 권을 소장한 40평의 서고, 참고열람실 및 사무실(25평)의 시설을 갖추고 도서실을 개설하였다. 초대 도서실장 김윤석 교수의 지도 하에 1955년 6월 15일 부속도서관이 처음 개설되었다.

도서관에는 이공계의 최신도서를 많이 비치하였다. 개설 당시 600여 권이던 장서가 1년 후인 1956년에는 6,000여 권에 이르렀고, 1957년에는 한미장학재단, USBE, CARE 본부, UNESCO 한국지부 및 세계대 학생봉사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박동길·김윤석 교수, 진학문씨의 기증 도서로 장서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밖에 도서구입비와 ICA 보조금으로 교수용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도서비치기준인 18,000권을 상회하게 되었다. 1958년 말에는 도서의 분류 정리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모두 30,375권(동양서 5,308권, 서양서 13,623권, 정기간행물류 11,431

권)을 소장하는 도서실로 성장하였다.

장서의 확대에 따라 도서관 건물의 신축이 시급이 요청되었다. 그래서 1959년 6월 19일 AFAK의 자재원조를 받아 도서관 건물을 착공하였고, 11월 20일 217평의 현대식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다. 새로 건립된 도서관에는 216석의 열람석이 마련된 열람실(94평), 서고(95평), 사무실(29평)이 배치되었고, 장서수는 41,082권(동양서 6,980권, 서양서 18,008권, 정기간행물 16,094권)에 달하였다. 이밖에 신문 32종, 잡지 6,108종을 비치하였다. 장서의 80%는 이공계 도서이고 그 대부분은 서양서였다.

4,432평에 달하는 대학 본관의 건축공사는 1959년 5월 21일 성대한 기공식을 거행하였지만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중단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옥외집회를 위한 1,800평의 노천극장이 1958년 6월 15일 완공되었고,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5,185평의 종합운동장도 완성되었다.

인천에 위치한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학생기숙사 건축도 이루어졌다. 기숙사의 신축은 1955년 8월 20일 착공하여 1956년 4월 23일 완공하였다. 기숙사는 연와조 2층 568평 양옥으로서 최신식 완전난방시설을 갖춘 33개의 사옥(舍屋), 식당, 목욕장, 세면장, 취사장, 세탁장을 구비하였다. 총공사비는 111,587,000환이 들었다.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는 1956년 1월 17일 기숙사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숙사의 사칙 및 운영방침을 정하였다. 초대 기숙사 사감에는 신영목 교수가 임명되었고, 주임 1명, 서기 2명, 식감 1명, 식모 3명, 수위 2명, 청소부 1



기숙사 비룡재

명 등 11명의 인원이 배치되었다.

기숙사의 입사는 1실당 4명씩, 33실에 132명이 수용되었다. 입사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기숙사의 운영은 처음에는 학생들의 자치운영에 맡겨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1957년 4월 이후부터는 학교측에서 그 운영방침을 개정하여 인건비와 건물의 영선 수리비를 학교측에서 부담하고 사생은 난방연료비, 전등비 및 청소도구비 및 기타 잡비로 당시 함께 매월 1,000환을 부담하고, 별도로 식비로 매월 12,200-12,600환을 부담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 하숙비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액수였다.

당시 기숙사 생활의 일부를 화학공학부

3학년 이대훈의 수필 '기숙사에서 『인하』 2)를 통해서 살펴보면, 시주임의 통제 하에 아침에는 조회로 시작하고, 벨소리에 일제히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이면 "달을 벗겨서 코스모스 사이를 거니는 멋도 좋고 누룽지 오기를 기다리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기 좋고 이같이 좋은 황혼에 창문을 열고 바다로 눈을 돌리면서 무상한 마음에 풀연기를 뿜으면서 해사하게 웃는 멋"을 즐겼다. 보통 기숙사와 같이 "이편에서는 수학을 푸는가 하면 저편에서는 잡지를 본다. 이방에서 장기를 두는가 하면 저방에서 영화 얘기가 한창이다. 우리방은 내일 문학낙시터에 낙시질 가기 준비에 바쁘다"라는 기술에서 기숙사의 분위기를 엿



교수사택

볼 수 있다. 한잔 술에 취흥을 돋운다면 좋겠지만 술반입은 금지다. 밤 11시 점호 후 요란스러운 벨 소리로 일시에 형광등의 불을 켜다. 사주입은 점호를 하고 기숙사의 내외를 정리 정돈하는데, 방안에 신발을 들여놓으라는 호통을 치곤한다. 기숙사의 앞은 시원한 바다로 탁 트여 있어 시원한 분위기였으나 숲과 나무가 없어 아쉬운 그런 분위기였다.

기숙사와 함께 10동 267평의 교수사택도 건설되어 서울에서 통근하던 교수들도 사택에 입주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한편 학교부지 125,173평 가운데 48,272평을 1955년 4월 9일자로 등기하고 교내의 주요 간선도로를 정비 포장하여 일차적인

정지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96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등기를 완료하고 대학구내의 사유지 12,724평과 인접한 사유지를 매수병합하여 총계 136,122평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구내에 산재하던 피난민촌 800세대를 인천시 당국과 협조하여 이전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완전히 철수하게 하였다. 이후 구내의 정지 및 미화작업에 착수하여 기숙사 전면의 언덕을 제거하고, 1957년 9월 10일까지 본관 건축예정지 1만평을 정지 완료하고, 12월 15일에는 대학본부와 기숙사 사이의 도로 200미터를 콘크리트 포장하였다. 교내 미화를 위하여 1,800평의 묘포장을 설치하고, 1,200평의 화단조성, 3,000평을 조림하고, 2,500그루의 가로수를 심었다.

(5) 1950년대 운영방식의 성격

인하공대는 1950년대 경제 및 교육정책 속에서 국가 경제재건 방침의 교육적 반영으로서 설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과정에서도 국가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인하대학은 “국립이나 공립보다도 하와이 동포의 국내동포와의 합작으로 성립된 재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사립의 재단법인을 운영체로 하여 설립되었다.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와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대학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소유하고 일정한 수익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하학원의 경우에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하되 그 재원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내외 동포의 성금과 외국인조기관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인하학원이 사립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사실은 국가의 경제·교육정책 가운데서 국가원수의 결단과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립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점에 인하학원의 특수한 위상이 있다. “인하대학은 실로 조국 광복을 장식하는 기념적이며 협조적이며 생산적 소산으로서 건립된 것” 또는 “교육은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생산교육은 곧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라는 이기봉 이사장의 지적은, 하와이 이민 및 민족운동을 ‘기념’ 하고, 하와이 교포의 성금과 국내 국민들의 성금을

합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협조적’이며, 국가의 당면한 경제적 교육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교육’을 위하여 과학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2년 1도에 1교씩 대거 지방국공립대학을 설립하면서도 경기도 인천에는 국·공립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이와 같이 특수한 위상을 지닌 인하공대를 설립하였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정부출연기관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아니면 사립재단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립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승만의 「나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이사장, 학장, 이사의 선임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사장이 이승만의 최측근이던 이기봉이었다. 4·19혁명이 일어난 후 최승만 학장은 “인하대학은 이 대통령이 설립자요 자유당의 제2인자인 이기봉씨가 인하재단 이사장이자 자유당 계열의 학교라고 생각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그만큼 이승만의 개인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54년 10월 인하공과대학 개교기념식을 알리는 경축문에는 좌우에 대한민국만세(大韓民國萬歲)와 ‘이대통령각하만세(李大統領閣下萬歲)’가 쓰여 있었고,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함태영 부통령, 미국대리대사, 이기봉 인하학원 이사장, 이선근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변영태 등이 참석하여 개교기념식을 국가적인 행사처럼 치렀다. 자유당 정권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 개인을 기념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학교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과 사립의 구분을 넘어서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사립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설립된 국공립대학과는 별도의 파격적인 지원과 국가정책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미국으로의 유학을 장려하였는데, 1954년에도 100여 명을 선발하여 과학기술을 전공하도록 미국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때의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지금 은 기계시대로 우리나라를 잘 건설해서 세계에 자랑할만한 나라를 만들려면 기계학과 과학 배운 사람이 만히 생겨서 배운 것을 공헌해야만 할 것이요 기계학을 배운 사람들은 위선 인하공과대학에서 교수도 되고 연구사무도 맡기게 할 것이니 부지런히 연구 공부해서 시급히 도라와 공헌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라고(1954년 11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열심히 공부하여 미 국복리에 이바지하라 - 해외 유학생들의 자 각을 촉구」) 하여,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귀 국하는 사람에게 인하공대의 교수직을 제 안하고 있다. 이처럼 인하공대는 국책적 성 격을 지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 었다.

3. 공학사의 배출과 대학원의 설치

(1) 공학사의 배출

제1회 신입생 180명 가운데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이 확정된 124명은 1958년 3월 18일 공학사 학위를 받았다. 8학기의 등록을 마치고 160 학점 이상을 평균 60점 이상 취득하여 졸업사정을 통과한 금속공학과 24명, 기계공학과 22명, 광산공학과 16명, 전기공학과 18명, 조선공학과 19명, 화학공학과 25명 등 124명이었다. 최승만 학장은 다음과 같은 졸업훈화로 졸업생들을 격려하였다.

4년간 여러가지 곤란을 극복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공학사의 학위를 받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오직 제군의 꾸준한 노력과 학부형 여러분이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충심으로 축하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보다도 산업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나 산업진흥을 획책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과학적 계획과 기술적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산업이 발달되어 국민경제가 안정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비로소 실력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른 말하면 제군은 우리나라 산업건설의 훌륭한 일군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제군은 인하의 제1회 졸업생으로 건설한 산업투사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업입국의 인재로서 나라를 위하여 산업투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훈화였다.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 더구나 국책적 성격을 띠고 출범한 인하공과대학을

졸업한다는 국가적 의미가 이처럼 산업투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최학장이 학교를 위하여 일을 많이 했으며 또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 것을 치하하며 마음에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현대는 과학시대이므로 과학을 많이 배워야 하며 과학이 발전한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를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인하공과대학은 과학을 배우는 학교로 만든 것이며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는 목적이 편히 앉아 남을 부리자는 것이 아니고, 다 벗어 부치고 남이 못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나서야 되는 것이다. 이 대학을 시작한 사람의 의도도 우선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고등과정에 올라가

서 배우도록 한 것이니 먼저 단순한 것부터 잘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남의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배워야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니 이방면으로 힘을 써나가면 날마다 진정 되어 나가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전에 일인들이 우리들을 못하게 한 것을 다 배우며 더욱 더 발전하여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원자과학시대에 있어서는 공자 맹자의 도리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개명한 서양의 과학과 방식을 빨리 배워야 남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이나 현재 한국조종사들이 젣트기를 훌륭히 조종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남에게 지지 않는 훌륭한 소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다.

오늘날 원자무기가 도입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젣트기 비행기도 만들며,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렇게 하자면 과학을 잘 배워야 할 것이다.



제1회 학위수여식 (1958. 3. 18)

과학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하공과대학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인하공과대학을 2년제의 직업학교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학과	1958(1회)	1959(2회)	1960(3회)	1961(4회)	1962(5회)	합계
금속공학과	24	6	8	15	14	67
기계공학과	22	14	7	19	16	78
광산공학과	16	7	10	17	14	64
전기공학과	18	11	12	21	15	77
조선공학과	19	11	5	16	13	64
화학공학과	25	10	14	17	20	86
병기공학과					24	24
원자력공학과					8	8
합계	124	59	56	105	124	468

1957년을 전후하여 병역법을 개정하게 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고, 따라서 제2회 및 제3회 졸업생수는 크게 줄었다.

(2) 대학원 설치

제1회 입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된 1957년 11월 11일 교수회에서는 제1회 졸업생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1월 25일 각 공학 부장과 김윤석 교수로서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원 설치법령에 의거하여 12월 2일 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에서는 1958년 3월 14일자로 대학원 설

있었으니, '단순한 것부터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 생각해 된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1회에서 5회까지의 졸업생수는 다음과 같다.

치를 인가하였다. 석사학위과정은 공학과 아래 금속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광산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각 10명씩 50명을 정원으로 하고, 박사학위과정은 별도의 인가가 있을 때까지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의 대학원 학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조와 제108조의 교육이념 하에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기일층 심오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지도적 인격완성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본 대학원에 당분간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칭함)만을 두되 그 과정에 설치할 학과, 전공 및 학

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공학과	
금속공학 전공 10명	기계공학 전공 10명
광산공학 전공 10명	전기공학 전공 10명
화학공학 전공 10명	합 계 50명

제2장 입학 및 진학

제3조 본 대학원의 입학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 제외) 또는 사범대학(2년제 사범대학 제외)을 졸업한 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학부를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정규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본 대학 학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 전조의 입학지원자 전형고사는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 외 외국어(영어, 독일어, 불어 중의 2종을 선택), 수학, 물리 혹은 화학 중 1과목, 도합 5과목.
2. 구술고사.
3. 신체검사.

전항 제1호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대학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작기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3. 출신대학장 및 주임교수의 추천서.
4.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
7. 건강진단서.

8. 사범대학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취학허가서.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학점 및 수료

제7조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별표(교과목과정표)에 의한다.

제9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전공과목 및 부전공과목별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과목	24학점
부전공과목	6학점
합 계	30학점

제10조 이수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일단 결정한 수업시간표는 학기도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13조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14조 본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4장 성적

제15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優 A	90-100	3
良 B	80-89	2
可 C	70-79	1
落 F	60점 이하	0

제16조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
하나 수료사정은 전과목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7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수강 불가능 시는 소정서식에 의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제18조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복학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복학원을 제
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
유를 구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학생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2. 등록기일내에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
- 3.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한 불미사를
감행한 자.

제6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학생

제22조 본 대학원에는 일반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
한 학식 또는 기술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
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이를 정한다.

제23조 대학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및 제목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
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실력을 고사(考査)한
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전항
의 고사는 제5조 제1항의 과목을 과한다.

제24조 연구생으로서 그 성적이 양호한 자에게 대
하여는 그 청강과목별로 별지서식(2)에 의

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으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
인 특별생으로 입학할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전조를 제외한 외국인학생에 대한 입학 및
수강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
칙을 준용한다.

제7장 대학원위원회

제27조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
명하는 위원 7인으로써 구성하고 대학원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새로 선정하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 진학, 수료인정 등에 관한 사항.
- 2. 학과와 전공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
-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 6. 대학원 제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 7.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0조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3분
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학위

제31조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공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2조 전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를 위해서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둔
다. 석사학위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학장
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원 또는 본 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석사
학위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3분
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합격을 결정한다.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지정하
여 심사의 진행을 주시케 할 수 있다. 단 위
원은 심사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33조 석사학위논문 제출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34조 석사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
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외국어 중 1종으
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
우 외국어로는 논문을 작성할 시는 국문초록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1조의 구술고사는 백점을 만점으로 하
여 각 위원의 평점성적의 평균이 60점 이
상이어야 한다.

제36조 석사학위수여는 별지서식(3)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9장 부칙

제37조 본 학칙은 195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납입금, 기
타 본 학칙에 특히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
에 관하여는 본 대학학칙을 준용한다.
(서식 생략)

대학원의 설치에 제1회 졸업생이 졸업하
는 것을 겨냥하여 그 진로를 개척하기 위함
이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산업전선에 나
아갔지만 일부 학구적인 학생들의 지속적
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설치
한 것이다. 마침 대학원이 설치된 1958년은
인하공과대학의 2년제 개편문제로 학내외
가 시끄러웠던 미묘한 시기였다. 대학에서
는 대학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과학자 양

성을 꾀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반면 정부
에서는 당장 필요한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학제를 개편하고자 하여, 인하공과대학으
로서는 기로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제1회 대학원 신입생의 선발은 새로 제
정된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1958년 3월 하
순 입학시험을 실시한 다음 3월 29일 입학
전형사정을 거쳐 15명의 입학지원자 중 10
명을 선발하였다. 금속공학 전공 1명, 기계
공학 전공 2명, 전기공학 전공 2명, 화학공
학 전공 5명이었다. 대학원은 1958년 4월
11일 역사적인 개강을 하였다.

1958년 6월 23일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
였다. 대학원장을 겸직하게 된 최승만 학장
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규일, 이량, 이시규,
한만춘, 이규송, 최춘호 교수를 위원으로
하였다. 위원회는 대학원의 입학 진학 수료
인정 등에 관한 사항, 학과와 전공과목 변
경, 수업계획 및 공개강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 대학원
제규칙 제정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시험과
목 등을 재조정하여 물리와 화학을 시험과
목에서 제외하고, 입학지원자의 추천자격
을 완화하여 4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을,
최종 2개 학년 평균성적 B학점 이상으로 고
치고, 대학원생의 부족한 어학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특별 외국어강좌(영어 및 독
어)를 설치하였다. 12월에는 선박공학 전공
을 증설하기로 하여 1959년 2월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초창기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
다.

금속공학전공 : 제철특론, 비철야금특론, 선광야금특론, 제조야금특론, 철야금실험, 특수야금특론, 제강특론, 전기야금특론, 비철야금실험, 전기야금실험, 물리아금특론, 금속재료특론, 금속재료실험, 물리아금실험, 제조야금실험

기계공학전공 : 수학특론, 원자핵물리, 해석역학, 기계공학실험, 열역학특론, 유체역학특론, 기구학특론, 재료역학특론, 금속재료실험, 계측기기, 열전도론, 기계역학특론, 산업기계특론, 원동기특론, 기계공학윤강

전기공학전공 : 원자핵물리, 물성론, 전자기기이론, 수학특론, 해석역학, 회로망특론, 전기기계특론, 전력공학특론, 발전공학특론, 자동제어, 무선공학특론, 유선공학특론, 전자공학특론, 반도체론, 전기기계실험, 자동제어, 전자공학특론

선박공학전공 : 유체역학특론, 열역학특론, 구조역학특론, 원자핵물리, 수학특론, 해석역학, 선박구조설계특론, 선박설계특론, 선용기관설계특론, 선형시험특론, 기관동역학, 선용추진기론, 이론조선학특론 및 윤강, 선용기관특론 및 윤강

화학공학전공 : 유기화학특론, 분석화학특론, 물리화학특론, 무기화학특론, 수학특론, 원자핵물리, 화공열역학, 고분자화학실험, 재료화학특론, 통계역학, 양자화학, 분석화학실험, 전열론, 화공수학, 고분자화학, 합성특론, 물리화학실험, 흡수 및 추출론, 화공장치설계, 합성실험

이렇게 시작한 대학원은 1960년 3월 24일 금속공학 전공 1명, 선박공학 전공 2명, 전기공학 전공 2명, 화학공학 전공 3명 등 8명의 제1회 공학석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4. 1958년 부설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설립과 학제개편파동

(1)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설립

공업입국을 위하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의 후원, 그리고 국내의 동포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은 동양의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보스톤에 있는 미국의 명문 M.I.T.를 지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꿈에 불과하였다. 한국전쟁의 폐허 더미 위에서 전쟁복구가 시급한 현실이었고, 고급과학기술자보다는 현실적으로 곧바로 활용할 기술자가 더욱 필요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실업고등학교와 대학이 많지만 사회 일선에서 실제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를 단기간 내에 재교육시킬 뿐 아니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학교의 설립을 문교부에 지시하였다. 운크라 단장인 쿨터 장군을 대동하고 인하공과대학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업보도학교의 개설을 학교당국에 당부하였다. 국책적인 관점에서 새로이 공과대학으로 출범한 인하공과대학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1955년 4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 「직업보도학교를 확대하여 기계학과 기술을 발전케 하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보도학교를 확대시켜야 전국에 기계학과 기술을 숙히 발전시킬 수 있스니 우선 긴급한 전화전선 수도 철공 목공 등의 물건이 잇서야 되며 또 집문꼬리 지투리 파이푸 물고동 등을 만히 만들어서 집을 짓게 되면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쓰고 외국에서 사지 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고등학식이나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외국에서 청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배우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기술자가 적지 안흐나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일인의 제도만을 알고 서양의 제도를 모르는 것이니 서양제도를 배워 고쳐서 우리는 일인이 작고 알게 만드는 것을 조와 하지 안코 실딱하고 튼튼하게 우리 성격에 맞도록 해서 고쳐서 배워야 그 사람이 또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직업보도학교를 만들어서 쿨터 장군에게 교사될 사람을 청해 달라고 하여 기간과 보수 등을 약속하고 인하공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만히 배우고 발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긴급한 전화, 전선, 수도, 철공, 목공 등의 물건을 만들고 심지어 집문꼬리, 지투리, 파이푸, 물고동 등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짓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등학식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를 양성하면 되는 것이므로 직업보도학교를 만들어서 인하공과대학에서 가르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학교 당국에서는 단기직업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직업보도학교를 개설하였다. 1955년 5월 5일 인하공대 내에 기술보도학교를 부설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 5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직업기술보도학교를 개설하고, 인하공대

교수들이 수도기술과, 배선기술과, 전화기술과 등 3개과에 약 100명의 기술자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1955년 8월 2일부터 2주일 동안 문교부 주최로 기계과, 전기과, 화학과, 광산과, 토목과, 건축과 등의 중고등학교 실업교사의 재교육을 본교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업보도학교 등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상설화하고자 하였다.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의 경제조정관실)의 원조자금을 계기로 인하공대에 중앙종합직업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승만 학장은 1958년 1월 중앙종합직업학교 설립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58년 2월 13일 「文技제116호」로서 입지적 조건과 발전상으로 보아 비교적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하공과대학 부지 내에 중앙직업보도학교를 설치하고 산업전사의 교육에 매진하도록 인가되었다. 그리하여 10월 20일에는 직업기술자양성부 제1기생을 모집하였다.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목적〉

산업발전의 기본 요소의 하나인 숙련직공 및 숙련 기술자 양성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이 대통령 각하의 분부에 의하여 1955년 5월 25일자로 개강하여 배선기술과, 수도기술과, 전기기술과 등 3과에 약 백명의 기술자 재교육을 단기간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거니와 그 후에도 이 사업의 필요를 통감하여 중앙직업학교 설치의 제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산업발전의 선진국 미국의 예를 들면 가주(加州)만 하더라도 직업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중앙직업학교 수만 무려 54개교나 됨에 비추어 일국에 중앙직업교육기관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바를 할 것이다. 입지적 조건과 발전상으로 보아 비교적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하공과대학 부지 내에 중앙직업보도학교를 설치하고 산업전사의 교육 및 재교육에 매진코자 하는 바이다.

인천의 인하공과대학에 직업학교의 종합적이고 중앙적인 기관이 부설된다는 것은 인하공과대학이 국책적 입장에서 설립된 학교임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중앙종합직업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본교는 교육법 제1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연마케 하며 창조적 능력과 실기적 연구심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전공부(초급대학정도, 수업연한 2년)에 기계기술과, 전기과, 화학기술과, 인쇄업무과, 건축기술과, 공예가공기술과, 금속가공기술과, 자동차기술과, 선광기술과, 선박기술과 등 10개과 20학급을 설치하였다. 직업보도부(고등학교정도, 수업연한 3년)에는 기계기술과, 전기과, 화학기술과, 인쇄업무과, 건축기술과, 공예기술과, 자동차기술과, 선광기술과, 선박기술과 등 9개과 30학급을 설치하였다. 학생정원은 50학급에 매학급당 30명씩 1,500명을 책정하였다. 직업기술자양성부(수업연한 1년)

에는 기계기술과, 전기과, 화학기술과, 인쇄업무과, 건축기술과, 금속가공기술과, 공예기술과, 자동차기술과, 선광기술과, 선박기술과를 설치하고 학급을 편성하지 않고 수시로 입학하게 하여 단기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중앙종합직업학교 초대 교장은 본교 최승만 학장이 12월 22일 겸임하게 되었다. 1959년 2월 28일, 직업보도(職業輔導)를 위하여 기술을 연마하여 온 직업기술자양성부 제1기생의 첫 수료식을 가졌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시설의 완비를 위하여 모집을 보류하였던 직업교육전공부와 직업보도부의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하여 4월 10일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중앙종합직업학교는 단기기술자양성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정도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과정, 나아가 초급대학 정도의 기술교육전공과정의 단계적 기술교육과정을 완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학한 학생은 100명도 되지 않아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조촐하게 출범하였다. 이 학교는 인하공과대학의 부설이었기 때문에 인하공대의 교수와 시설을 활용하였다.

(2) 학제개편 파동

중앙종합직업학교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인하공과대학의 2년제 초급대학화를 꾀하는 정부의 방침에 맞서, 학내외의 반대투쟁이 일어났다. 소위 학제개편 파동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하공과



중앙종합직업학교

가를 받아 중앙종합직업학교를 부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는 대학원도 설치하여 인하공과대학이 전문적인 과학기술자의 양성에도 첫발을 내딛은 때였다. 직업학교의 부설로 인하공대는 그야말로 하급 기술자에서부터 전문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종합직업학교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1958년 4월 차라리 인하공과대학을 2년제의 직업학교로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각 분야에 재

만만치 않았는데, 마침 직업학교를 만들면 O.E.C.에서 기부금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문교부 당국자와 O.E.C. 관계관이 인하대학 이사회측과 회동하여 4년제의 인하공과대학을 2년제의 종합직업학교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편방침은 1958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에 “4년제의 인하공과대학을 2년제의 직업학교로 개편하려는 수속이 문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대학 관계자는 물론 인천 시내 유지들과 전국의 식자들이 강력하

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에는 세상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인하공과초급대학의 설치에 대한 구상을, 1958년 5월 2일 문교부장관이 경무대 비서실 박찬일 비서관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하공과초급대학 설치에 대한 일

文高 4291년 5월 2일

수신인 - 경무대 비서실 박찬일 비서관

발신인 - 장관

재단법인 인하학원으로부터 현 인하공과대학을 개편하여 인하공과 초급대학을 설립하되 별안에 의하여 O.E.C.측과 시설원조에 필요한 합의를 보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온 바 문교부로서는 좋다고 사료되옵기 대통령 각하께 보고드리 주시기 바라나이다.

- 부신: 인하공과초급대학에 설치될 과정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일부 첨부하나이다.

- 취지: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거하여 기해 설치된 4년제 공과대학인 인하공과대학을 개편하여 고급 직업학교로 인하공과 초급대학을 설치한다. 동 초급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거하되 직업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O.E.C.와 재단법인 인하학원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다.

인하공과초급대학 설치에 대한 재단법인 인하학원과 O.E.C.간의 합의서

제1조 현존 인하공과대학을 인하공과초급대학으로 개편하여 1959년 3월부터 학생을 모집하는 동시에 인하공과대학 학생모집은 문교부 책임 하에 중지한다.

제2조 현존 인하공과대학의 인적 물적 제시설을 1959년 4월 1일자로 인하공과초급대학에

이관시킨다. 단 인하공과대학의 현존 학생에 대하여는 전학생 졸업시(1962년 3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인하공과초급대학의 시설을 이용케 한다.

제3조 인하공과초급대학에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과초급부와 직업연수부를 둔다.

제4조 인하공과초급대학에는 한국의 공업발전상 모든 필요한 기술부문의 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충분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조성한다.

제5조 인하공과초급대학에 소요되는 건물기구 및 기타 필요한 제시설을 1958년도부터 1961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O.E.C.측은 이 사업 원수를 위하여 충분한 원조를 하기로 한다. 단 인하공과초급대학 운영에 필요한 현존 건물 외에 1958년도에 한한 소요건물은 재단법인 인하학원이 부담한다.

제6조 인하공과초급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법인 인하학원이 부담한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하공과대학의 사정을 감안하고, 국가적 기술발전의 필요성과 O.E.C.의 지원조건을 배경으로, 4년제의 인하공과대학을 2년제의 인하공과초급대학으로 변경하여 한국의 공업발전에 당면한 기술부문을 발전시키지는 것이고, 이듬해인 1959년부터 신입생을 뽑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재학생 일동은 중앙과 지방의 각 일간신문에, “인하공과대학에 직업보도학교를 부설하는 것은 무방하나, 2년제의 직업학교로 격하시키는 것은 절대반대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게재하였다. 그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우리 인하공과대학은 전민족의 정성어린 협조와 성원을 얻어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700여 인하학도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확충해 가는 대인하(大仁荷)에도 과도기적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음은 지난 5월 10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로서 알고 크게 놀람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악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인하공과대학이 건실무비(堅實無比)한 대학으로 공부하는 곳이라 함은 자타 공지의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확충의 일 방편으로 중앙종합 직업학교라는 2년제 직업학교에 불과한 기관으로 격하시키려 함은 동양제일의 공과대학을 지향하는 대인하에 있어 일대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하옵건데 창공에는 인공위성이 나르고 육상에는 유도탄이 횡행하는가 하면 바다속 깊숙히는 전자잠수함이 꾀뚫고 다니는 초과학시대입니다.

과학의 빈곤을 느끼며 기술의 졸렬을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공원훈련을 기 근본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와 유능한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여 국가의 산업발전을 획책하므로서 나라를 부강케 하고 인류문화에 공헌할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대학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후진된 조국이 요청하는 바 후자의 절대 긴급성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건설과 문화향상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배움터 인하의 유구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700여 학도는 분연히 한데 뭉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원일치로 결의하여 이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결의사항

1. 우리 인하공과대학의 폐쇄를 전제로 하는 직업학교의 설립을 절대 반대한다.
2. 우리는 직업학교를 인하공과대학에 부설하면 이를 인정한다.
3. 우리 인하 700여 학도는 전 2항이 성취될 때까지

지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단기 4291년 5월 12일 인하공과대학 재학생 일동

동양제일의 공과대학을 지향하는 인하공과대학을 직업학교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직업학교를 병설하는 것은 수용한다는 점, 강력히 투쟁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정부의 초급대학 방침에 맞서 직업학교 병설론을 처음부터 투쟁의 목표로 삼았고, 이것은 결국 성취되었다.

같은 날인 5월 12일자 재학생들의 이사들에 대한 진정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정서>

이사님 제위 귀하

우리 인하공과대학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국민의 영도자이신 이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재단이 사 여러분의 끊임 없으신 사랑과 열성어린 노력으로 설립되었음을 생각할 때 위대한신 이 대통령 각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재단이사 제위께 사의를 표하옵니다.

도리켜 보건대 단기 4287년 4월 우리 대학이 6공학부로 창설된지 어언간 4개 성상이 흘러 금년 3월에는 제1회 졸업생 121명이 새 공학사로 사회에 배출하였음은 물론 4월에는 두 공학부(병기공학부, 응용물리학부)의 증설과 대학원의 신설을 보게 되었음은 오로지 이 대통령 각하와 현 재단이사님들의 끊임없으신 애호의 덕임을 믿고 저희들 7백여 공학도들은 재삼재사 감사의 뜻을 표하옵니다. 우리 대학의 창설이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동양 유일무이의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 4년제의 공과대학을 폐쇄하고 2년제의 직공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종합 직업학교를 신설하려고 방금 추진중에 있으니 이

것은 우리 7백 여 인하학도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에 중앙종합직업학교가 부설되어 4년제의 인하공과대학에 병설되는 이 마당에서 비로서 대인하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공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7백 여 우리 인하학도는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 공업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개조하고 창조하여 우리 민족의 급선무인 공업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인하공과대학을 완전히 폐쇄하고 직업종합학교를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국부이신 이 대통령께옵서 창설하신 본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처하고 있는 금일 우리 7백 여 학생들은 이 대통령 각하와 아울러 재단이사님들에게 현 본 대학을 존속시키고 이에 부설되는 중앙종합직업학교가 설립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대학은 폐쇄하고 O.E.C.원조에 의한 중앙종합직업학교는 필요치 않사오니 현 저의 단독 인하공과대학만 존속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재단이사 제위께 진정하옵니다.

단기 4291년 5월 12일 인하공과대학재 학생 일동

5월 13일 재학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올린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진정서〉

우리 인하공과대학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국민의 영도자이신 리 대통령 각하의 끊임 없으신 사랑과 열성어린 노력으로 설립되었음을 생각할 때 위대하신 리대통령 각하께 저희 모든 인하공과대학생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4291년 처음으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함과 두 공학부의 증설이며 인하공과대학원의 신설을 하여 주셨음은 오로지 리 대통령 각하의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키워주시는 홍은으로 믿고 다시 감사

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리 대통령 각하의 저희 대학 창설리념은 동양에서 제일가는 공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 4년제의 인하공과대학을 완전히 폐쇄하고 2년제의 기술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종합직업학교” (Vocational training center)를 신설하려고 방금 문교부 당국에서 추진 중에 있으니 이것은 우리 700여 명의 인하공과대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에 중앙종합직업학교가 부설되어 4년제의 인하공과대학과 병립되므로서만 이 대인하공과대학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700여 명 우리 인하공과대학생은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 공업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개조하고 창조하여 우리 민족의 급선무인 공업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 인하공과대학을 완전히 폐쇄하고 중앙종합직업학교를 설립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국부이신 리 대통령께옵서 창설해주신 우리 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여 있는 이때 우리 700여 명 학도들은 위대하신 리 대통령 각하 전에 현 4년제의 우리 공과대학을 존속시키고 이에 부설되는 중앙종합직업학교가 신설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진정하옵니다.

단기 4291년 5월 13일 인하공과대학생 일동

인하공과대 설립과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민족의 태양이시며 국민의 영도자이신’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하공과대의 존속과 중앙종합직업학교의 병설을 진정하는 내용이다.

5월 15일 긴급소집된 학생총회에서는 운영위원장 홍성완 외 21명의 학생대표를 선정하여 ‘인하공과대학격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각 이사의 자택 문전에서 단식농성 데모에 돌입하고 개편안의 철회동의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을 천명하였다. 학생들은 이기붕 이사장택의 정원에서 인하공과대 격하의 철회를 진정하는 연좌농성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농성과 시위는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5월 23일자 평화신문에서 야당이나 공산파락치의 선동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보도할 정도로 인하공과대생들의 반대시위는 치열하였다.

5월 17일 인하공과대학학부형후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일 신문지상의 보도와 학교당국의 내용설명과 학도들의 진정 등으로써 비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인하공과대학 학제변경의 중대성을 알고 본 후원회 학부형들은 저들 자제의 장래문제와 귀교에 입학시킨 최초의 의도와 모순됨을 시정하기 위하여 거 5월 15일 먼저 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네 시간 동안 신중한 토의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학교당국과 그 관리에 책임을 갖으신 제위께 이를 건의하기로 전원일치 가결하였습니 이에 본 건의서를 올리오니 재삼 고려하시어 장차 민국 기술진영의 지도자가 될 청년학도들의 불안과 실망 중에서 애소하는 그 열망을 청허하십시오 현재 혼돈된 사태를 수습하여 주심을 갈망하옵고 이 건의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기

1. 문교당국의 변경목적은 기술자 단기양성과 수반되는 외국원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는 당초의 귀교 창립취지와 모순된 방침이며 공업기술진영의 설계 감독 교육 연구 등에 중사

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는 별개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단기양성문제

학부형은 물론 하와이 교포와 국내 일반국민은 이년제 직업학교로 전략함은 저 이들의 기대와 현실의 요구에 과도한 실망과 퇴보의 감은 미면할 것입니다. 한국공업계의 현실적 요구는 실제 직공의 부족보다 그 직공들을 움직일 지도적 기술자의 부족임은 모두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유도탄, 원자포와 원자탄 장착된 잠함정 등이 발명단계를 이미 경과하여 실제 국방과 전투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어찌 현 숙직공만 갖이고 국가의 방위력을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3. 재단이사진의 책임문제

학교운영을 좌우하는 중요문제는 전원 2/3 이상의 합의로써 합법적 결의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문서는 규정과 상반되는 성원미달의 집회로써 소수의 합의가 전원의 의향을 대표한 문서이오니 이는 이사진의 책임문제가 될 것입니다.

4. 재학생 처리문제

비록 재학생 교육은 종전대로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모교없는 졸업생은 뿌리없는 나무와 다를 것이 없고 현재 교수진영은 이탈되어 용두사미 격이 될 것을 우리 학부형들은 통탄하오며 국내의 정세가 가장 다사다난한 이때에 이같은 모순과 일반의 기대에 상반되는 방침을 재 고려하십시오 교내와 거리에서 애소하며 방황하는 학도들로 하여금 신급한 정상적 수업상태로 복구하도록 청허 하심을 바라나이다.

학부형들은 인하공과대가 기술자 단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원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처음의 창립취지에 맞게 공업기술

진영의 지도자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반대투쟁은 신문을 비롯한 각계
의 호응을 얻었다. 경인일보는 5월 16일 사
설에서 “인하공대의 직업학교 격하운동은
부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동양 제일의 공
과대학을 지향하는 동 대학을 한층 더 강화
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과학의 전당으로
이루어 놓을 것”을 요망하였다. 인천일보도
학제단축개편안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반
대운동 전개를 보도하는 한편 인천시가 입
을 직접적인 손실을 우려하였다. 서울의 평
화일보는 5월 17일 학생총회의 반대투쟁 상
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사회 각계와 언론기
관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음을 환기하였다.
동아일보도 5월 19일자 황철수설 난에서
“창설 후 몇 해도 못가서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지나친 조령모개식이며 일단 만들어
놓았으면 원래의 목적대로 발전시켜 나가
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도
팔면봉 난에서 “기술학교를 세우려고 대학
을 폐지하는 것도 문화향상인가”라고 비판
하였다. 경향신문은 5월 20일 사설에서 인
하대학 창설 때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의 담
화를 소개하면서 “O.E.C.의 원조가 물론 우
리의 실정으로서 매우 필요하다 하겠으
나 인하공과대학과 직업학교를 양존(兩存)
시키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교각살우(矯角
殺牛)의拙策(拙策)으로 나오는 것은 도저
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일
보는 5월 22일 사설에서 “인하공대의 격하
를 반대하며 현재의 이공과계 대학 내에 직
업보도학교를 병설케 한다면 경제적 부담

도 경감될 것이고, 실험시설의 공용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에 오히려 일석이조의 효과
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
고 있다.

인천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는 인하공대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
였고, 인천시 고등학교장회와 인천시 교육
회도 만장일치로 인하공과대학의 존치를 건
의하는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전달하였다.

인천시 의회의 건의서는 다음과 같다.

삼가 각하의 청복(淸福)을 비읍나이다. 위로 이 대
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해외 교포와 국내 동포의
성의를 한데 묶어 이룩한 인하공대는 비단 인천만
의 자량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의 과학발전을 약속
하는 한줄기 서광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MIT와 같은 공과대학 건설을 목표로
인하공대는 그 창립이념을 살리며 일취월장하는
도정에 있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흥행(欣
幸)으로 여겨온 바입니다. 금반 의외에도 현 4년제
의 공과대학을 폐쇄하고 2년제의 중앙종합직업학
교(초급대학)을 신설하려고 추진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인하공대가 지니
고 있는 국가적 사명과 민족적 요청에 비추어 해교
를 현 학제대로 존속하고 미비된 시설을 시급히 완
비함으로써 동양제일의 공과대학이 되도록 확충
하시는 동시 기술자의 단기 양성을 피하기 위한 직
업학교를 이에 부설하시어 한국과학의 급속한 발
전을 촉진하심이 시외에 적합할 것으로 통감하와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자감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단기 4291년 5월 일 인천시의회 의장 심덕기 근
상, 이대통령 각하

국가적 사명과 민족적 요청에 비추어 불

때 인하공대를 동양제일의 공과대학으로
키우고 기술자의 양성은 직업학교를 부설
하여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교수들과 후원회에서 학제개편을 반
대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계요로에 전
달하였다. 교수단은 대학의 폐쇄를 전제로
하는 직업보도학교의 설립에는 반대하며,
대학 내에 부설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취지
의 성명서를 5월 21일자 일간지에 발표하였
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서〉

인하공과대학은 이 대통령 각하의 절실하신 염려
와 하와이 교포 및 전국민의 정성어린 기금으로서
창설되어 문교당국과 이사제위의 물심양면의 절
대적인 후원으로서 현 미국의 MIT를 지향하는 대
인하로서의 발전을 목전에 두고 분투노력하여 그
약진상은 실로 괄목할만한 단계에 이르러 현재 13
만5천평에 달하는 광대한 정지(整地) 위에 착착 시
설을 확충하여 나가며 최 확장 이하 백여 명의 교
직원이 일체단결하여 학교를 운영하며 원자력, 병
기, 금속, 기계, 전기, 광산, 조선, 화학의 8공학부
와 대학원생을 합하여 700여 명이 한국의 유례없
는 평균 97% 이상의 출석률로서 학구에 전심전력
하고 있어 철저한 교육을 하는 대학이라는 사회의
정평이 자못 높은 바 있다.

또 이 대통령 각하의 수차에 선(?)한 유시를 받들어
본 대학에 직업보도학교를 부설할 것을 추진중에
있는 현금 의외에도 청천벽력격으로 현 4년제 인
하공과대학을 폐쇄하고 2년제의 직공양성의 직업
보도학교로 격하한다는 것은 과학교육을 부르짖
는 국내의 실정과는 반대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
사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다.

현 구미각국에 있어서도 인공위성 등의 자극을 받
아 과학기술교육의 재검토를 하며 전국적으로 여

론이 비등하고 있는 차제에 과학기술이 가장 미미
한 한국에 있어서 증설은 못할망정 명실상부의 공
과대학을 폐쇄한다는 것은 직공양성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로되 장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언
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래 인하공과대학의
부설기관으로서 직업보도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양
자가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서 상부상조하여 함
께 충실히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추진
중이든 바 천만의외로 인하공과대학이 없어지고
직업보도학교만이 남는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연고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인하공과대학 내에
직업보도학교를 부설하는 것은 원하나 인하공과
대학을 폐쇄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

1. 관공리, 전국민, 중고등학교학생, 하와이 교포, 기
업체 및 일부독지가들의 정성어린 기금으로 모쳐
림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을 폐쇄한다는 것은 그분
들의 의사를 배반하는 것이며 토지를 기부한 인
천시에 대하여서도 그 본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이론이 없는 직공교육만 가지고서는 선진과학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다.
3. 기간산업, 원자력, 병기 등은 직공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다.
4. 인하공과대학을 육성하려고 모여든 우수한 기
술교육진용이 무참히 와해된다.
5. 인하공과대학을 동경하여 운집한 재학생과 졸
업생의 모교상실로서 오는 대실망과 대동요가
없지 않을 것이다.
6. 34교의 중고등학교가 있고 30만 인구의 대인천
시에 대학이 전무하다는 것은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교수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성
명함.

1. 폐쇄를 전제로 하는 직업보도학교의 설립을 절
대반대한다.

2. 인하공과대학 내에 직업보도학교를 부설하는 것은 찬성한다.

3. 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과학기술 교육의 필요를 절규하는 교육자로서 끝까지 일치단결하여 매진한다.

단기 4251년 5월 인하공과대학 교수일동

교수단의 성명서까지 나오자 더 이상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학내외의 강경한 반대에 직면한 이사회는, 5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학제개편안을 철회하는 동시에 인하공과대학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직업보도학교를 부설하기로 결의하였다. O.E.C. 당국에서도 “원조는 수혜자측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문교부측에서도 이사회 의결의와 O.E.C. 당국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으로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1개월 간의 학제개편 파동은 일단락을 보고, 결국 인하공대에 중앙직업종합학교를 부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탄생 배경이 되는 것이다.

제3절. 교무·학사행정

1. 학칙의 제정

1954년 4월 1일에 제정된 인하공과대학 학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목적과 편제

제1조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공학에 관하여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유위(有爲)한 동량의 재(材)를 양성하므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와 그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기계공학과 120명	조선공학과 120명
광산공학과 120명	금속공학과 120명
화학공학과 120명	전기공학과 120명
계 720명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3조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일배 반으로 한다.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 전 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치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 학년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 나뉜다.
제1학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학기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제5조 수업일수는 매학년 21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춘기휴가 3월 21일부터 동 31일까지.

하반기휴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기휴가 12월 21일부터 익년 1월 20일까지.

학기말휴가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요일.

1월 1일부터 동 3일까지.

3·1절(3월 1일), 식수일(4월 5일), 개교기념일(4월 24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수절(추석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국제연합일(10월 24일), 성탄절(12월 25일).

제7조 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제5조의 수업일수 외에서 임시휴업을 하는 일 이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내에서도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 있을 때는 실무 또는 실습 등을 과(課)하는 일 이 있다.

제4장 부속도서관

제8조 본 대학에 부속도서관을 두고 도서 기타의 문헌과 연구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열람에 공(供)한다.

제5장 입학(전·편·재입학 포함)

제1절 시기

제9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0조 본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고등학교, 사범학교, 구6년제 중학교 또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문교부시행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 4.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 5.기타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

제11조 본 대학 제2학년에 전·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제1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3·4학년에는 전·편입학을 허가치 않는다.

제12조 재입학할 수 있는 자는 퇴학 후 2년을 경과치 아니한 자라야 한다.

제3절 절차

제13조 본 대학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고사료 ... 환을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단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2호의 증명서 대신 학적부 등본을 첨부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만한 서류.
2. 과거의 성적증명서(부득이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출신학교장의 추천서(경우에 따라 기타 인사의 추천서도 인정할 수 있음).
4. 기타 필요한 서류.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 기제출서류 또는 금액은 이를 반환치 않는다.

제14조 전조의 지원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와 인물고사(人物考査)를 행하는 외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력고사를 행한다.

제15조 제1학년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때 또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선발고사를 행한다. 관공서장으로부터 특히 관공비생으로 위탁이 있을 때에는 선발고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상이군인 기타 국가 또는 민족에 특히 유공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자 선발에 있어 특별 취급할 수 있다. 선발고사의 과목, 기일 및 방법 등은 그 시마다 정하여 발표한다.

제16조 편입학, 전입학과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재입학은 퇴학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2회 이상 허가치 않는다.

제17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호적초본(부득이할 때에는 기류초본)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 환을 납부하는 외에 등교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유없이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일이다.

제18조 보증인은 부형 기타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만한 자로서 부모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부모증인의 주소와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증인 또는 부모증인이 사망하였거나 혹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다시 이를 정하여 서약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과

제19조 학내 전과는 제2학년 초 10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전과한 자는 기득 학점의 여하를 막론하고

적어도 해 학과의 전공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장 휴학, 퇴학과 제적

제1절 휴학

제21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출원하여야 한다.

제22조 휴학기간은 통산 2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3조 병역(지원입대 포함, 이하 같다) 기타 교통불능 등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병역기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휴학한 자는 그 기간만료로서 복학한다. 단 그 기한 전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절 퇴학과 제적

제25조 퇴학(전·퇴학 포함)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학생으로서 下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치 않은 자.
 2. 무계출(無届出)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수업료 체납 2개월 이상에 선(?)하는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학장은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복적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제적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복적할 수 없다.

제8장 교과과 이수

제1절 교과과정

제27조 본 대학의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하고 필수과목은 일반교양과목으로 구분하여 그 과정을 발표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과목에 대한 학년별 배당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28조 학점은 1주 1시간씩 1학기간 수업을 1학점의 비례로 계산한다. 단 실습, 실험, 체육과 군사훈련은 1주 2시간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2절 수업

제29조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정한다.

제30조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이수과목에 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는 외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치 아니하면 해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1조 시험은 매학기 또는 매학년 말에 그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행한다. 단 과목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경우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하는 일이다.

제32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3조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되,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E급 이하는 낙제로 한다. 단 시험성적을 주로 하는 과목의 성적이 E급일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등급	평점
A(優)	90-100
B(善)	80-89
C(良)	70-79
D(可)	60-69
E(再考)	50-59
F(不可)	0-49

추시험으로서는 B급 이상, 재시험으로서는 C급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제4절 이수의 인정

제34조 전절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서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제35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 말로 한다.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학생은 매학기 22학점 내지 24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17학점 이하 또는 28학점 이상 이수함을 금지한다. 단 25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전학기의 성적 평균 B 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37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졸업논문 8 내지 10 학점을 포함하여 180학점 이상으로 하되 진급에 필요한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진급학년	최저학점
제2학년	42학점
제3학년	84학점
제4학년	125학점

제38조 전조의 최저학점을 취득한 자라도 각 학년에 배당된 필수과목의 학점을 취득치 못한 자에게는 진급을 인정치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 병역으로 인하여 소정학점을 취득치 못한 자에게는 가진급(1회에 한함) 또는 가졸업을 인정하고 복귀 후 소정과정의 이수를

완료케 한 후 정규진급 또는 졸업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에 이수한 내용 또는 학력고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최저학점 내지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제41조 전입학한 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전입학과 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전향 인정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42조 졸업논문은 제4학년 제2학기에 학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하여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4조 졸업생으로서 제35조 제2항의 해당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5조 학생은 따로히 정하는 교칙을 준수하여 전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이어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6조 다음의 경우에는 학생은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학내외를 막론하고 10명 이상이 집합코자 할 때.
2. 학외의 집회, 행사 또는 단체에 가담할 때.
3. 출판물을 내거나 또는 투고하고자 할 때.

전항 제3호의 경우에는 허가 후 다시 원고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학생이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도 지체없이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 결석이 7일(중간공휴일 가산)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공결(公缺), 기가(忌暇)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대하여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49조 학장은 학생이 그 본분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신 및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가한다. 단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명처분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제50조 본 대학에 학장 외에 좌의 교직원과 사무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참사, 주사, 서기.

교수 중 1인을 학감으로 하여 학장의 직무를 보좌케 하며 학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케 한다.

제51조 전조의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사무촉탁 또는 임시서기를 둘 수 있다.

제52조 본 대학에 교무과, 학생과 및 서무과를 두고 각과에 과장을 둔다. 교무과장과 학생과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겸보(兼補)하고 서무과장은 참사로서 보한다. 부속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겸보한다.

제53조 과장과 관장은 상부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사무를 관리하고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장 교수회

제54조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으로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5조 교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편·재입학을 포함한다),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훈육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6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서 개최한다.

제12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57조 수업료는 연액 ... 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단 신입학(전·편·재입학을 포함한다)자와 복학자에 대하여는 그 입학 또는 복학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기분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기분 ... 환 4월 15일까지.

제2기분 ... 환 10월 1일까지.

제58조 입학금은 ... 환으로 하여 입학이 허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케 한다.

제59조 휴학자의 수업료는 차기 이후의 분납액을 면제한다. 단 납입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에는 그 기부터 면제한다. 복학시는 그 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0조 수업료는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치 아니한다.

제61조 수업회비 기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수업료 납입시에 동시에 징수하는 일이 있다.

제62조 기납의 금액을 과오납입 이외에는 이를 반환치 않는다.

제63조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또는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

서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업료의 전액과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4조 학장은 수업료 체납 1개월 이상에 미치는 자에 대하여도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장 특종생

제1절 외국인 특별생

제65조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할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66조 외국인 특별생에는 학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67조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68조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2절 청강생

제69조 수강할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의 어떤 과에 대하여 청강을 희망할 때에는 학장은 학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는 한 청강생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청강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0조 청강생 지원자에게는 실력고사를 행한다. 청강생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고사료 ... 환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청강생이 학습한 과목은 매학기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 청강생은 매학기 1과목 또는 1단위(학점)에 대하여 ... 환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강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청강허가를 취소하는 일이다. 실무실습을 병(併)하여 출원할 때는 이에 요하는 실비를 따로 징수하는 일이다.

제73조 청강생으로서 그 과목의 수업시간 3분지 2 이상 출석하고 소정 시험 또는 고사에 통과한 때에는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74조 청강생으로서 1년 이상 수학하여 그 성적이 양호하고 대학입학의 자격이 있을 때에는 기수(既修)학점을 인정하여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75조 청강생으로서 성행이 불량하거나 또는 학규를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학장은 이를 제명한다.

제14장 부칙
제76조 본 학칙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부속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당분간 시행치 않는다.
제77조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정한다. 단 부속도서관이 개설될 때까지의 그 소관사무는 교무과에서 병행한다.

학칙은 교육목표, 입학, 수업, 교과이수, 성적, 규율, 직제, 교수회 등 교무 학사행정의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는 공학연구와 인격도야를 통하여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학생정원은 6개 학과 4개 학년 120명씩 720명으로 되어 있고,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였다.

2. 교수진의 구성·확충과 교육·연구의 활성화

(1) 교수진의 구성과 확충

초창기 교수진의 구성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인하대학에 우수한 교수진이 없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방 직후 고등교육기관이 난립 증가하였기 때문에 원래 부족하던 교수의 절대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하게 되었고, 특히 이공계의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원철 학장의 열성과 새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기대 때문에 훌륭한 교수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다른 대학의 전임교수가 겸임하는 경향이 많았다.
설립인가 당시 교수진의 연차별 정원계획을 살펴보면, 1954년에는 16명, 1955년 31명, 1956년 46명, 1958년 61명이었다. 그리고 국립대학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개학 당시의 교수진과 담당과목은 다음과 같다.

용한 교수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다른 대학의 전임교수가 겸임하는 경향이 많았다.

설립인가 당시 교수진의 연차별 정원계획을 살펴보면, 1954년에는 16명, 1955년 31명, 1956년 46명, 1958년 61명이었다. 그리고 국립대학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개학 당시의 교수진과 담당과목은 다음과 같다.

이 랑	교수	일반역학
박동길	교수	광물학개론
조광하	교수	화학개론
이종일	교수	전기학개론
우형주	부교수	물리
박평주	조교수	화학



개교시의 인하공과대학 교수진

이정근	전임강사	화학
이인흥	전임강사	영어
송기선	전임강사	수학
김동원	전임강사	도학·수학
조규중	전임강사	물리·수학
임택기	전임강사	수학
최병성	전임강사	수학
이태극	강사	국어
김학상	강사	음악
김운호	강사	교련

개교 당시 13명의 전임교수와 3명의 강사로 발족한 교수진은 1958년 말에는 70명으로 증가하였다. 교수 11명, 객원교수 4명, 대우교수 6명, 부교수 16명, 대우부교수 2명, 조교수 16명, 전임강사 9명, 강사 6명이었다. 1961년 4월에는 교수 14명, 객원교수 4명, 대우교수 5명, 부교수 18명, 대우부교수 1명, 조교수 11명, 전임강사 5명, 강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1961년도의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김여제	교수	영어
신영목	교수	수학
김석영	교수	도의
이인흥	교수	영어
최춘호	교수	수학
최승하	교수	체육
현수길	교수	영어
김원표	부교수	국어
임택기	부교수	수학
엄기준	전임강사	영어
남윤악		문화사

이상익	교수	물리화학, 전기야금학, 금속물리학
최호영	대우교수	야금학, 시금학, 희유금속학
이계완	부교수	철야금학, 제조야금학
박평주	대우부교수	비철야금학, 비철재료학
김수영	조교수	금상학, 금속재료학, 물리야금학

유병철	교수	내연기관, 열역학, 제도
이량	객원교수	재료역학, 기계역학, 일반역학
황병구	부교수	수력기계, 기계공학, 제도
김동원	부교수	열기원동기, 기관 및 열기기관
강명순	교수	기계제작법
이규송	부교수	기계설계
서정일	강사	기계공학

김규일	교수	광산기계, 채광학
손병찬	교수	선광학, 측량, 광산평가
박동길	대우교수	광물학, 광상학
정영식	부교수	채광, 발파
윤석규	부교수	지질, 암석, 광물개론
오재현	조교수	채탄, 시설
김재극	강사	화약학

이종일	대우교수	전력, 고전압, 전기설비
우형주	대우교수	전기자기, 조명, 전기응용
이주근	부교수	유선공학, 전기회로, 전기공학
김원	조교수	전기공학, 전기기계, 전기회로
김영조	조교수	전기재료
고경식	조교수	전자공학, 무선공학

김재근	대우교수	기본설계, 목선
인철환	부교수	선박기관, 열역학
신창우	부교수	선박계산, 선박공학
조규중	부교수	선형학, 유체역학, 수리학, 제도

신병식	교수	무기화학공업
안동혁	객원교수	공업화학개론
김동일	객원교수	유기화학공업(섬유, 화약)
조광하	객원교수	유기화학
석한균	부교수	일반화학, 유기화학공업
이현오	부교수	화학공학, 유기화학공업(고무, 피혁)
손주환	부교수	유기화학, 유기화학공업
이희수	부교수	무기화학공업, 연소공학
임진남	부교수	물리화학, 화공원리, 열역학
정기현	부교수	고분자화학, 유기화학공업
박기채	강사	물리화학

이규한	조교수	재료역학, 유체역학, 제도
손명환	조교수	공작, 설계, 제도, 기계구조
육평수	강사	탄도, 병기공학
박흥규	강사	탄도
박세윤	강사	병기공학, 실험
위상규	강사	로켓트, 분사추진

정중현	조교수	물리, 물리실험
김석연	전임강사	물리, 원자물리
최선근	강사	물리, 광학
정원모	강사	물리, 물성론
김종국	강사	화학처리, 동위원소실험
박정덕	강사	방사능, 원자물리
이종구	강사	역학, 물리

이병호	강사	노이론
박인용	강사	전기자기학

서영갑	전임강사	측량
-----	------	----

길정천	전임강사	제도, 역학
-----	------	--------

(2) 교수의 활동

초창기의 교수들은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54년 11월 9일 이원철 학장은 동남아태풍기상학회에 참석하였고, 1955년 4월 8일에는 제네바의 국제기상회의에 참석하였다. 1954년 10월 26일에는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공과대학협의회에 당시 교학처장이던 이량 교수가 참석하였고, 이 회의에서 본교는 기계공학, 금속공학, 조선공학의 3개 분야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11월 26일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문교부 주최의 전국공과대학협의회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 박동길, 조규중, 김동원 교수가 참석하였다. 대학발전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과 아울러 교수들은 개인적인 학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55년 4월 8일의 이사회에서는 “유자격 교수의 구득난에 감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본 대학 독자적으로라도 외국에 파견 양성토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교수의 대우에 대하여는 타 대학보다도 우대하여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로 하다”고 결의하

기도 하였다.

1958년 9월 2일에는 전기공학부 한판춘 교수가 문교부 파견으로 원자력 연구를 위해 영국의 Nottingham 대학에 유학하여, 1960년 11월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으며, 기계공학부의 김동원 교수도 1958년 9월 30일 문교부 파견 원자력 연구요원으로 서독의 뮌헨 공과대학에 유학한 뒤 1959년 8월 17일에 귀국하였다. 1959년 8월 25일에는 이량 교수가 미국의 공업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8월 30일에는 박동길 교수가 원자력원 파견으로 미국 및 일본 등지의 핵연료 생산공장 및 원자력 시설의 시찰을 위하여 출국하였고, 9월 4일에는 박기채 교수가 미국 뉴저지주의 Rutgers 대학에 연구를 위해 3년 예정으로 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밖에 1960년에는 금속공학과의 김수영 교수, 화학공학과의 임진남 교수, 원자력학과의 김석연 교수가 학술연구차 미국으로 유학하였다.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은 학내외의 연구보조금 지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959년 7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차 원자력학술회의에서 원자력학과의 김석연 교수는 “CP-5 원자로를 사용하여 SLAB의 Shielding의 계산”에 관한 연구발표를 하였다. 같은 해에 정중현 교수는 한국에서 최초로 400만 전자볼트 베타트론(전자가속기) 제작에 성공하여 과학계에 일대 개가를 올렸으며, 이어서 1960년 4월 “소형 베타트론의 제 특성측정 및 이것을 이용한 핵반응실험”의 연구로 원자력원으로부터 900,000원의 연구비를 지급받는 외

에 학내에서도 200,000원의 연구조성비를 지원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활동은 더욱 활발하여졌고, 그 성과로 1958년 11월 8일 제4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는 기계공학부 이규송 교수가 ‘비스 스프링’을 설계한 공로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1959년 7월 17일에는 광산공학과 박동길 교수가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함으로써 본교 학술연구의 성가를 대외적으로 크게 높였다.

3. 학과편성과 교과과정

(1) 학과편성과 증설

개교 당시 학과 및 학생정원은 기계, 조선, 전기, 화학, 금속, 광산공학부에 각 학부별 30명씩 1개 학년 180명이었다. 4개학년에는 각과 120명씩 모두 720명이었다. 그런데 1956년 12월 20일자 문교 제3867호의 대학설치기준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대학정비요강에 따라 1957학년도부터 광산공학부 학생정원 20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은 700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1957년 11월 9일 학부장회의에서는 6개 공학부 외에 병기공학부, 원자력공학부, 공예공학부, 건설공학부 등 4개 공학부의 증설을 결의하여 교수회에 회부하였다. 11월 11일 교수회에서는 그 중 우리나라 공과대학에서 전혀 전공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병기공학부와 원자력공학부를 1958학년도부터 우선 증설하기로 결의하였

다. 이 증설안은 12월 2일의 이사회에서 다시 수정되어 병기공학부와 응용물리학부의 증설로 결정되어 문교부에 신청하였다. 문교부에서는 1958년 1월 25일자로 병기공학부 160명, 응용물리학부(원자력공학전공) 160명의 증설을 인가하였다.

병기공학부와 응용물리학부가 증설된 것은 다분히 국가정책적 성격이 없지 않다. 이들 학과의 증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1957년 12월 3일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이 인하공과대학장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학부 증설 취지에 대한 의견서〉
현대과학의 발전은 인공위성 및 인공 운석인? 경이적인 발전을 이르고 있는 이때, 아국의 후진성을 타개키 위한 시도로서 금번 귀 대학에서 병기공학부 및 원자력공학부를 증설하여 국방위와 사회 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획기적인 조치에 대하여 군으로서 심심한 사의와 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진국가인 미국에서도 육해공군 3개 분야에 걸쳐 병기공학 즉 각종 비밀병기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군사용 기계의 연구발전은 일반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차체에 귀 대학에서 병기공학부 및 원자력공학부를 증설하여 군사 화학의 발전향상을 도모코저 함에 있어서 군은 가능한 한도 내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귀 대학의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같은 날 공군참모총장이 보낸 다음의 공문도 유사하다.

이번 귀 대학에서 병기공학과 원자력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부를 증설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미력이

나마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과학연구의 촉진을 바라는 마음 한결같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 귀 대학에서 취하시는 조치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찬동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귀 대학에서 의도하신 바 성과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과학수준이 세계 선진국가들에 비길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을 빌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 국방력 증강에 많은 공헌을 하여 주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귀 대학과 특히 귀 대학의 공학부에 앞으로 많은 발전과 영광이 있을 것을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학과증설과 함께 학부의 정원도 1957년 12월 17일 증원을 요청하였고 문교부에서는 1959년 2월 16일 기계, 전기, 화학공학부에 각 40명씩 120명의 증원을 인가하였다. 1959년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이 되었다.

금속공학부	120명	기계공학부	160명
광산공학부	100명	전기공학부	160명
조선공학부	120명	화학공학부	160명
병기공학부	160명	응용물리학부	160명
계	1,140명		

학과증설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1959년 11월 10일 이사회에서는 토목공학부, 건축공학부, 공업경영학부 등 3개 학과의 증설, 응용물리학부의 원자력공학부로의 개칭을 결의하고, 문교부에서는 1959년 12월 1일자로 응용물리학부를 원자력공학과로 개칭하는 것을 인가하였다. 동시에 문교부는 학

부로 하고 있는 것을 학과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각 공학부를 학과로 개칭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60년 2월 20일 토목공학과 120명, 건축공학과 120명의 증원을 인가받음으로써 10개

공학과에 학생정원 1,380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학생정원의 변동과 지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총정원	지원자수	입학자수	경쟁률
1954	720	397	179	2.2
1955	720	618	181	3.4
1956	720	759	175	4.3
1957	700	451	176	2.6
1958	1,140	940	332	2.9
1959	1,140	548	144	3.8
1960	1,380	981	378	2.9

총 정원이 720명에서 1,000여명을 상회하는 공과대학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각년도 입학 경쟁률은 3:1 정도이다.

1962년 현재 각 학과별 재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금속공학과	40	49	28	18	135
기계공학과	55	106	86	82	329
광산공학과	39	73	29	23	164
전기공학과	46	96	75	75	292
조선공학과	38	35	21	18	112
화학공학과	29	96	50	50	225
건축공학과	44	50	17	0	111
토목공학과	44	59	16	0	119
합계	335	564	322	266	1487

(2) 교과과정의 편성과 개편

개교를 앞둔 1954년 4월 3일 학부장회의에서는 1954년도 제1학기 교과과정을 편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박창해 교수 담당, 2학점), 문화사(조규동, 1학점), 영어(이인홍, 3학점), 수학(김동원, 조규종, 임택기, 송기선, 최병성, 3학점), 역학(이량, 2학점), 물리(우형주, 조규종, 2학점), 화학(박평주, 이정근, 3학점), 도학(김동원, 2학점), 광물학개론(박동길, 2학점), 전기공학개론(이종일, 2학점), 화학개론(조

광하, 2학점), 역학개론(이량, 2학점), 군사학·체육(강사, 1학점), 합계 22학점.

교양과목으로 국어 2학점, 문화사 1학점, 영어 3학점을 편성하고 기초과목으로 수학, 역학, 물리, 화학 과목을 2-3학점씩 두었다. 그리고 공학의 개론과목이 있고, 그밖에 군사학·체육이 1학점 편성되었다. 모두 22학점 29시간으로 편성되었다.

학점배정은 통상 주 1시간당 1학점으로 산정하되 연습, 실험, 제도 및 체육 등은 주 2시간당 1학점으로 하고, 특히 영어 및 수학은 학습의 강화를 위하여 주 5-6시간당 3학점으로 산정하도록 학부장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954년 4월 2일 학부장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수 상의 기본방침을 마련하였다.

1. 수업시간은 1교시 60분(50분 수업, 10분 휴식)

으로 한다.

2. 주당 30-33시간의 수업을 부과한다.
3. 기초과목인 영어, 수학, 물리에 치중한다.
4. 광산·금속공학부에 광물학개론, 전기공학부에 전기공학개론, 화학공학부에 화학개론, 기계·조선공학부에 역학개론을 주당 2시간씩 해당 학부장이 담당 수업한다.
5. 1교실 당 수강생 수는 60명을 원칙으로 한다.
6. 2개 공학부 합동수업으로 하며, 광산·금속공학부, 기계·조선공학부, 화학·전기공학부로 합반한다.
7. 출·결석을 엄히 단속한다.
8. 휴강, 결강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강을 하여야 한다.
9. 덕성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문화사 시간에 윤리 도덕을 강의한다.
10. 교수는 최소한 3일 이상 출강하여야 한다.

1954년 제2학기의 교과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역학	광물학개론	화학개론	전기공학개론	도학	음악	역학연습	체육	계
금속	시간	2	5	6	3	3	2	2			2	1		2	28
	학점	2	3	3	3	3	2	2			2	1		1	22
기계	시간	2	5	6	3	3	2				4	1	1	2	29
	학점	2	3	3	3	3	2				3	1	1	1	22
광산	시간	2	5	6	3	3	2	2			2	1		2	28
	학점	2	3	3	3	3	2	2			2	1		1	22
전기	시간	2	5	6	3	3	2			4	2	1		2	30
	학점	2	3	3	3	3	2			2	2	1		1	22
조선	시간	2	5	6	3	3	2				4	1	1	2	29
	학점	2	3	3	3	3	2				3	1	1	1	22
화학	시간	2	5	6	3	3	2		4		2	1		2	30
	학점	2	3	3	3	3	2		2		2	1		1	22

1954년 2학기에는 1학기의 방침을 변경하여 각 공학부별로 학수과목과 학점을 규정하였다. 공학부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1957년에는 개교 4주년을 맞이하여 큰 개편을 단행하였다. 초창기 교과과정은 매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해에는 특히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195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1958년의 교과과정에, 1958년도 신설된 병기공학과와 응용물리학과를 포함하여, 다소 변경된 1960학년도 교과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학년은 교양학과로 편성하여 일반교양과 기초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교양에는 도덕, 국어, 영어, 독어, 그리고 음악과 체육이 포함되고, 기초과목으로는 수학, 물리, 화학, 도학을 개설하였다.

2학년에서는 교양과목으로 문화사, 영어, 독어, 체육을 가르치고, 기타 기초과목은 학부별로 정하였다. 3학년의 교양과목은 체육만을 두어 체력단련을 강조하고, 전공과목을 주로 하였으며, 4학년에서는 오로지 전공과목을 가르쳐 과학기술의 습득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4. 학사행정

(1) 학생선발과 전·편·입학제도

문교부의 대학입학생 선발제도의 변경

은 본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8년 본교에서는 유시험제도와 무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입학지원자격은 문교부의 시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1.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2. 대학입학자격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5.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전 각호 해당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959년에는 1958년도와 비슷하나 후기에서 전기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1960년에는 문교부의 대학입학자 선발요령에 따라 신입생 선발방침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무시험전형제를 채택하였다. 입학사정에서는 출신고등학교 성적의 석차, 최근 2년간의 본 대학 입학성적과의 상관회귀선을 적용하였다. 특히 사정에서는 출신고등학교의 성적 중 영어와 수학의 성적을 많이 고려하였다.

창립초기에는 대학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과, 전학 및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7년 전후 병역법의 개정으로 군입대자가 속출하게 됨에 따라 현저하게 결원이 생긴 학과에는 편입학생을 모집하여 보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958년 2월 26일의 교수회에서 결원이 생긴 학과에 한하여 2, 3학년에 편입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2) 수업과 성적

면학분위기의 조성고 학구적 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초창기에는 교수들이 수업에 전심전력하였다. 한 학기에 2-3회 정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기초과목인 영어 및 수학은 매주 1회의 임시시험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독려했다.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들은 방학중의 특강을 통하여 실력을 보충하게 하였다. 1학년에서 36학점 미달자 또는 평균 60점 미달자는 무조건 퇴학조치하였다. 또한 소정의 강의시간에서 4분의 1 이상을 결강 또는 결석하면 그 학과목의 성적이 무효가 되는 4분의 1선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였다. 개학 직후와 방학 직전의 결강과 결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3배로 가산하는 벌칙을 세움으로써 결강 및 결석을 철저히 단속하였다. 출석률은 매주 학부별로 등급을 정하여 발표하였고, 학년말에 무결석자에게는 개근상을 주어 출석을 독려했다.

1954년 제1학기말인 9월 7일 1학기 학업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학부장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성적산출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험은 임시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임시 시험 성적 40%, 학기말 시험 성적 60%로 정하였다. 그리고 평소의 성적을 별도로 정하여 각 시험(임시 및 학기말)마다 10점 이내에서 적당히 참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계특별강의 수강자는 임시시험과 비교하여 좋은 편 성적을 취하되 평소 성적 점수에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였다.

성적순위의 결정은 칭중(秤重)평균에 의

하고 취득학점만으로 평균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확인하고, 9월 14일의 학부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제1학기 학점 및 성적평점의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총점 22학점으로 함
 둘째, 중간시험에 누락된 학생의 조치는 학부장회의에서 의결된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 성적의 평점에 의하여 처리하되 각 교수가 평시의 성적과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셋째, 체육학점은 출결 및 기타 기능을 참작, Passing제로 하고 총점수에는 삽입하지 않는다.
 넷째, 칭중평균 60점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섯째, 기초(期初), 기말(期末) 결석일수 산출에 있어서는 학기초, 학기말, 공휴일 전후의 1일 결석을 3배로 가산한다.

1957년에는 학사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종전에 진급소요학점 미취득자는 유급시키되 유급학년의 전과목을 재이수하도록 하였던 방침을, 1957년 4월 19일의 학부장회의에서 유급생의 기취득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기로 수정하였다. 또한 5월 13일의 교수회에서는 한 학기에 3회 실시하던 정기시험을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의 2회로 줄여서 실시하도록 변경하였다.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기말시험은 하루에 2과목씩 배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좌석제를 시행하였고, 1학년 재학생 중 14학점 미달자는 권고퇴학토록 하였다.

1957년도 2학기에는 추가시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시험 해당자에 대하여 500환의 수험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재추가 시험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에 대하여 실시

하되 학과시험성적이 50-59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기로 하였다.

학점배정도 종래의 1학기 1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배정하던 방침을 완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1학기 2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57년에는 4학년 학생들의 졸업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였다. 먼저 학칙에 명시된 졸업논문의 제출에 대해서는 실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졸업설계 또는 특수연구로 대체하기로 하고, 학점은 최고 4학점까지 배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훈련의 학점 인정에 대해서는 전시특별조치령 개정령에 따라서 군입대자의 입영기간에 해당하는 군사훈련 또는 체육학점을 제대복학생에 한하여 인정하되, 군사훈련학점은 본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시기에 입영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4학년 재학생 중 1, 2, 3학년 재학 중 취득하지 못한 학점에 대해서는 50-59점을 받은 과목에 대해서만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출석미달자(수업일수의 3분의 2 이하)에 대해서도 시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재시험, 추가시험 응시자의 성적은 B급(80-89점) 내지 C급(70-79점) 이상의 평점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제1회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교당국의 각별한 배려에 의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59년 7월에는 졸업후 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4학년 2학기에 주 2시간의 교직과목을 설치하고 이를 이수케 할 것을 결정하였다.

(3) 현장실습제

개교 초창기에는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겨 공과대학에 꼭 필요한 실습공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기업체의 공장 및 광산 등지로 현장실습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1956년 6월 11일의 교수회에서는 하기방학에 지도교수 책임 하에 현장실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공학부장이 공장 기업체에 대하여 교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화학공학부에서는 애경유지회사의 공장과 동립산업주식회사, 전기공학과는 조선전업주식회사와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다.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론의 적용방법 및 구체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1957학년도에는 실업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문교정책의 일환으로 6월 5일 문교부가 실업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본교에서도 현장실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6월 17일 인하공과대학 실습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실습규정에 따라 구성된 실습협의위원회는 해당 기업체 및 공장에 하기 휴가 중 현장실습의 협조를 교섭하였다. 그러나 많은 난관에 부딪쳐 쉽게 실시하기는 어려웠다. 실습협의위원회는 160여 개의 대상 공장에 현장실습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공학과별로 대상 공장 및 기업체에 이를 교섭한 결과, 공장 등의 시설사용에 대한 기피현상과 현장실습 목적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4) 장학제도

동양의 M.I.T.를 표방한 인하공과대학(I.I.T.)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금제도를 마련하였다. 개교 직후인 1954년 4월 27일 학부장회의에서 장학금제도의 설치를 논의하고 각 공학부 최고우등생 각 1명에게 수업료 면제의 특전을 부여하고, 전교생 중 최우수학생에게는 수업료 면제 이외에 특별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3월 29일 학부장회의에서 각 공학부별 최고등학생에게는 학기당 1만환을 지급하기로 하고, 1, 2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에게는 2만 5천환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밖에 전교 최우수학생에게는 별도로 고급만년필을 추가로 수여하고, 개근 및 정근학생에게는 『우리말사전』 1권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 장학금제도는 1956년부터는 수정 보완하여 신입생에게도 적용하였다. 즉 장학생 선정은 매학기초 장학금의 지급 전에 심사 선정하여 공시하며, 장학금 급여액은 특대생에게 5만환 외에 부상을, A급 장학생(공학부별 최우등생 각 1명)에게는 5만환, B급 장학생(학업성적 평균 80점 이상)에게는 41,000환(등록금 전액면제)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교육자의 자제에게는 학비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장학금 제도는 1957년 5월 인하공과대학장학금규정이 제정되어 전면 개편될 때까지 실시되었다.

교내 장학금제도 외에 교외의 교육유지로부터의 장학금을 접수하여 학업이 우수

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특기할 것은 본교 설립에 큰 공헌을 한 하와이교포들이 인하후원회를 조직하고 계속 장학금을 송부하여 학생들의 면학을 격려함으로써 당초의 그 정성을 더욱 빛나게 해 준 것이다. 이밖에 Korean University Club에서 매년 장학금을 기증하였으며, 세계대학봉사회 한국이사회는 장학금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평균 80점 이상) 본교 1, 2학년 재학생에게 수여하는 국비장학금은 가정이 빈곤한 많은 우수학생들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57년에는 장학금제도의 확충과 제도를 피하여 1957년 4월 1일부터 인하공과대학장학금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취하고 우수한 재능과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1958년부터는 장학금 급여대상이 급증하여 55명의 재학생이 각종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1960년에는 학내 장학금 급여총액만 1천만환을 넘게 되었다. 이밖에 10종에 가까운 각종의 교외장학금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다수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교내외 장학금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비장학금 : 학칙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한 장학금규정에 따라 교비에서 지급.
2. 국비장학금 :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

로 고시, 선발하여 문교부에서 장학금(연액 10만원)을 지급.

3. 우남장학금 : 자질이 우수하여 공학연구에 적임인 자에게 이사장이 지급(해외유학장학금).
4. 함태탄광장학금 : 성적이 우수한 광산공학과 재학생(매학기 2-3명)에게 함태탄광 김세영 사장이 지급.
5. 동성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빈곤한 학생에게 동방강건사의 오정섭 사장(동성회 이사장)이 지급.
6. 극태장학금 : 제3학년에 진급한 인하의 모범생에게 최승만 학장이 사재에서 지급.
7. 흥한재단장학금 : 흥한재단의 박흥식 사장이 우수학생에게 지급.
8. 인천시장학금 :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인천시장이 지급.
9. 인천로타리클럽장학금 : 학업성적 및 품행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
10. 가락장학금 .

교비 및 국비 장학금 외에, 인하공대 설립과 운영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이승만 대통령, 최승만 학장, 인천시장의 장학금, 그리고 설립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한 박흥식 사장의 장학금을 비롯한 민간회사 및 사회단체의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5년 11명의 장학생을 비롯하여 1956년 45명, 1957년 32명, 1958년 38명, 1959년 14명의 장학생이 배출되었다. 그 외에 특대생, 개근생, 수석입학생, 4개년 우등생, 4개년 개근생에게도 장학의 혜택이 주어졌다.

제4절. 학생활동

1. 학도호국단의 활동과 학생자치활동

(1) 학도호국단의 조직과 운영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위하여 문교부에서는 1949년 1월 23일 학도호국단 조직요강을 발표하였고, 4월 15일 각급 학교는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으며, 이어 중앙학도호국단 산하로 통합되어, 4월 22일 서울운동장에서 대한민국학도호국단 총재 이승만 대통령과 단장 안호상 문교부장관의 임석하에 전국의 학도호국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학도호국단이 결성되었다.

건국 후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학생조직체였던 이 학도호국단은 한국전쟁 때 학도이용대를 조직하여 낙동강, 포항전투에 참전하였다. 1952년 12월 전국 총학장회의에서는 학도호국단을 완전한 학생자치기구로 개편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래서 1953년부터는 학생운영위원장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고 교내외의 학생활동을 주관하게 하였다. 본교의 학도호국단도 이러한 시기에 발족하였다.

1954년 5월 18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대표기구로서 인하공과대학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였다. 5월 11일의 학부장회의에서 대한민국학도호국단규정에 의거하여 본교 학도호국단 단칙을 제정하였고, 이 단칙에 의하여 초대단장에 이원철 학장, 부단장에 박

홍근 부학장과 이량 교학처장이 취임하고, 지도위원회에는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학도호국단의 결단시에는 180명의 단원이 도열한 가운데 이원철 단장의 국방의 의무와 학구의 사명에 대한 훈화가 있었다. 각 공학부 학생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 이하 각 임원이 중앙학도호국단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초대운영위원장에는 조선공학부 제1학년 박한래가 당선되어 초창기 학도호국단 운영의 기틀을 잡았다 제2대 운영위원장은 화학공학부 2학년 김봉환이 담당하였다. 당시 본교 학도호국단 조직을 살펴보면, 단장(학장)과 부단장(부학장, 교학처장) 아래에 교수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 학생대표로 구성된 선거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학생들로 조직된 운영위원회 산하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각 공학부 대표 12명)이 있으며 그 산하에 총무부, 공작부, 기율부, 학예부, 후생부, 체육부가 배치되어 있다.

본교 학도호국단은 원칙적으로 중앙학도호국단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학도호국단의 운영과 학내외의 주요행사를 자치적으로 집행하였다. 1955년 11월 22일 기계공학관이 준공된 후 그곳에 단독 사무실을 갖추고 자치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도호국단비의 경리운영은 처음 경리과에서 집행하였으나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편성은 물론 각종 학생행사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였다. 한편 본 대학의 학생을 대표하는 학도호국단 임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였다. 즉 학생대표가 되려는 자는 각 공학부별 단위성적의 3분의 1 이상인 자로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1956년 2월 28일 제3대 운영위원장으로 광산공학부 2학년 최대석이 선출되었다.

(2) 학도군사훈련

학생의 군사훈련은 1949년 4월부터 안호상 문교부장관이 학도호국단을 결성할 때부터 실시하여 왔다. 그후 한국전쟁을 당하여 대학교육의 전시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발표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년 5월 4일 공포)은 매주 4시간의 군사기초훈련의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그후 1952년 5월 대통령령 제577호에 의하여 학도군사훈련이 제도화되어 대학재학 중 8학점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만 24세까지 징집이 보류됨과 동시에 졸업 후에 간부후보생으로 등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본교도 개교와 더불어 배속장교단이 파견되어 학도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내 군사훈련의 실시가 여러 가지 난점과 모순을 안고 있어서 학도군사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병사문제를

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새로운 학도병사제도를 모색하였다. 1954년 6월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교내 군사훈련을 폐지하고,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10주간의 단기집단입소훈련을 실시하여 일등병 계급을 부여하고, 예비역 군적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간부후보생의 자격증을 수여하여 각각 재적학교에 복교시키되, 본인이 소집될 경우에 장교를 희망하는 자는 14주간의 군사교육을 필한 후 장교로 임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6월 30일 문교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대학졸업생군사훈련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7월 12일자로 교내 군사훈련제는 폐지되고 7월 30일자로 학교배속장교단은 해체되고, 대학졸업예정자의 집단입소훈련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방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방부의 처음의 목적은 이 제도를 통하여 부족한 현역장교의 충원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 때문에 대학졸업생들의 입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1955년에 공포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새 병역법의 개정으로 학도병사문제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56년 2월 문교 및 국방부가 학도병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 학생징집보류 및 대학졸업예정자집단입소훈련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학적보유현역병제(통칭 학보병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교부에서는 1956년 9월 학적보유현역병제의 실시와 이에 따른 입영 및 복무연

한에 관한 구체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본교의 제1회 입학생 중 40여 명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병역의 의무는 대학재학 중인 남학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처럼 대학생활과 동반하고 있었다.

(3) 학생자치활동

대학생들에게 자치의 기회를 주는 것은 대학 중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치, 자율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도 1957년도에 들어 학생자치단체인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학생대표) 선거를 종래의 간접선거제에서 직접선거제로 바꾸고 전교생들로 하여금 학생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실공히 학생자치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었다.

본교의 학생회는 연례행사로 신입생환영회, 교내체육대회와 대학제 등을 주관하고, 학지와 학보를 발간하고, 교양강좌와 음악·영화감상회를 개최하였다.

본교 학도호국단은 결성 이래 학생 자치활동을 주관하였다. 즉 정기적인 자치활동으로는 개교기념일을 전후한 각종 기념행사와 종합체육대회, 하계해양훈련과 경영(競泳)대회 등을 주관하였고, 그밖에 여러 가지 학술활동도 담당하였다. 종합체육대회는 학도호국단 체육부를 중심으로 개교 이후 10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각 공학과 대학의 친목체전으로서 경기중

목은 육상부문과 구기부문(축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정구 등)으로 그 전적을 종합하여 시상하였다. 이 체전 중에는 전교수와 학생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학부의 우승을 위하여 응원전을 전개하였다.

본교의 체육장리는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보건관리의 철저를 기하며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전교생의 체력의 증진에 있었고, 특수한 소수의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교 필드하키팀은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여, 1958년 10월의 제39회 전국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우승하였고, 12월의 제1회 전국종별필드하키팀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고, 이듬해 제2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였다. 1960년에는 한국필드하키 말레이시아 원정단의 대표선수로서 국제경기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조선공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요트반은 학생들이 직접 요트를 제작하여 매년 하계훈련을 함으로써 학술과 체력단련의 이중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밖에 역도반, 유도반, 사격반 등의 운동서클과, 학생들의 최초의 조직적인 서클로서 1954년 11월 15일 창립된 인하공과대학 학생기독교청년회(YMCA)가 있었다.

한편 본교가 임해도시인 인천에 위치한 입지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정신훈련을 목적으로 매년 하계 방학 직전인 7월초에 5일간 오전수업을 마친 후 해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경영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해양훈련은 본교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초기의 대학축제

또한 학도호국단 학예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주 음악감상회를 비롯하여 외국대학의 대학생활을 담은 문화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국내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매년 신입생 환영회와 졸업생환송회를 주최하고 해외교포고국방문단, 재일교포하기단 등 외빈을 맞아 접대하는 행사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보듯이 학예부 주관으로 1956년 3월 1일에는 학지(學誌) 『仁荷』를 창간하였다.

이밖에 인하공과대학봉사회를 조직하여 농어촌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입대한 학우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문단을 신병훈련소에 보내기도 하였다. 1958년도에는

병역법의 개정으로 대거 입대하게 된 본교 재학생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홍성완 학생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위문단을 조직하여, 2월 2일 논산훈련소에서 교수회와 학생회에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하였다.

1957년도의 제4대 학생위원장 이준삼, 1958년도의 제5대 홍성완 학생위원장 시기에는 학생들의 자치권이 더욱 신장되었으며, 제6대 최병하 학생위원장 때에 이르러 학생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하였다.

학생자치기구로서 학도호국단 외에 각 공학과 별로 학우회를 조직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의 발전을 꾀하였다. 각 공과 별 학우회는 전국 각 대학의 동일 전공



개교 1주년기념 교내체육대회

학과의 학우회와 횡적인 교류를 갖기도 하였다. 학술발표회, 친목체육대회를 통하여 동일한 전공을 하는 각 대학의 학우들은 지성과 낭만의 대학생활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본교 학우회의 학술활동의 한 예를 보면, 1957년 9월 조선공학과와 전기공학과 학우회 학생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무선유도조종 5만톤급 여객선모형'이 문교부 주최 제3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입선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 이후 매년 '원자력잠수함 모형', '모형 조력발전소' 등을 출품하여 계속 수상하였다. (사진)

한편 재학생 중 가정이 빈곤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하여 1957

년 4월 26일 인하공과대학 자립회를 조직하였다. 매년 2학기 초에 지도교수의 심사를 받아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1957년 발족 당시에는 25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입대 또는 졸업 등으로 1958년도에는 12명으로, 그리고 1959년도에는 다시 4명으로 줄었다. 자립회의 사업으로는 본교 지정노트, 뱃지, 바클, 교재용 프린트물 등을 구내서점에서 판매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등록기간에 그 이익금을 배당받아 학비에 보조하도록 하였다. 1959년도 현재까지 자립회의 혜택을 받은 회원은 25명에 달하였다.

2. 학생지도교수제와 학생준칙의 제정

(1) 학생지도교수제

개교 초부터 면학하는 대학의 건설을 지향했던 본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향상을 위하여 개교와 더불어 학생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지도교수제를 채택하였다. 각 공학부별로 학생지도교수를 선임하고 담당지도교수는 학칙에 명시된 학생들의 제반 학교활동과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각종 단체활동 및 교내외의 행사참여와 학생들의 보건후생에 관한 문제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여 주었다. 특히 개성지도에 유념하고,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의 강의출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자격을 박탈하였고,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률이 불량한 학생은 퇴교처분하였다. 교내에서의 금주, 금연과 복장의 단정함을 엄격히 요구하기도 하였다.

1956년 2학기초에 개최된 교수회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을 높이고 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화요일 제1교시에 조회를 갖고, 월 1회의 학장 훈화와, 3회의 지도교수 및 외래강사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학생의 지도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지도교수들이 학생과 및 교무과와 밀접한 협조관계 하에서, 학생의 활동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의 생활을

가치있고 뜻있게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방침을 세웠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고난의 시기에 개교하였기 때문에 향학열에 불타 무조건 대학을 지망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비 조달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들 고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955년 8월 30일 고학생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박흥근 부학장, 위원에는 이인홍, 김윤석 교수와 학생과장, 교무과장, 서무과장을 임명하였다. 이 고학생지도위원회는 가정교사 등의 부직을 알선하고 교내의 청소를 맡기는 대신 학비를 보조하였다. 1955년 12월에는 세계대학생봉사회에서 기증받은 식료품을 이들 고학생과 자취학생들에게 분배해 주기도 하였다. 1950년대의 대학생활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었고, 교육에 있어서도 유엔을 비롯한 외국의 원조를 마다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2) 학생준칙의 제정

학생의 교내외 활동에 대하여는 학장을 비롯하여 교학처장 또는 학생과장이 지도하였다. 매주 월요일에는 조회를 가지고 이원철 학장이 학생들에게 훈화를 하였다. 공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정근 학생과장은 1955년 겨울, “학내 생활에 있어서 학생들 중 학원의 자유와 학생 활동의 자주성을 그릇 해석하여 학풍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됩니다. 부질없이 학교방침에 반대하거나 교수의 훈도에 역행하는 언어행동이 자치권을 획득하는 수단방법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인하』 창간호)라고 하여 공학도들이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였다.

이미 학칙에는 학생에 대한 규율과 상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제46조에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10명 이상이 집합코자 할 때, 학외의 집회, 행사 또는 단체에 가담할 때, 출판물을 내거나 또는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출판물이나 투고의 경우에는 허가 후 다시 원고의 검열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다.

1957년 5월 13일의 교수회에서는 학생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생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각 공학부장 책임 하에 전 교수가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학도호국단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학생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학생증

제1조 입학절차를 끝마친 자는 즉시 본 대학의 학생증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매학기 등록을 완료한 자는 학생증에 교학처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상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본 대학 교수의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증은 타인이 대여함을 금한다.

제5조 학생증을 휴대치 않은 자는 수강 혹은 수험

기타 도서열람 등을 불허한다.

제6조 학생증 또는 뺏지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신하여 교학처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부

제7조 학내외를 막론하고 대학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 학내에서 학생의 광고, 인쇄물 등을 첨부 또는 배부코자할 시는 학장 및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 학생은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함을 불허한다.

제10조 학내 각 자치단체의 자치활동 경비지출에 대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운동경기 참가

제11조 학생으로서 대외운동 경기에 참가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시험기간 중에는 대외경기에 참가함을 금한다.

제13조 학생은 대학 당국의 허가 없이 대외운동 경기 및 단체적 응원 또는 운동선수로서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장 복장 및 기율

제14조 학생은 본 대학 소정의 정복 및 작업복 또는 정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작업복은 실험실습시간 등에는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생은 본 대학 소정의 뺏지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생은 학내, 학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 교직원을 만났을 시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경례하여야 한다.

제18조 학생은 일정한 장소 이외에 교실, 실험실에서 흡연함을 금한다.

학생준칙에는 학생증을 통한 학생신분의 확인과 통제, 학내외에서의 학생활동에 대한 통제, 정당 또는 사회단체 활동의 금지, 배지의 착용,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과 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원철 학장 시절에는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각종 운동을 권장하는 한편 매년 하기방학 전에 10일간 매일 일정시간 학장 이하 전교직원과 학생들이 송도 등지로 나가 임해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업에 지장을 가져올 대외적인 운동경기에는 출전을 불허하여 체력훈련을 피하면서도 면학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학생준칙에도 반영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자유주의적 학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대학에서는 50년전의 이러한 규제가 대단히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50년대의 대학분위기, 특히 국책적 입장에서 설립된 인하공과대의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준칙의 제정을 계기로 학생에 대한 지도방침이 구체화되었다. 당시의 정영식 학생과장은 『인하』 제2호에서 학생의 지도방침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지적 교육 뿐 아니라 덕적 교육 즉 도의 교육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문제, 예의문제, 풍기문제를 중심으로 한 도의교육의 지도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3. 문화활동

(1) 학지 『仁荷』의 발간

개교 직후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학술이론과 문예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학지의 발간을 계획하였다. 1954년 10월 26일의 학부장회의에서도 학보의 발간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우선 학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잡지형 또는 신문형으로 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면수와 발행부수 등을 정하여 예산을 세워 다음 학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11월 30일의 학부장회의에서는 학지 창간을 위한 지도교수로서 김윤석 교수를 정하고 학도호국단 운영위원회 학예부를 지도하여 학지를 편찬할 것을 일임하였다. 1955년 1월 25일의 전체교수회의에서는 대학신문의 발행은 차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학지를 발간할 것을 결의하였다. 학지의 제호는 『仁荷』로 할 것과, 교수들의 논문도 여기에 발표하여 학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고, 2월 5일까지 원고를 학지편집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1년간을 보내고 1956년에 학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인하』 창간호 사진)

학지 『인하』는 1956년 3월 1일 166페이지의 국판형으로 창간되었다. 표지는 새로 세워진 기계공학관의 위용을 사진으로 담고, 권두에는 인하대학의 건설보를 엮은 화보를 실었다. 학지의 내용은 첫머리에 「인하대학 설립에 관하여 이대통령 각하의 답화」, 개교기념식전에서의 「이대통령 각하



조선공학과 축제

의 치사」, 이원철 학장의 「창간사」, 그리고 이사장 이기봉, 문교부장관 이선근, 공보처장 갈홍기, 인천시장 김정렬, 이사 손노덕의 창간 축사를 실었다. 이원철 학장의 「창간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 민주대안은 창건된지 아직 일천하였고 더구나 국가의 추초가 대지에 든든히 자리 잡히기도 전에 공산주의의 불법침략으로 발발한 참혹한 전화는 국토를 초토화하였다.

황폐한 잿더미 위에서 재기를 부르짖는 우리에게는 오직 각 분야에 걸친 재건의 대업이 가로 놓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에게 기술을 요청하는 현 순간에 이르러 애석하게도 우리의 기술진은 그 빈약상과 후진성을 자인치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결의하에 우리 학원으로 모여든 학생들은 하나의 선각자요 나가서는 앞날의 국가건설에 크나큰 역군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우월한 우리 문화민족이 어찌하여 약소민족이라

는 낙인을 찍히고 말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서슴치 않고 단언하겠다. “선대로부터 우리는 과학정신을 몰각해 버렸음이 그 원인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단언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우리의 선대는 군주전제의 시대였다. 주권은 군주에게 있었기에 자칫하면 권력의 행사는 독선적으로 흘러 권력은 남용되고 정사는 문란해져서 백성은 악정에 허덕이며 독재자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한 사조가 즉 관존민비 사상이었다. 민은 누구나 관을 선망하였고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문정법(文政法) 등 인문과학만을 연마함으로써 벼슬아치가 되기를 꾀하였으며 기공면(技工面)은 전혀 도외시되고 말았다. 심지어 이조시대에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을 장(匠)이라고 하여 중인에게 맡겨버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멸시하였으니 과학기술은 여지없이 땅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시대는 변천해서 과학의 전성시대는 당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서롭지 못한 선인의 유산을 물려받은 현대청년학도들 중에는 아직도 그릇된 고루한 사상이 다분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의 세계적인 사조로서 과학적 정신이 회구하는 이때 향간의 서사(書肆)를 일별하면 출판물 간행물이 산적해 있는 그 속에서 한권의 과학지를 발견키 용이치 않은 현실은 실로 서글픈 일이며 우리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비록 아직 건설도상에 있는 우리 대학의 교내지 이나마 조구마한 지면을 여러 학도 앞에 제공하자는 바이니 서로 다투어 배운 이론의 발표의 소지로 삼을 것이요 이론투쟁의 싸움터로 삼아서 최대한의 이용을 아끼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며 과학도로서 또한 인간성의 탐구와 사색의 세계가 없을 수 없으니 틈틈히 엮어내는 향기로운 작품 한편이 있으면 더욱 빛날 것이다.

끝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엄정한 비판과 간곡한 지

도가 있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본지는 우리 학원과 더불어 연륜을 쌓아가며 유구히 발전하여 하나의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 바이다.

학지의 내용은 박동길 교수를 비롯한 교수의 연구논문 4편, 일반논문 3편, 그리고 학생논단과 문예란 등으로 짜였다.

학지 『인하』는 예산난과 집필진의 부족 등으로 1957년 12월 30일 제2집을 겨우 발행하고 장기 휴간되고 말았다.

(2) 대학신문 『仁荷學報』의 창간

인하공대의 지성과 창의의 대변인 대학신문 『인하학보』는 1958년 2월 10일 창간되었다. 학보발간에 대한 논의는 개교초기인 1954년 10월 26일의 학부장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를 학지형으로 할지 신문형으로 할지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1955년 1월 25일의 교수회에서도 대학신문의 발행은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차후로 미루고 학지부터 발간하기로 했다. (인하학보의 모습 사진)

대학신문의 발간은 모든 인하인의 희망이고 당면과제였다. 학도호국단 홍성완 위원장과 고오석 학예부장의 끈질긴 정성과 집념에 의하여 언론계 출신인 최승만 학장의 후원을 얻어, 1958년 2월 대학신문의 발행을 보게 되었다. 제호는 최 학장이 『인하학보』로 할 것을 제의하여 그렇게 결정되었고, 초대 발행인(사장)은 최승만 학장이, 편집인(주간)에는 김윤석 교수가 각각 취임하였다. 학생측 편집부장에는 고오석, 편집위원은 윤건중, 정해진, 이성기, 김주현, 강택수, 조성연 등이 담당하였다.

창간 당시에는 월간으로 배대형 4면으로 발행되었고, 체제는 통상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제1면은 주로 학내의 동정과 학외의 학술, 문화계 동향 등의 소식을 싣고, 좌상단에 사설, 하단에 「餘摘放談」란과 인사 및 메모란을 두었다. 제2면은 교수들의 학술논문, 제3면은 학생회의 행사와 활동을 보도하고, 학생문예란, 교수프로필란, 과학기술질의란 등을 설치하였고, 제4면은 학생논단 및 학생연구논문을 주로 담았다.



인하학보의 모습 사진

최승만 학장의 인하학보 창간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풍부한 창조력과 우수한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긴급한 과학기술발달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분투노력할 산업전사를 양성코저 인하가 탄생된 것이다. 그 책임과 사명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바이어니와 다소라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미력이나마 실천에 옮겨 보자는 결의와 열정에서 4페이지의 인하학보를 우선 발행하여 사계의 지식과 뉴스를 널리 보급시켜 보기로 한 것이다. 미미한 씨앗이 땅속에 파 묻혀 후일 장성한 수목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며 여기서 훌륭한 과실이 맺게 되는 날 이것이 여러분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하는 희망에서 창간호를 내놓기로 한 것이니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호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인하학보는 학내여론을 전달하고 학술연구 및 교육효과의 양양, 교수와 학생들 대화의 광장 구실을 하였다. 1960년 2월 29일까지 11호를 발행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에는 학생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신문에 대한 참여열도도 고조되어 자치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

4. 동창회의 조직

1959년 3월 2일 제2회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결성되지 못한 인하공과대학 동창

회는 졸업생들의 절실한 요청으로 졸업생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목적으로 1959년 11월 15일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동창회 회칙을 채택하고 회칙에 따라 전기공학과 제1회 졸업생 김우경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동창회 회칙은 다음과 같다.

〈인하공과대학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인하공과대학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3조 본회의 회원은 모교 졸업생 전원을 회원으로 조직 구성한다.

제4조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할 시는 총회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 제명처분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책

제5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인(최선배로 정함)

나. 부회장 1인

다. 총무 1인

라. 재정 1인

제6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칙과 총회의 결의사항에 의하여 회무를 총리집행한다. 단 총회가 불성원일 때에는 그 직권으로 회무를 집행하며 사후 승인을 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본회 사무를 회장의 지시 하에 처리한다.



동창회 창립총회 (1959. 11. 15)

라. 재정은 본회의 경리관계를 회장 승인 하에 처리한다.

제4장 총회 및 성회 및 의결

제7조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가. 총회는 매년 1회를 갖는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총회는 회원 40명 이상 출석으로 성회된다.

제9조 총회의 모든 의안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 선거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선거는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하며 최고 득점자를 당선으로 한다.

가. 회장은 전임회장과 그외 4명을 후보로 정하여 투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3명을 후보로 정하여 투표한다.

다. 총무, 재정은 회원 중에서 각각 3명을 후보로 정하여 투표한다.

제11조 각 후보는 5명 이상의 찬동자를 얻어 입후보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만 2개년으로 한다. 단 회칙

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장 회비

제13조 회비는 회원의 회비와 입회금으로 총당한다. 가. 회원은 매년 1회 회비 1,000환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회금은 본회에 입회할 때 1,000환을 납부한다.

제7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후부터 발효한다.

제15조 본 회칙에 의하여 졸업생 전원은 회원이 된다.

제16조 본 회칙은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하여 개척할 수 있다.

동창회 조직은 본 대학 졸업생 전원을 회원으로 하였으며, 임원은 회장 1인(최선배로 함), 부회장 2인, 총무 1인, 재정 1인을 두는 것으로 하였다. 동창회 사무실은 그 운영 및 연락상 모교 학생과에 두기로 하였다.

1958년(제1회)에서 1960년(제3회)까지 졸업생의 취직현황을 보면, 1958년에는 졸업자 124명 중 입대자 및 기타 49명을 제외한 75명이 취업하여 60%의 취업률을 보이고, 1959년에는 58명 중 입대자 17명, 취직자 41명으로 71%, 1960년에는 56명 중 입대자 18명, 취직자 38명으로 6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취업률에는 다수의 입대자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공과대학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에 취직하여 사회의 일꾼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수요가 컸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인

하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충분히 적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장. 격동기의 인하공과대학 1960. 4~1968. 8

제1절. 4·19혁명과 학내 위기

1. 학장의 진·퇴를 둘러싼 갈등

1960년의 4·19혁명은 인하공과대학에 시련으로 다가왔다. 10여 년에 걸친 자유당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공명정의(公明正義) 실현을 표방한 제2공화국을 출범 시킴으로써 자유·민주를 향한 한국현대사의 새 장을 열어젖힌 일대 쾌거가 인하공과대학에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물론 인하공과대학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였다. 4·19혁명은 본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의 정신적, 물질적 버팀목이 하루아침에 와해된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외부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학내에는 즉각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는 사립대학이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재단이 확립되지 않고 있었던 데다가 대학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학장이 다음 해인 타도된 독재자 이승만의 천거로 취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재단이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학장의 퇴진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인

하공과대학에 들이닥친 자유·민주 혁명의 물결은 먼저 인물의 교체를 통한 자기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1960년 5월 11일, 최승만 학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1957년 1월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교과과정의 정비와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하공과대학의 교육 기반을 충실히 다져왔지만 자신의 보직 취임과 관련하여 도의적 책임을 절감하고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그 다음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반대'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교수 대표를 선출해서 학장에게 보내 사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학생들 역시 총회를 개최하고 최승만 학장의 직무 복귀를 전체 의사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회의와 학생총회의 신임에 부응하여 최 학장은 사의를 거두고 5월 13일부터 업무를 재개하였다. 대학 구성원들의 단합으로 4·19혁명에 따른 초기 난국이 일단 진정된 셈이었다.

그런데 인하공과대학 동창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학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우경(金瑠卿) 동창회장이 동창회를 대표하여 직접 최 학장을 방문하고 물러날 것을 요청하였다. 동창회에서는 그

동안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음양으로 지원 을 아끼지 않았던 터라 그러한 의사는 나름 대로 큰 무게를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최 학장의 사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었다.

이처럼 대학과 동창회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학장은 6월 3일 재단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당시 재단이사회는 이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자 동창회측은 긴급총회(제1차)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였다.

- ① 재단법인 인하학원의 현(現)이사진은 즉각 총사퇴할 것.
- ② 인하공과대학 동창회 학원수습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함.
- ③ 동 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

이후 사태는 하계 방학으로 비교적 진정될 기미를 보이다가 2학기 개강과 함께 다시 혼미한 양상을 반복하게 되었다. 10월 8일, 최승만 학장은 다시 재단이사회를 소집하고 전달받은 동창회 결의서에 관해 보고한 후 재차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최 학장은 10월 9일 학교 구내의 학장사택을 떠나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이사하였다. 동창회의 학장 사임 요구는 한층 거세졌다. 10월 10일, 김우경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대표들이 또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이사 전원과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창회 결의문

을 전달하고 조속한 이행을 종용하였다. 이에 최 학장은 10월 11일부터 학장 직무를 중단하고 등교하지 않았으며, 동창회 측은 10월 21일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장의 사임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수들은 7인(人) 수권위원회(受權委員會)를 구성하여 학사행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 학장의 업무 복귀 권고안을 10월 23일의 교수회의에 상정하였다. 교수회의에서는 이를 가결시키고 김영재(金興齋), 김규일(金圭佚), 김윤석(金允錫), 신영묵(申永默) 교수 등을 대표로 선정하여 학장과 면담토록 하였다. 그러나 최 학장은 동창회의 결의 사항이 철회되지 않는 한 등교·집무를 수 없으며, 교수회와 동창회가 협의하여 학장직무대리를 선임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한편 인하공과대학 후원회도 10월 26일 총회를 소집하여 학장의 직무복귀를 결의하고 주원기(朱元基), 황두연(黃斗淵) 등을 대표로 보내서 이를 학장에게 권고하였으나 역시 응낙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수회, 동창회 및 후원회의 요청으로 10월 28일 재단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 ① 현(現)이사진의 총사임.
- ② 신(新)이사 선정은 교수회, 후원회, 동창회에 위임함.
- ③ 학장 사표는 신이사회에 인계함.
- ④ 학장직무대리 선정은 교수회에 일임함.

재단이사회의 이러한 결의에 따라서 기

존 이사들은 물러나고 새 재단의 영입을 위하여 교수회, 동창회 및 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한편, 10월 28일의 재단이사회 결의에 의거한 학장 직무대리와 관련해서는 10월 31일 교수회의에서 한만춘(韓萬春) 교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새 재단 유치 및 학장 직무대리 자문을 위해 김윤석(金允錫), 윤석규(尹碩奎), 강명순(康明順), 최춘호(崔春鎬), 신영묵(申永默) 교수 등 5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종전의 교수 7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최춘호 교수가 후임 교무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한만춘 학장 직무대리와 최춘호 교무과장이 11월 1일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이로부터 이듬해 3월 6일 최승만 학장이 다시 취임할 때까지 약 4개월간 대학은 완전히 교수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새 재단의 영입 교섭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생들이 다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 재단 유치 활동이 교수회와 동창회 그리고 후원회간의 의견 대립으로 계속 지연되면서 대학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게 되자 그동안 적극적인 관여를 자제해오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학생들은 1961년 2월 3일 총회를 열고 1960년 10월 28일 총사퇴한 이사회가 당시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돌아와 새 재단의 모체 역할을 해 줄 것과 최 학장의 직무 복귀를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후원회측에서도 2

월 6일 최 학장의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최 학장의 복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었다.

그에 반대하는 동창회측에서는 최 학장의 비위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민의원 문교분과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그 내용을 《경인일보(京仁日報)》에도 투고하였다. 이에 대해 한만춘 학장 직무대리는 민의원 문교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재단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해야 했다. 또한 3월 3일에는 민의원 문교분과위원들이 국정감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대학을 방문하고 감사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자의 불참과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연기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급속히 악화되자 3월 6일 최승만 학장이 혼란 수습을 위해 등교하였다. 그리고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① 학교 재정관리에 관한 건 ② 전기공학관 및 화학공학관 건축 계약에 관한 건 ③ 이시규(李時奎)씨에 관한 건 ④ 학장 공판 및 학장 사택에 관한 건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였다. 이를 접수한 대학 당국에서는 최 학장의 비위 의혹을 기사화했던 《경인일보》 측에 강력히 항의하여 3월 7일에 동(同)기사의 최소 및 사과를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국회 내의 분위기는 여전히 심상치 않았다. 민의원 문교분과위원회가 유진(柳津) 의원을 중심으로 3월 16일 재차 국정감사반을 파견했으며, 이들이 대학 상황에 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자 민의원 및 참의원 문교분과위원들과 문교부 장·차관으로 구성된 인하공대 수습위원회(仁

荷工大收拾委員會)의 구성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난국에 봉착하게 되자 학생총회는 동창회를 상대로 “지중하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통고문을 3월 24일자로 발송함으로써 나름대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였다. 학생총회는 또한 교수회와 후원회에 대해서도 최 학장이 제의한 가(假)이사진 구성에 동의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교수회와 동창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학생자치회는 4월 20일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당면 실천사항 결의’를 채택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 ① 동창회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교당국에 협조하라.
- ② ‘인하공대수습위원회’의 부당한 간섭을 절대 배격한다.
- ③ 교내에서 해교(害校) 행위를 한 자는 자진사퇴하라.
- ④ 이러한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수업을 폐지한다.

동맹휴학 2일째인 4월 21일, 학생들은 총회를 열어 동창회측에 대한 적극 투쟁 의지를 확인하고, 교수회의 무반응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다음, 동창회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한 강명순(康明順), 남윤악(南崙岳), 송인호(宋仁鎬) 등 세 교수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통고문을 교수회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수회는 4월 24일 정구복(鄭求福), 오병욱

(吳炳旭), 박기원(朴基遠) 등 학생대표 3인을 출석시켜 학생측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4월 27일 재개된 교수회에서는 동맹휴학 사태와 관련하여 서광렬(徐光烈) 학생자치회장의 보충 설명을 듣고, 4월 20일자 학생총회의 결의사항 중 제1항 및 제2항은 찬동하나 제3항의 철회와 조속한 수업 복귀를 권유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학생총회는 당초 요구사항의 완전한 관철을 위해 동맹휴학을 계속해 나갔다.

학장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학내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자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압적인 외부 완력에 의해 타율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서슬 퍼런 행정명령이었다. 문교부는 인하공과대학에 1961년 6월 22일자 <문고(文高) 제3123호>를 하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학내 분규에 관련된 학생 5인 위원을 6월 23일까지 퇴학 처분할 것과 학생들의 자진사퇴 요청을 받고 있던 3인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남윤악, 송인호, 강명순 교수 등이 임시이사회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교단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서광렬, 박기원, 오병욱, 정구복, 소병채(蘇秉業) 등 5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6월 26일과 29일의 두 차례 교수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전도”를 고려한 무기정학에 처분과 함께 학생자치회 활동 일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960년 인하공과대학 전경

이로써 1년 넘게 끌어오던 학내 분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던 중, 7월 20일 문교부의 또 다른 명령 조치가 최 학장 문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문고(文高) 제3744호>가 그것으로, 경리부정 및 정치관여 등의 이유로 최승만 학장의 취임을 취소한다는 공문이었다. 최 학장은 새로 구성된 임시 이사회에 그 부당성을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고, 결국 7월 20일자로 퇴임하게 되었다. 학내 분규로 어수선하던

시절에 제 2대 학장으로 취임하여 만 4년 7개월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건설사업을 벌였고, 교지《仁荷》와 대학신문《仁荷學報》를 창간하였고, 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인하공과대학의 학술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최승만 학장은 이렇게 해서 임기를 마쳤다. 4·19혁명으로 불어닥친 변화의 물결은 최 학장 진퇴 문제로 대변되는 학내 분규 사태를 야기했으며, 뜻하지 않은 이 불행한 사태는 마침내 5·16 군

사쿠데타로 인한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학장의 최종적 퇴진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2. 재단이사회의 개편 파동

인하학원은 외형상 사학재단이기는 하였으나, 초창기 이사들은 모두 자유당 정권에 의해 지명된 정부 요인이었다. 그런 연유

로 개인적인 출처는 전혀 없었고, 따라서 재단의 자금 조성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측에서 인하학원 설립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제공했을 뿐이며, 그 외에 창립 당시 기부된 하와이동포들의 성금 15만 달러는 여전히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재정적 기반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인하학원 재단이사회는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인하공과대학은 독자적 기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개교 6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최승만 학장은 1960년 5월 2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난국 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안동혁(安東赫), 표양문(表良文), 이정림(李庭林) 등 3명의 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이사회는 인하학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전원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새 이사진의 구성을 위한 교섭을 학장과 박재욱(朴在郁) 상임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재단 이사진의 움직임에 대하여 동창회측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재단 이사들은 물론, 최승만 학장도 자유당 독재정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이로부터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학장의 사표 제출과 재단 이사회의 사표 수리 보류 그리고 동창회의 거듭된 사퇴 요구가 수차례 반복되게 되었다.

동창회측의 강경한 사퇴 요구에 대해 학장이 제출한 사표가 계속 보류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최 학장은 1960년 10월 11일 교수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모색해온 새 재단 후보에 관해 보고하고, 이를 정밀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강명순, 신영복, 최춘호, 한만춘, 정영식(丁榮植) 교수 등을 5인 조사위원으로 선출하고 기존 재단이사회, 후원회, 동창회 및 학생회와의 긴밀한 연락 하에 새 재단 구성에 협조할 것을 위임하였

다. 5인 조사위원회는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10월 12일 교수회의의 동의로 새 재단 영입에 즈음한 요망 사항을 정리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① 본 대학 발전을 위하여 신재단은 언제든지 더 강력한 재단을 구성함에 이의가 없을 것.
- ② 재단확충에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이사진은 그 구성되는 재산비율에 의하여 결정할 것.
- ③ 본 대학의 불가피한 경상비를 재단측이 책임 있게 지급할 것.
- ④ 신년도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서 중의 시설완료 조항을 기일 내에 엄수할 것.
- ⑤ 학장의 임면은 교수회의 인준(재직원의 3분의 2 이상)을 얻을 것.
- ⑥ 교수(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면은 교수회에서 선출한 평의회 동의의 얻어 학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행할 것.
- ⑦ 교직원의 대우는 본 대학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것.

교수회의 이러한 요망 사항은 박재욱 상임이사를 통해 10월 15일 재단이사회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재단이사회는 그 내용 중 제 5항의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을 “재적 인원 2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락하였다. 이에 대해 동월 17일의 교수회의에서는 요망 사항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요약하여 현 재단 측에 통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아울러 교수들은 동창회와 재학생 대표들이 요청한 재단문제 수습을 위한 교수회·동창회·학생총회의 3자 공동기구의 설치에 관해 토의한 결과, 3자의 협의 및 의결사항의 집행과 연락을 위한 기구의 설치에는 동의하나, 기구의 명칭과 규약은 따

로 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종래의 5인 조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2명을 더 추가한 7인 조사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가결하고 송인호(宋仁鎬), 윤석규(尹碩奎) 두 교수를 동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8일 동창회측으로부터 이 7인 조사위원회를 불신임한다는 통보가 왔으나 교수회에서는 이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하였다. 7인 조사위원은 그 뒤 계속 재단측과 동창회측 그리고 후원회측과 연락을 취하면서 신재단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각각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한 관계로 성사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동창회측에서 학장 퇴진을 고수하고 그 직무대리의 임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한층 심화되자 재단이사회는 10월 2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후원회의 제의를 수용한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① 본 이사회는 총 사임한다.
- ② 신이사회 구성을 교수회, 후원회, 동창회에 일임하기로 한다.
- ③ 학장사표는 신이사회에 인계하고, 학장직무대리는 교수회에 선임을 일임한다.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10월 31일에 개최된 교수회의에서는 한만춘 교수를 학장직무대리로 선출하고, 이를 보좌하기 위한 5인 평의원으로 강명순, 김윤석, 신영복, 윤석규, 최춘호 교수 등을 선임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7인 조사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었다. 이어서 11월 18일의 교수회의에서는 그동안 계속 연락을 유지하던 동창

회 및 후원회와의 11월 3일자 3자 회담에서 합의된 7인 과도이사회의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교수회측 이사로서 윤석규 교수를 추천하여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한만춘 학장직무대리와 함께 이사직을 겸임하도록 결의하였다. 이 때의 과도이사회는 교수회 1인, 동창회 1인, 후원회 1인, 외부인사 2인, 학장 및 현 재단 상임이사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신재단 영입을 위한 노력은 교수회, 동창회, 후원회 3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그러자 학생들이 개입하였다. 11월 9일, 학생회는 대학이 재정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접 새 재단 이사회 구성에 관여할 것을 결의하고 그 후보자 조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과도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진을 유치하려는 3자 합의도 완전히 결렬되었다.

이에 교수회측은 11월 21일 회의에서 ① 3자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교수회에서 직접 재단을 모색할 것, ② 신이사회 구성 시까지 현 이사회가 법적인 의무를 재확인해 줄 것 등을 결의하고, 11월 28일 재단이사회에 이를 건의하였다. 한편, 후원회측에서는 3자간의 협의가 난관에 부딪치자 10월 28일자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정식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 11월 28일에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① 신이사회 구성 시까지 현 이사회가 정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그 기능을 부활할 것, ② 재산투자 후보

자의 조사와 신이사회에 선정을 교수회에 위임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재단이사회측은 11월 30일, 3자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 교수회, 후원회 및 동창회 대표들을 각기 대관원(大觀園)에 초치하여 간담회를 갖고 난국의 수습 방안을 숙의하였다. 그 결과 과도이사회에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이 기구의 실제 구성은 후원회측의 사퇴와 교수회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자 교수회측은 독자적으로 신재단을 물색하기 위하여 11월 28일 교수회의에서 선임한 5인 조사위원 이외에 송인호, 조규중(曹奎鍾) 두 교수를 12월 5일의 교수회에서 추가로 선임하고 대한양회 및 범한무역과의 관계, 재미동포 예치기금 등의 미결제과제를 이사회에서 수습할 수 없을 경우 교수회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동창회측은 10월 28일자로 위임받은 권한을 재단이사회측에 반납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신이사진 구성 요강을 결정하여 12월 6일 재단이사회에 통고하였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12월 24일에는 인하공과대학 재단분규 사태와 그 해결을 문교부장관에게 진정하였다. 학내 문제가 외부로까지 비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자 12월 28일에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① 3단체(교수회, 후원회, 동창회)에 위촉하였던 사항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신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현 이사회가 적극적 활동할 것,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신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임할 것, ③ 재미 예치기

금은 곧 국내로 들여올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재단이사회는 신재단의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대한양회측과 협의하여 12월말로 종결되는 당초의 계약을 다음 해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은행이자 이외에 매월 1,000만원(?)을 계속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새 재단이사회의 구성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재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월 16일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서광렬, 박기원, 오병욱, 정구복, 소병채 등 5인의 위원을 대표로 선출하여 전권을 위임하였다. 5인위원회는 1961년 1월 19일 재단이사회에 대하여 첫째, 이사회에 전년 10월 28일자 사의표명을 철회하고 신재단 출범을 위한 모체의 역할을 해 줄 것, 둘째 교수회, 후원회 및 동창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사회에 재단물색에 협조할 것, 셋째 이사회는 신재단 도입에 있어서 후원회, 동창회, 학생회 그리고 특히 교수회의 의사를 참작할 것 등의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이 결의문은 2월 3일 학생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교수회도 2월 6일의 회의에서 신재단의 구성 촉진과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최 학장이 조속히 등교하여 집무에 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신재단을 물색해 오던 최 학장은 흥한재단(興韓財團) 박흥식(朴興植) 사장의 인수 동의를 얻어낸 뒤 이 사실을 1961년 2월 13일 열린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흥식 사장의 서면 각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박 사장은 2월 27일의 이사회에 서면각서와 신이사진의 명단을 최 학장을 통해 제출하였다. 여기서 이사장 대리로서 사회를 맡았던 최승만 학장은 “인하학원의 운영권 일체를 흥한재단 이사장 박흥식 씨에게 인계한다”는 결의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럼으로써 신재단 영입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그와 같은 최 학장의 이사장 권한대행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당시 결의도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학내의 혼란은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었지만, 유명한 친일파 인사인 박흥식이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을 받아 독립운동 기념의 일환으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의 이사장 취임에 실패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최 학장의 그러한 일방적인 재단 영입 시도는 안팎으로 커다란 우려와 비판을 야기하였다. 많은 교수들이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동창회측에서도 거센 반발을 보였다. 그리하여 동창회 명의로 민의원 문교분과위원회와 문교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발송하는 한편, 《京仁日報》에 13개 항목에 달하는 ‘최 학장의 비위 진정’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의원 문교분과위원회는 국정감사만을 편성하여 인하학원 재단에 대한 감사를 위해 3월 2일에 직접 내방하기도 하였다. 이 때 다행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유로 감사단이 일단 돌아가고 3월 3일에 한만춘 학장직무대리를 소환하여 질의를 벌였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실로 망신스런 경험을 한 셈이었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학생들의 동맹휴

학 사태가 이어졌다. 이들이 일부 교수의 퇴진까지 들고 나옴에 따라 새 재단 영입과 관련된 학내 분규가 견잡을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입김에 의해 일거에 정리되게 되었다. 사실 대학 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그동안 인하학원 재단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기대가 높았는데, 이러한 열망이 통했던 것인지 서울지방법원이 1961년 5월 2일자 판결을 통해 새 재단이사진을 확정, 통고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곽상훈(郭尙勳 민의원 의장), 이영준(李榮俊 민의원 부의장), 김재근(金載坤 민의원), 김훈(金勳 민의원), 유진(柳津 민의원), 김진두(金鎭斗 인천시장), 박동길(朴東吉 인하공대 교수), 김용택(金容澤 전 사회부차관), 정구영(鄭求瑛 변호사), 한필(韓宓 변호사), 최승만(崔承萬 인하공대 학장) 등을 1961년 8월 1일까지 인하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4·19혁명 이래 만 1년을 끌어온 이사회 개편 논란은 일단 종결짓게 되었다.

인하학원의 재단 확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임시이사회는 1961년 5월 4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이사장에 이영준 이사를 선출하여 문교부에 인가 신청을 내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렵사리 일단락된 재단 문제는 그 후 보름도 안되어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혁명정부는 기존의 임시이사들 가운데 '구(舊) 정치인'으로 분류된 박상훈, 이영준, 김재곤, 김훈, 유진 등 5명의 민의원과 인천시장 김진두의 사퇴 압력을 가하여 5월 28일의 이사회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명선(金鳴善. 연세대 부총장), 김동일(金東一. 원자력 위원), 노진설(盧鎭高. 변호사), 서정익(徐廷翼. 동양방직 사장), 류승원(柳承源. 인천 시장) 등 5인을 새로 선임하고, 공석이 된 임시이사장에는 정구영 이사를 선출토록 하였다. 정구영 씨의 선임 이사장 취임은 6월 16일 문교부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식 확정되었으며, 그 외 재단의 실무를 담당할 상임이사직은 6월 21일 임시이사로 선임된 길성운(吉聖運) 전(前) 제주도지사가 맡게 되었다. 이후 최승만 학장겸 이사가 문교부의 7월 20일자 명령(문고(文高) 제3744)으로 해임됨에 따라 또 한 차례 파란이 일기는 했지만 재단 문제는 임시이사회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게 되었다.

제2절. 5·16 군사쿠데타의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

1. 교육체제 정비와 초급대학 병설

(1) 5·16 군사쿠데타와 학내 혼란의 수습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주축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어지러운 질서와 퇴폐를 일소하고 조국의 위기를 구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은 신속한 군사작전으로 민주당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내 군정(軍政)을 선포하였다. 계엄이라는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권의 기반을 다져간 쿠데타 세력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진리를 수호하고 탐구한다는 고유의 이념과 아울러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자율성이 도처에서 커다란 상처를 입고 훼손되게 되었다. 그 여파로 4·19혁명 이래 끊임없는 내부 혼란에 시달리다가 가까스로 안정을 회복한 듯싶었던 인하공과대학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시 혹독한 시련을 맞이해야만 했다.

군사정부의 대학 관련 첫 공식 조치는 1961년 9월 9일 제정, 공포된 대학정비기준령(大學整備基準令)이었다. 그 핵심 내용은 전국의 37개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을 폐지하고 각 대학 내 유사학과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대학

의 자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구실에서 였는데, 그에 따라 인하공과대학에서도 병기공학(兵器工學科)과 원자력공학과 등 2개 학과가 폐과되었고, 대학원의 6개 학과가 1962년부터 모집중지 되었다. 여기에도 각각 학과별 정원도 모두 감원됨으로써 본 대학의 총 학생정원이 1,656명에서 96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고통을 당했다.

이와 아울러,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대학생 정원의 규제, 대학 재단이사장과 총·학장 및 일반 교수의 임명에 관한 절차 개정, 대학 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고시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는 학사업무와 교원인사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대학의 자율적 본성과 교육사업의 특수한 실정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군사정부의 이와 같은 무리한 규제 조치는 관계 당국이 1963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민정(民政) 이양을 의식하고 “학술과 학문을 위한 진정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후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대학 내에서도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독립과 자유가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책임 의식과

권리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위에서만 존립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시 인하공과대학의 핵심 현안이었던 재단 문제와 신입 학장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 구성원들이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 체제 정비와 새로운 학풍 수립을 위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61년 6월 16일 문교부로부터 정구영 임시이사장의 취임이 인가된 데 이어 6월 21일에는 길성운 전 제주도지사가 임시이사로 보선되어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혼란이 수습되는 듯싶었으나, 7월 20일에 최승만 학장의 해임을 명하는 문교부의 갑작스런 공문이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왔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일부 교수와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 때 함께 하달되었다. 이로 인해 최 학장이 문교부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인하공과대학 내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회측에서 학장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7월 31일에 길성운 이사를 학장직무대리로 선임함으로써 최 학장의 퇴임은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김장훈(金長勳) 예비역 해군소장을 후임 학장으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해서 학장 문제는 최종적인 해결을 보게 되었다.

1961년 9월 20일, 김장훈이 문교부의 인준을 받고 인하공과대학 제3대 학장에 취임

하였다. 위협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수선했던 학내 분위기 속에서 인하공과대학의 최고 운영자라는 중책을 맡게 된 신입 김 학장은 자신의 포부와 기대를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학칙을 준수하고 학장의 본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초창기부터의 천연한 업적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열성을 다할 것이며, 시급한 당면문제인 재단구성도 재단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중략) 본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



제3대 김장훈 학장

해군사관학교 교장과 해군대학 총장을 역임한 김장훈 학장의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 혼란을 거듭하던 인하학원은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고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대학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결정에 의한 것은 비록 아니었으나, 어쨌든 뒤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장훈 학장은 취임 후 교무과장에 김수영(金水泳) 교수를, 그리고 학생과장에 정

영식(丁榮植) 교수를 각각 임명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교내 업무의 처리를 독려했다. 이에 호응하여 교수들도 대학 본연의 연구 및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61년 12월의 월례교수회의에서 전임교수의 출강일수와 주당 책임 강의 시간수를 규정화하고 이를 엄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즉, 전임교수는 주당 4일 이상 출근하여 최소 11시간의 강의를 책임지고 담당하여야 하며, 만일 주당 17~20시간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주 5일 이상 출근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1963년 3월 29일 병설초급대학이 개교함으로써 “21시간을 초과할 시는 주당 6일 출근” 하는 것으로 개정되게 된다. 한편, 보직 교수의 경우는 주당 5일 이상 출근하고 6시간의 책임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만일 12~15시간까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 6일을 출근하도록 결정하였다.

인하공과대학 교수의 임용 및 업적평가와 관련해서도 1962년 4월 2일자 교수회의에서 새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때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수의 신규채용과 승진에 있어서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0조와 교수연구실적 심사규정(1961년 11월 29일 공포)에 의거하여 반드시 연구논문을 제출케 하고 교수자 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학장이 발령 조치하도록 할 것.
- ② 교육(연구)경력에 환산에 있어서는 대학의 전임교원,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교관, 국립연구소와 대학원 및 외국에서의 연구경력 등은 100% 인정하기로 하며,
- ③ 교수자격심사 및 교육연구실적심사의 신청서는 연 1회(12월중) 문교부에 제출할 것.

이날의 교수회에서는 또한 교원의 정년을 종전의 65세에서 60세로 내리는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이 모두가 자율적으로 선택된 회의의 주제라기보다는 대학교수의 자질을 높이고 연구 활동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정부에서 하달한 <교수자격심사규정>에 부응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한 규정들이 꼭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것들이 제정되는 과정은 다분히 타율적이었다. 당시 대학은 여전히 완전한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외부의 ‘지도’ 아래 종속되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불안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인하공과대학은 특히 모범적인 규정을 세웠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1963년 6월 28일 재단이사회에서 결의, 신실한 정관 제20조가 이를 웅변한다. 즉, “이사회는 그 임명 자체의 불법성 또는 정실(情實)에 의한 부당임명이 판명되었을 경우 이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학장 또는 교직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수의 정상적인 신분 보장에 앞장섰던 것이다. 한편, 기왕의 객원교수 및 전임대우교수제를 폐지하고 명예교수제를 신설하는 결정도 그 무렵에 이루어졌다.

대학 교육의 필수적인 보조 인력인 조교인사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되었다. 이는 특히 인하공과대학의 성장에 따라 조교의 숫자가 매년 증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던 것인데, 1961년 5월 24일의 학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① 조교는 원칙적으로 대학원 수료자 중에서 채용 하되 유급으로 하며,
- ② 해당 공학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실험보조와 실험실 관리책임을 맡기며,
- ③ 조교로서 실험보조 및 중앙종합직업학교의 출강시간이 10시간(실험보조는 2시간을 1시간으로 산출)을 초과할 시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 ④ 기왕의 대학출신자는 실무조교로, 대학원수료자는 연구조교로 그 임무를 구분한다.

끝으로, 1960년 10월 이래 폐지되었던 중간시험제가 학생들의 면학을 독려하기 위해 1962년 9월 부활되었다. 또한, 학점 미달로 유급하게 된 학생에 대해서는 동계 방학 중의 보충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케 하여 진급의 기회를 주는 구제책도 마련되었다.

1963년 2월 1일, 김장훈 학장이 사임하였다. 그는 1961년 9월에 제 3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랜 학내분규를 수습하였고, 격변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학원의 질서를 비교적 순탄하게 유지하였다. 그리고 아래에 소개될 초급대학의 신설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인하공과대학에서 1년 반 가량 재직하며 봉사를 마친 김장훈 학장은 “인하학원의 다대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요지의 이임사를 끝으로 체신부 장관으로 전임하였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인하학원의 이사로 남아 본교와의 인연을 한동안 유지했으며, 그의 퇴임으로 생긴 공백은 김수영 교수가 학장직무대리로 선임되어 일단 메우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하공과대학은 1960대 초 한국현대사를 강타한 5·16군

사쿠데타로 인해 또 한 차례의 큰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건대 그것은 4·19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해일과도 같은 그 도전에 대해 당시의 인하공과대학 구성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조용히 단합하여 나뉘는 반성과 분발로 응전하였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미완의 학내 체제를 정비하고 대학 교육을 한층 내실화하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리하여 우수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작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초급대학의 병설

1963년 2월 21일, 인하공과대학 부설 중앙종합직업학교 교육전공부의 초급공업대학 승격 신청안이 교수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同) 교육전공부는 사실상 초급대학 과정으로서 인하공과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데, 군사정부의 교육정책 당국에서는 마침 산학협동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시설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을 상대로 중견기술자 양성을 위한 초급대학의 병설을 권장하고 있었다. 위 교수회의의 결정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 조류에 발맞춘 것으로, 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3월 12일자로 인하공과대학 병설 초급대학이 설립인가를 받고 3월 29일 개교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교육법 제 1조에 의거하여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공학의 이론과 실질적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연마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중견기술인

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 병설 초급대학은 금속과, 기계과, 광산과, 전자과, 전력과, 화공과, 토목과, 건축과 등 8개 학과에 총 640명의 정원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초대 학장은 인하공과대학 김장훈 학장이 겸임하였고, 초급대학의 교무 및 학생 관계 행정사무도 인하공과대학 교학처에서 관장·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병설 초급대학의 교수진은 처음에는 대체로 인하공과대학 교수들이 겸하였으나, 점차 전임교수를 별도로 임용하여 보강해 갔다.

그러던 중 1963년 7월에 인하공과대학 학장이 바뀌어 김병희(金炳熙) 학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병설초급 대학도 제2대 김병희 학장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증설 신청을 해오던 5개 학과 중에서 가정과와 의상과가 1963년 12월 16일 문교부의 신규 인가를 받음으로써 1964학년도부터 병설 초급대학의 규모가 10개 학과의 총 정원 800명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지도적 중견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하공과대학 병설 초급대학은 2년제 공업계 대학으로서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전공별 이론과 실기는 물론 국어, 영어, 문화사 등의 교양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였다.

2. 교육기반의 확충과 대학 2부 설치

(1) 학무(學務)기구 정비와 교육시설 확보

1963년 7월 1일, 김병희(金炳熙) 씨가 인하공과대학 제4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자리는 제3대 김장훈 학장의 사임 이래 5개월 동안 공석 중이었는데, 6월 29일의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김 교수의 학장 추천이 문교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뒤늦게 채워지게 된 것이다. 김병희 학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역대 학장의 공업(功業)을 이어받아 인하(仁荷)가 가진 1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학구적 분위기 조성과 학문 제일주의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교수와 학생, 사무직원이 모두 합심 협력하여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세계적인 대(大)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며...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에 대하여는 이 몸과 마음이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김병희 학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단한 포부와 열의를 가지고 대학 운영상의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다. 모든 학사업무를 학장 중심체제로 바꾸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을 신설하는 한편, 대학 사무기구는 축소하여 종래의 사무국과 교학처를 폐지하고 사무과(사무계, 경리계, 용도계, 영선계)와 교무과 및 학생과(대학담당, 초급대학담당, 직업학교담당, 대학원담당)의 3개 과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러한 기구 개편에 따라서 전면적인 보직 인사이동이 단행되었는데, 신입보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교무과장 : 윤석규(尹碩奎) 부교수

학생과장 : 이상익(李相益) 교수

사무과장 : 박인영(朴仁永)

도서관장 : 김수영(金水永) 부교수

학보사 주관 : 김동원(金東垣) 부교수

비서실장 : 최중준(崔鍾瓊)

김 학장은 교수회도 개편하여 ① 전체교수회(본 대학 및 초급대학 합동교수회), ②(인하공과)대학교수회, ③(병설)초급대학교수회 등의 셋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아울러, 주임교수회를 강화하여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각 과장이 동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63년 9월 6일 대학교수회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학내 업무를 모든 교수에게 분담, 위임케 할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각 교수는 원칙적으로 희망에 따라 한 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각 위원회는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회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각 위원회간의 사무적인 연락은 교무과장이 담당한다.
4. 교수회에서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칙 및 제규정정비위원회 [대표위원: 현수길(玄受吉) 교수]
 - ② 학교안내 및 논문집편집위원회 [대표위원: 정기현(鄭基現) 교수]
 - ③ 학교건설위원회 [대표위원: 전춘생(田春生) 교수]
 - ④ 학생지도위원회 [대표위원: 학생과장]
 - ⑤ 장학위원회 [대표위원: 학생과장]
 - ⑥ 개교10주년행사준비위원회 [대표위원: 신영묵(申永默) 교수]

이상과 같은 학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아울러 인하공과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정치적 변란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격동 속에서 교사(校舍)의 증축과 실험·실습 기자재의 도입은 그동안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 그에 따라 1962년 5월 10일에는 현재 공과대학 건물(2호관 남측)로 쓰이고 있는 본관이 일부 준공되어[건평 1880평] 1층은 학장실을 비롯한 각종 사무실과 회의실 및 학보사[대학신문사]로 사용되고, 2층은 전기공학과와 토목공학과 강의실, 제도실 및 교수연구실로 배정되었다. 또한 1963년에 정부의 시설확충자금 300만원을 지원받아 착공된 기초공학관이 이듬해 6월 지하실을 갖춘 건평 220평의 현대식 단층 건물로 완공되어 주로 교양과목 강의실과 실험실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1964년 4월 15일에는 9월 3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4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본 대학 종합운동장의 정지작업이 부평 소재 미8군 공병부대의 지원으로 착공되어 8개월 뒤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설치된 학내 교육 시설 중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국내 유일의 수준원점(水準原點)을 들 수 있다. 국립건설연구소의 위임을 받아 1963년 11월 20일 본 대학에 자리 잡게 된 대한민국수준원점(大韓民國水準原點)은 국내 해발고도 측정의 기준이자 국토 지적측량의 기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평판측량(平板測量), 삼각

측량(三角測量), 고저측량(高低測量) 등에 두루 필수불가결한 이 시설물은 높이가 3.46m이고, 중등조위(中等潮位) 내지 중등수면(中等水面)의 표준점으로서 해발고도 2,687.61m에 위치한다. 인하공과대학의 자랑스러운 명물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첨단공학 교육에 필수적인 실험·실습용 기자재의 확충과 관련해서 인하공과대학은 개교 이래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1960년 11월 28일에는 그 용도로 유네스코(UNESCO) 본부로부터 50만 달러 원조자금을 기증받아 이를 각 학과별로 배분, 집행하도록 하였다. 끝이 11월 30일에는 서독의 루루기 회사로부터 무연탄에서 가솔린을 제조하는 가스추출기(Gasfication Machine)를 기증받아 이를 화학공학과에 실험용으로 배치하였다. 서독정부의 기술원조계획의 일환으로 기증받은 5만 달러 상당의 이 기계는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업계에 당시로서는 큰 기대를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1963년 4월 1일에는 처음으로 교내우체국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말경에는 구내서점이 개점되어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2) 대학 2부의 설치

1963년 12월 16일, 인하공과대학은 문교부의 공문(문관행(文管行) 제1040. 1-1549)을 통해 대학 2부의 설치를 인가받았다. 이에 의거하여 1964년부터 2부 대학 신입생이 모집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원 증

대는 기존의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군사정부의 새로운 문교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본 대학은 특히 당시 전국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산업기지였던 경인공업지대에 위치했던 까닭에 그동안 정부는 물론 향학열을 지닌 지역 내 젊은 노동자들한테서도 대학 2부, 즉 야간대학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던 터였다. 그리하여 1963년 8월 7일 주임교수회의와 전체교수회에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12월에는 공식적으로 설치 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최초의 규모는 아래와 같이 5개 학과에 총 정원 760명으로 되어 있었다.

대학2부의 설치학과 및 학생정원(1964학년도)

전자공학과 : 160명	기계공학과 : 160명
전기공학과 : 160명	응용물리학과 : 120명
화학공학과 : 160명	

신설된 대학 2부 부장은 현수길 교무과장이 겸임하였고, 교과과정 및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되었다. 강의실과 실험실도 본 대학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으며, 강의도 대부분 본 대학 교수들이 담당하였다. 대학 2부의 첫 신입생 선발고사가 1964년 2월 21일 본 대학에서 실시되었는데, 2월 24일의 입학 사정을 거쳐 전자공학과 40명, 전기공학과 40명, 화학공학과 40명, 기계공학과 40명, 응용물리학과 30명 등, 도합 190명의 신입생이 선발되었다.

제3절. 학내 안정과 새 재단 영입

1. 재연된 '학장 파동' 과 학내 안정기조의 구축

1963년 7월 제4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정력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비교적 민주적인 태도를 보였던 김병희 학장이 1963년 11월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급적 많은 교수들의 학내 업무 참여를 권장하던 취임 초기의 방침과 태도를 바꿔 교무과장, 학생과장, 사무과장, 도서관장, 기숙사 사감 등의 행정정보직자들로 구성된 교내간부조회(校內幹部朝會)를 매일 개최하고 여기서 대학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문제를 논의·처리함으로써 교수회의의 기능을 사실상 약화시켰던 것이다. 학사 운영에서 소외된 교수들은 당연히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장의 그러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학사 운영 방식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빚게 되어 그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과 신망도 점차 퇴색하게 되었다. 학내 분위기가 이처럼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사회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인화(人和)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통고문을 김학장에게 발송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 1964년 3월 23일에는 학생총회에서 ‘김학장 불신임’을 결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동맹휴학에 들어가는 비상사태가 빚어지기에 이르렀다.

이 때부터 인하공과대학은 불행히도 또 다시 내분의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다. 개교 이후 세 번째로 겪게 된 큰 위기인 셈인데, 이번에는 이사회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한 김학장이 8월 31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함으로써 간신히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인하공과대학이 초기 10년의 시행착오를 마감하고 안정 기조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감수해야 했던 마지막 진통이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때의 동맹휴학 사태를 계기로 인하학원의 관계자들은 새삼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학장의 역할, 학장과 교수들의 관계, 학생의 자치권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모두가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장 파동’ 같은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악폐라는 공감대가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전체 인하인의 단결과 학내 안정을 화구하는 여론과 더불어 지혜와 덕망을 겸비한 학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64년 9월 11일 임시이사회에서 박철재(朴哲在) 박사를 인하공과대학 제 5대학장으로 선임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문교부 기술교육국장 및 원자력연구소장을 역임한 박 박사는 9월 17일 문교부의 승인을 받은 뒤, 10월 1일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대학 운영방침을 피력하였다.

이제 서약한 선서와도 같이 모든 힘과 정력을 다하여 대(大) 인하의 발전과 본 학원이 기도하는 과학기술의 연마로 우리나라의 융성과 우리 민족의 복지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헌신노력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 (중략) 본인은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며 교무에 헌신할 방침이오니 교직원 제위는 본인의 뜻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재 학장은 이후 학내 질서 정리, 교권 확립, 면학분위기 조성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와 동시에 박 학장은 학사 업무의 조속한 정상화와 능률화를 위해 몇 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1965년 8월 1일의 기구 개편을 통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확대하고, 그 아래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도록 하였다. 이어 1966년 3월 26일에는 교무과와 학생과를 각각 그대로 둔 채 이 둘을 총괄하는 교학처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68년 6월 1일에 그동안 부재하였던 교학처장 직제를 임명, 가동시키고 사무국의 경리과를 기획관리과로 개편하였다.

한편, 대학 교육의 합리화를 위해 1966년 12월 6일 대학 2부의 응용물리학과를 대학 1부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성공했으며, 그리하여 이 학과는 1967학년도부터 대학 1부에서 정원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1967년 7월에는 정밀기계공학과 등 5개 학과의 증설을 문교부에 신청했는데, 그 중 정밀기계공학과만이 12월 6일자로 인가되어 1968학년도부터 40명 정원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 대학은 대학 1부에 10개 학과, 대학 2부에 4

개 학과, 대학원에 6개 학과를 포용하는 국내 유수의 공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박 학장의 노력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내 소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1964년 9월에 제 5대 학장으로 취임한 그는 여러 면에서 화합을 일구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4년에 걸친 박 학장의 재임기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였으며 학원분위기 또한 안정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교수들도 이 기간에 인하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학생들의 면학을 고무하는 장학금도 늘었다. 특히 박철재 학장은 건실한 육영재단을 영입하는 일에도 동분서주하여 마침내 한진상사(韓進商事)의 조중훈(趙重勳) 사장이 인하학원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박 학장은 1968년 9월 9일 신재단의 구성에 즈음하여 학장직을 사임하였다.

2. 신(新)재단의 영입

1954년에 자유당 소속 부통령 이기붕을 이사장으로 하여 김법린 문교부장관을 위시한 정부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인하학원 초대 이사진은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의 붕괴와 함께 유명무실해진 채 명목만 유지하여 오다가 5·16 군사쿠데타를 맞이하여 완전히 해산되었다. 이에 따라서 신재단의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변호사 정구영을 이사장으로 하는 제2대 임시이사진이 구성되었다. 이후 임시이사회는 짧

은 재임기간 동안이나마 신재단의 구성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썼으며, 특히 5·16장학회의 이사장이던 엄민영(嚴敏永)이 1966년 11월 제10대 임시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인하학원을 5·16장학회가 인수하게 하려고 한동안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제11대 김장훈 임시이사장에 이르기까지 8여년 동안 단순히 인사교체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이 때까지의 역대 이사장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 숫자는 취임 일자임).

- 초대 이사장 : 이기봉(李起鵬, 1954. 2. 5)
- 제2대 임시이사장 : 정구영(鄭求瑛, 1961. 6. 11)
- 제3대 임시이사장 : 김장훈(金長勳, 1963. 5. 3)
- 제4대 임시이사장 : 윤태림(尹泰林, 1963. 9. 9)
- 제5대 임시이사장 : 권영대(權寧大, 1964. 6. 27)
- 제6대 임시이사장 : 조병욱(趙炳旭, 1964. 10. 12)
- 제7대 임시이사장 : 류승원(柳承源, 1965. 1. 30)
- 제8대 임시이사장 : 신능순(申能淳, 1965. 4. 19)
- 제9대 임시이사장 : 최규남(崔奎南, 1966. 2. 14)
- 제10대 임시이사장 : 엄민영(嚴敏永, 1966. 11. 17)
- 제11대 임시이사장 : 김장훈(金長勳, 1968. 2. 8)

사실 믿음직한 새 재단의 영입은 인하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학장 파동’을 비롯한 개교 이래의 혼란과 시련도 따지고 보면 ‘실력’을 갖춘 점잖은 재단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컸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김장훈 학장이 학내 분규를 야기한 끝에 사임하면서 특히 강화되었다. 인하학원이 처한 현실이 당초의 웅대한 이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박철재 학장을 중심으로 학내 안정 기조가 정착되어 가긴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재단의 불안정성에 따른 한계는 더욱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학내 분위기 속에서 발표된 한진상사주식회사(韓進商事株式會社) 조중훈(趙重勳) 사장의 인하공과대학 인수 의사는 각계의 비상한 관심과 더불어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평소 육영사업에 뜻을 품고 있던 터에 공학의 발전을 통한 산업경제의 진흥에 큰 비중을 둔 정부 당국의 권유를 흔쾌히 수용하여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조중훈 사장의 인수 결단이 인하공과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인하인들의 열망과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1968년 8월 8일, 조중훈 사장은 한진상사의 간부진을 대동하고 인하공과대학을 방문하여 박철재 학장으로부터 인하학원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다음 교내를 두루 둘러본 뒤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어 8



조중훈 이사장과 김장훈 이사장

월 30일 소집된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조중훈 사장은 인하학원 운영권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합의서와 기부승낙서를 수용함으로써

써 인하학원의 새 재단 구성이 가시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때의 합의서와 기부승낙서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학교법인 인하학원 임시이사장 金長勳(갑)은 1968년 8월 30일 제 4회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80번지 趙重勳(을)을 영입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합의한다.

- (1) 을은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창학정신을 존중한다.
- (2) 을은 교권을 보장한다.
- (3) 을은 갑의 아래 요망사항을 이행한다.

(가) 을은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인수함에 있어 별지 기부승낙서와 같이 일금 2억원 整을 기부하며, 동 금액은 학교발전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에 단 본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의거 문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 관리한다.

(나) 을은 별첨계획서를 참작하여 학교설치기준령에 의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4) 학교법인 인하학원 임원(이사 및 감사) 개편은 을이 동 법인 인수와 동시에 을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5) 을의 동 법인인수일은 서기 1968년 월 일로 한다.

서기 1968년 8월 30일

(갑) 학교법인 인하학원 임시이사장 金長勳

(을) 한진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趙重勳

〈기부승낙서〉

금반 본인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인수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보강비 및 학교경사비보전금 총당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일금 2억원을 하기와 여히 기부함.

-記-

- (1) 금 1억원 整은 금전신탁증서(1968년 7월 30일 한일은행)
- (2) 금 1억원 整은 지급보증서(1968년 12월 20일 한일은행지불)

한진상사주식회사대표이사 趙重勳

을은 학교법인 인하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히 승낙함.

서기 1968년 8월 30일

학교법인 인하학원 임시이사장 趙重勳

이상과 같은 합의서와 기부승낙서 그리고 문교부장관에게 송달될 각서를 접수한 임시이사회는 조중훈 사장의 인하학원 인수를 다음과 같이 승인, 결의하였다.

- ① 일금 2억원 整의 기부행위를 수락하는 동시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조중훈 씨가 인수한다.
- ② 기부승낙서 및 합의서 원안을 수정 없이 이를 승낙한다.
- ③ 조중훈 씨로부터 제시된 신이사진 전원을 영입하고 현이사진은 사임한다.

이렇게 해서 인하학원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무적 절차를 매듭지은 신재단 측은 1968년 9월 4일까지 모든 법적 절차도 끝마쳤다. 그리하여 1968년 9월 5일, 신·구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학원의 운영권 이양식이 거행되었다. 사학(私學) 교육기관인 인하학원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재단다운 재단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